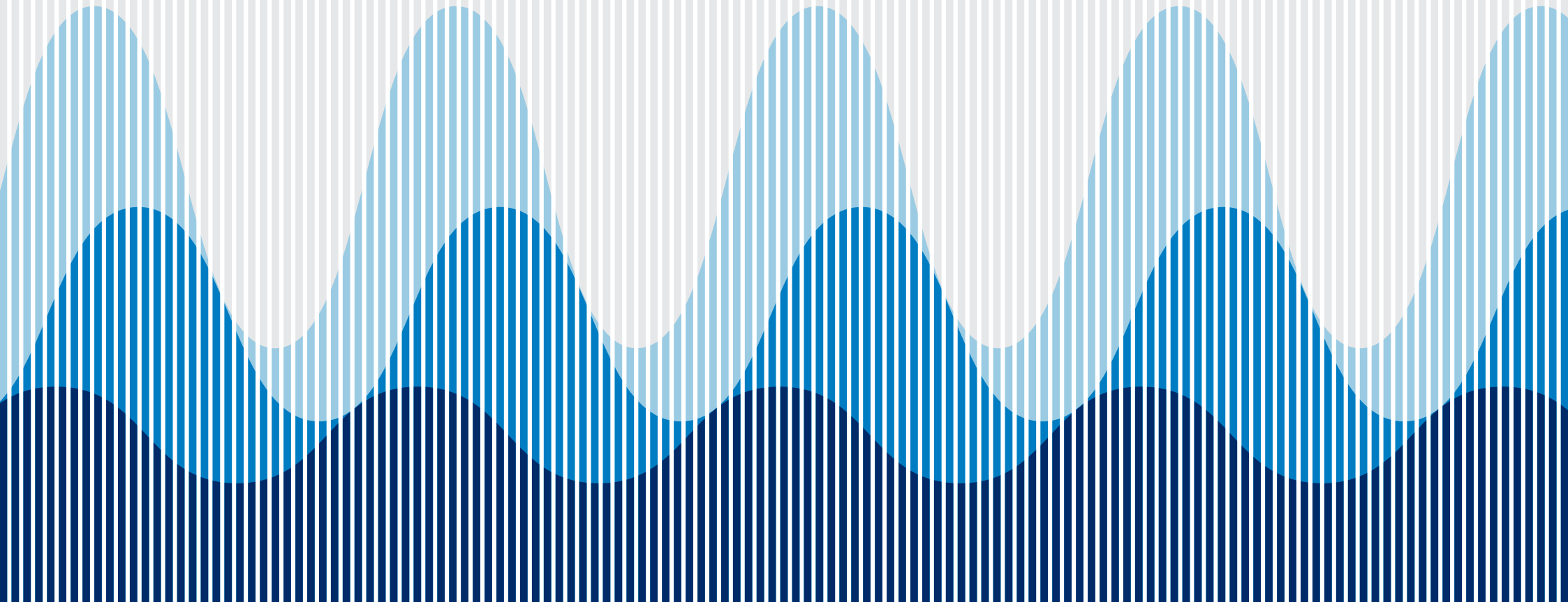


VALUABLE MOVEMENT

10th POSCO REPORT

posco



ABOUT POSCO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철을 더 사랑합니다

철은 우리 주위 곳곳에 존재합니다. 선박, 자동차, 교각은 물론 가전제품, 음식용기, 캔, 각종 의료기구, 현악기 줄 등 수많은 제품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철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포스코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며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에너지를 더 푸르게 합니다.

연료전지,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새로운 소재를 더 공부합니다.

철강 제조 기술력과 포스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그네슘, 티타늄 등 희소금속 개발 및 첨단 신소재 분야를 연구합니다. 새로운 꿈을 열어가는 글로벌 종합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로부터 사랑받는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사회,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6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합니다. 사회 공헌프로그램, 동반성장활동,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랑받는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TV광고 '원고자' 편

ICON GUIDE

페이지 하단 아이콘

- 보고서의 현재 페이지 또는 관련 웹페이지를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 보고서의 현재 페이지 또는 관련 웹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 현재 페이지가 만족스러우면 눌러주세요. 즉각 포스코 서버에 전송되어 내년도 보고서 제작에 반영합니다. 간단한 의견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링크 아이콘

- 보고서 내의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관련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0TH POSCO REPORT

이해관계자의 사랑과 관심으로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층 높은 수준의 체계적 전략, 이해관계자를 향하는 한결같은 활동, 투명한 성과보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없없이 달려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고서 특징 2003 국내 최초 제3자 검증 2004 GRI G2 도입 2005 4개 자회사 성과 보고 2006 GRI G3 도입 2007 중요성평가 도입, 리뷰패널 운영 2008 경영철학에 따른 목차구성, 주요 해외법인 성과 보고 2009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2010 외부 전문가 의견 수록, 모바일웹 개발 2011 재무/비재무 통합보고서 발간, 사랑받는기업 철학(SPICEE) 적용 2012 온라인을 통한 성과 보고 실현



조강생산량 ● 연결 ● POSCO 단독

단위: 천 톤 매출액(연결기준)

단위: 십억 원

영업이익/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단위: 십억 원



자산

단위: 십억 원

부채/부채비율 ● 부채 -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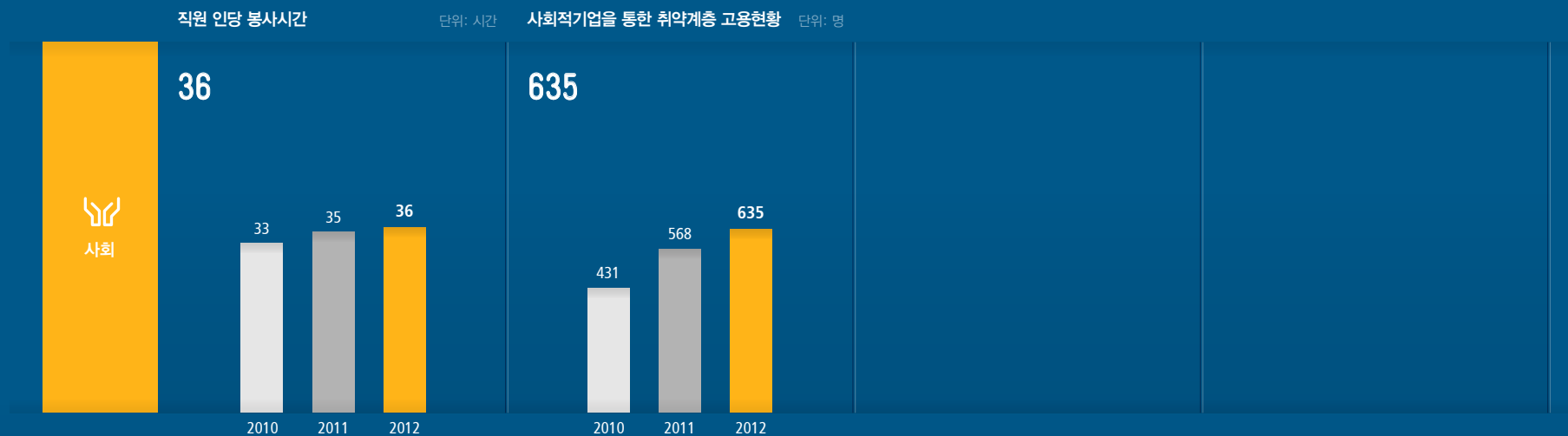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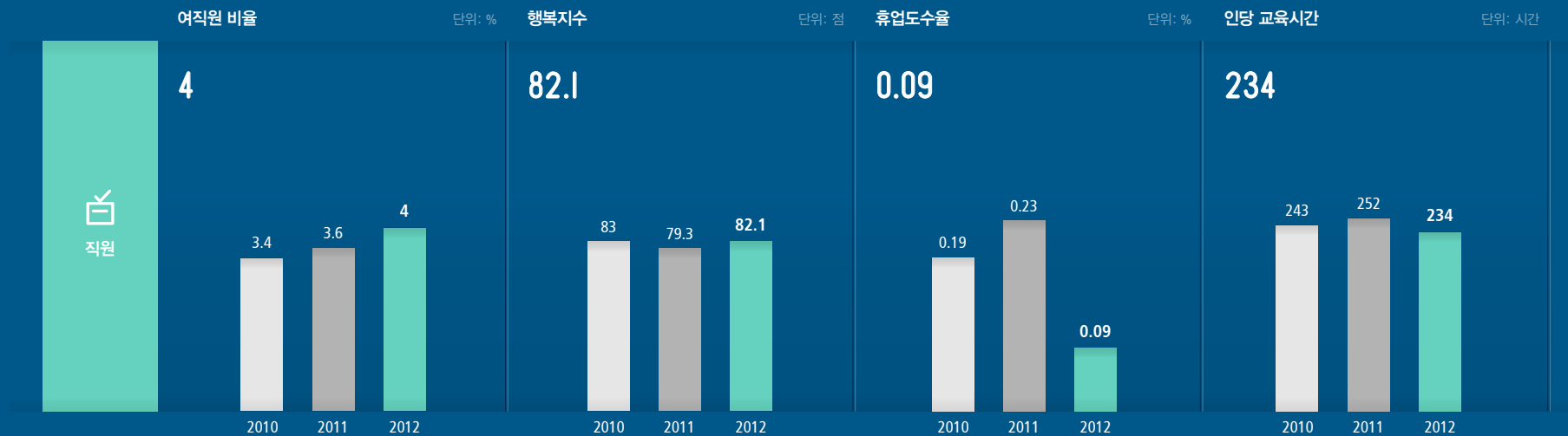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자본/자기자본비율 ● 자본 - 자기자본비율

단위: 십억 원







								
Overview	지속가능경영체계	투자자 Investor	고객 Customer	환경 Environment	파트너 Partner	직원 Employee	사회 Society	Appendix
18	20	12	12	15	15	16	11	10

CONTENTS

Overview

보고서 개요
글로벌 포스코웨이
포스코패밀리 비전 2020
지배구조
CEO 메시지
2012년 성과 및 2013년 계획
중요성평가

지속가능경영체계

CSR 추진체계 활동
패밀리 CSR 역량 진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기업윤리
인권경영
위험관리체계
CASE: 오디샤 프로젝트
CASE: SNS
CASE: 감사나눔운동

투자자 Investor

투자자 정보
기업 가치 및 대외 평가
업무 혁신
기술 혁신
CASE: 스마트워크플레이스
CASE: 리튬 추출 기술

고객 Customer

친환경기술
고객가치창출
품질경영
CASE: 친환경 자동차

환경 Environment

환경경영
기후변화
친환경 공정
환경 파트너십
CASE: 생물다양성

파트너 Partner

공정거래
벤처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
CASE: 포스코형 성과공유모델 FOCUS

직원 Employee

안전
보건
행복한 일터 만들기
글로벌 인재육성
CASE: 다양성 존중_여성을 위한 근무환경
CASE: 안전 시스템_작업장 위험 요인 제거

사회 Society

사회공헌체계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글로벌 인재
다문화 지원 사업
클린오션봉사단
아프리카 사회공헌활동
희망일자리 창출

Appendix

재무제표
ESG Data Sheet
검증보고서

ABOUT THIS REPORT

2012년 한 해 포스코는 포스코 사랑받는 기업 모델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2012 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201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2012 보고서는 종이 없는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One Source Multi Us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PDF, 포스코 웹사이트, 포스코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지속가능경영성과를 다양한 형태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종이 사용을 저감하여 친환경 성과 보고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둘째, 2012 보고서는 2011 보고서에 이어 포스코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담은 통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통합하여 이해관계자의 정보 획득 편의성을 강화하였고 재무적/비재무적 가치가 모두 포함된 하나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강화했습니다. 포스코 6대 이해관계자별로 케이스 스터디를 추가하여 이해관계자가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이슈에 대해 지난해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록했습니다.

넷째, 실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듣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실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 프레임워크

2012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 G3.1 가이드라인과 ISO 26000, 포스코 고유의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통합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2013년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 정보, 기준, 정의는 국내 기업 회계 기준에 의거합니다.

보고 기간

포스코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2013년 4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기업 지배구조는 2013년 3월 22일에 개최한 이사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항 본사 및 서울사무소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단 투자자, 녹색성장신사업 등 일부 정보는 포스코패밀리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피드백

이 보고서는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인터넷과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457-0198, 3737 이메일 sustainability@posco.com 설문 참여 <http://goo.gl/KkTDI>

2012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보고서와 제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증기관인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ISAE3000과 AA1000AS를 기반으로 일관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지키면서 그 위에 포괄성, 중대성 및 대응성을 보고서 전반에 걸쳐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포스코웨이

포스코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포스코 고유의 문화적 강점을 계승하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글로벌 포스코웨이(Global POSCO Way)를 정립하고 2010년 12월 비전 2020과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포스코웨이는 모든 포스코패밀리가 공유해야 할 정신적 모델이자 행동양식으로 비전과 핵심가치,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할 핵심가치 실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글로벌 초일류기업에 걸맞은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정립합니다.

비전과 핵심가치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은 포스코패밀리의 미래를 향한 꿈과 경영철학,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업을 구현하는 열정과 긍정의 원천을 '꿈과 희망'으로, 미래의 윤택한 인류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와 에너지'를, 그리고 그 실현의 결과를 '더 나은 세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핵심가치는 내일의 비전을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할 가치 판단과 행동의 준거입니다. 포스코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회사와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바를 다섯 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5대 핵심가치는 고객지향(Customer), 도전추구(Challenge), 실행중시(Execution), 인간존중(People), 윤리준수(Integrity)입니다. 5대 핵심가치는 과거 40여 년간 포스코인에게 내재된 철학을 계승·발전시켜, 인간존중과 윤리 준수 사상을 바탕으로 도전과 실행을 통해 고객과 동반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오늘날의 포스코를 만든 정신적 자산을 글로벌 성장 확대 전략에 따라 전 세계 포스코패밀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였습니다.

핵심가치 실천원칙

핵심가치의 관념적 이해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구체화한 원칙이 '핵심가치 실천원칙'입니다. 포스코패밀리로서 '이것만은 지키자'는 취지 하에 임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핵심가치 별 관련 키워드들을 12개 원칙으로 구성하여 2009년 12월에 공포하였습니다. 핵심가치 실천원칙은 5대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경영 방침 및 혁신 활동의 핵심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Global POSCO Way 체계도



포스코패밀리 비전 2020

World First-World Best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먼저 만들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선정한 전략 고부가가치 제품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독립발전사업자

일당오 (一當五)

작은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업무, 성과, 재능, 언어, 학습 측면에서 한 명이 다양한 역량을 배양하여 개인 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

+ 비전슬로건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글로벌 100대 기업, 사랑받는 기업

선진국의 침체가 구조화되고 신흥국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와 철강 산업은 유례없는 동시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톱에 진입하여 2%대 저성장 이 예고되고 국내 경제도 내수와 수출의 동시 불황이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철강 산업은 레드오션화되어 저수익 체제가 장기화되고 철강사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그룹 성장 엔진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기 저성장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포스코패밀리는 시나리오별 목표를 재설정하고 전략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우수한 사업 성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스코는 2020년에 기업 규모에서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비전 2020 달성을 위해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20위권, 포춘 존경받는기업 Metal 부문 1위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최적화-역량 차별화-가치 극대화-위험 최소화의 4대 사업전략 방향에 따라 핵심 도메인인 철강, 소재, 에너지 사업의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100과 포춘 존경받는기업의 지표에 따라 각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사업 방향과 경영인프라를 구축하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2년 포스코패밀리는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이라는 비전 2020 슬로건을 선포하였습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 기업 시민의식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철강 사업은 국내외 상공정의 투자 규모와 사업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하공정은 시장 확대에서 사업 안정화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원가경쟁력 5%p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World First-World Best* 제품의 신규 판매량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나아가 R&BDE* 체질을 강화하고 포스코 고유의 미래 혁신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2020년 철강 사업의 “글로벌 Top Integrated Player”가 되고자 합니다.

소재 사업은 30여 개의 핵심 사업을 선별하고 경영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철강 제조 기술력과 포스코 브랜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술력과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Top 5 하이엔드 제품 10개 이상을 양성하고 높은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여 “종합 소재 Global Leader”로 도약할 것입니다.

에너지 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구조 고도화 및 사업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 플랜트 EPC* 역량을 초기에 확보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철소 운영과 IPP* 사업 동반 진출 등 패밀리 역량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자원개발과 발전을 통합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연원료 자급률을 높이고 기존 사업의 인접 영역으로도 확장하여 “글로벌 에너지 Solution Provider”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인적자원과 유·무형자원의 강화를 통하여 포스코 고유의 경영 인프라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은 유연한 인력운영과 폭 넓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일당오*를 통해 개인 역량을 배양하여 전사 위기를 돌파하려 합니다. 더불어 글로벌 표준 POSPIA 3.0을 구축하여 포스코 패밀리의 시너지를 보다 강화하고 포스코패밀리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 사랑받는 기업

기업규모 TOP 100위

The World's Largest Corporations
FORTUNE

지속가능 기업 TOP 20위

WORLD ECONOMIC FORUM

존경받는 기업 Metal 1위

FORTUNE
WORLD'S MOST
ADMIRABLE
COMPANIES

핵심 도메인

철강 | STEEL

소재 | MATERIAL

에너지 | ENERGY

경영 인프라

인적자원
개인인 자원의 성장 일체화

유형자원
글로벌 POSPIA 3.0 구축

무형자원
브랜드 & IP 관리 고도화

지배구조

Board of Directors

현 삼천리 대표이사 회장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서울대 법학, 서울대 행정/석사,
경희대 행정/박사)

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서울대 법학, 하버드대 국제법/석,박사)

현 두산 부회장
전 말레이시아 서던뱅크 수석부행장
전 맥킨지 한국지사장
(McKenna College 경제학, 하버드대 MBA)

전 LG CNS 대표이사 사장
전 로고시스템 회장
전 한국IBM 대표이사 사장
(서울대 전기공학)

현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
전 아이리버 부회장
전 소니코리아 회장
(서울대 철학,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석사)

이영선



한준호



이창희



James
Bemowski



신재철



이명우



전 한림대학교 총장
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 메릴랜드대 경제/석,박사)

정준양



박기홍



김준식



장인환



김응규



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기획재무부문장)
전 포스코 부사장

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성장투자사업부문장)
전 포스코 부사장

현 포스코 대표이사 부사장(탄소강사업부문장)
전 포스코 부사장

현 포스코 부사장(경영지원부문장)
전 포스코 전무

지배구조

포스코는 기업지배구조의 비전과 원칙을 표명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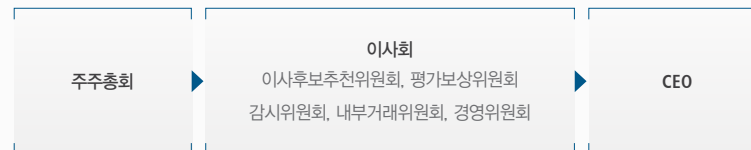
포스코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 되는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해 이사회 의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여 주주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을 대표하는 CEO를 분리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CEO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신설,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사외이사 활동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 윤리 규범도 제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내부거래 안전에 대해 복수의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재정및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전문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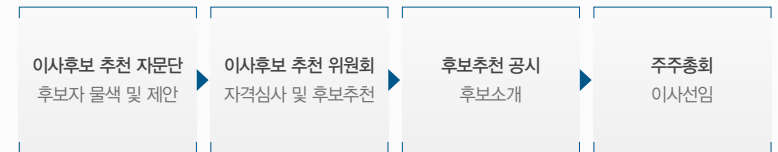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기준 설정



이사회 구성

포스코 사내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외이사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으로부터 선임 예정 이사의 3배수를 제안 받고,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외이사 선임절차



2013년 3월 22일에 있었던 4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영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로는 신재철 前 LG CNS 사장, 이명우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가 신규 선임되었고, 사내이사에는 장인환 부사장, 김응규 부사장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2년 포스코 이사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출석률은 사내이사 100%, 사외이사 96%였습니다. 2012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은 2013년 경영계획, 2015 중기 경영전략, POSCO-Africa 설립을 위한 출자, 호주 코번(Coburn) 질코늄/티타늄 광산 합작투자 사업, 연말 이웃 돕기 성금 출연 등이었습니다.

이사 출석률

단위: %

총 지급보수

단위: 억 원

사내이사	사외이사	총 보수한도	총 지급보수
100	96	70	67

지배구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총 6개가 있으며, 철강투자의 검토와 심의를 담당하는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이
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개최 수(2012)

이사회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및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
3	3	5	9	5	10

전문위원회 주요 역할 및 구성

위원회명	인원구성	주요 심의/의결
이사회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위원장 이창희	사내이사 후보자격 심사,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등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4인, 위원장 한준호	2011년도 전사경영성과 평가, 장기인센티브 지급방법 개선 등
재정및운영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2인 위원장 한준호	투자주식 매각(안), Benefit Sharing 성과보상금 출연 AMMC 철광석 자산 지분인수 입찰 참여 등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2인, 위원장 이창희	제44기 결산감사결과 심의, 감사 및 비감사 서비스 사전 승인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인, 위원장 이창희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발전방안을 위한 특별 출연 포항 지역난방사업 현물출자 계획, 포스코에너지 유상증자 참여 등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5인, 위원장 정준양	2012년 해외가공센터 신설 계획, Fe분말 사업 추진 해외법인 5사에 대한 기술판매 계획 등

2012년 이사회 주요 논의 안건

2012			
01/17 JAN	02/23 FEB	03/16 MAR	05/11 M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호주 Roy Hill 철광석 프로젝트 2단계 투자계획 · POSCO-Africa 설립을 위한 출자 · 영일만 감시용 열화상 장치 기탁 · 사내이사 후보 추천(대표이사 회장 후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이사 후보 추천(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후보) ·故 박태준 명예회장 특별공로금 지급의 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장 선임 ·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 대표이사 회장 선임 ·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 출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 · 포스코교육재단 출연 · Benefit Sharing 성과보상금 출연 · 장기인센티브제도 지급방법 개선 등
08/10 AUG	11/09 NOV	12/14 D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특수강 상장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계획 · 포항 지역난방사업 현물출자 계획 · 2012 회계연도 중간배당 실시(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구조재편 · AMMC 철광석 자산 지분인수 입찰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중기 경영전략 · 2013년도 경영계획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 등 	



CEO 메시지

포스코가 지속가능경영에 첫 걸음을 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포스코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기업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포스코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비전 2020'을 새롭게 하여 2020년에 기업 규모에서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기업 시민 의식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인류 사회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에 포스코는 비전 2020에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포스코는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불확실한 경영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글로벌 철강사업 확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35조 7천 억 원, 영업이익 2조 8천 억 원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세계 철강사 중 최고 수준인 7.8%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포스코는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라는 철학 하에 포스코형 EVI(Expanded Value Initiative for Customers), 핵심 고객 전담 조직인 KAM(Key Account Management) 확대 등으로 고객의 문제에 답을 제공하는 고객성공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에 3,500만 톤이라는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경영을 3대 경영철학으로 삼아온 포스코는 2012년에 환경 경영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글로벌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신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응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Green Growth Leader로 도약하고자 에너지, 신소재 등 녹색 신사업을 미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포스코는 지역사회와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학교폭력예방사업, 해외 사회공헌활동 등 국내외에서 공동체의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해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포스코는 협력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성과공유제인 FOCUS(Fostering, Open innovation, Collaboration, Upgrade, Sharing)를 도입하여 포스코 고유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으며,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신뢰를 바탕으로 임직원과도 활발하게 소통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회사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내 블로그 '포스코&'를 오픈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이 행복한 일터의 원천이라는 믿음 하에 금연, 절주, 비만퇴치, 저염식 운동도 지속 전개해왔습니다.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어느덧 중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가격경쟁을 넘어 가치경쟁을 기반으로, 한 차원 더 높은 혁신을 통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포스코가 있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회장 정준양

2012년 성과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선진국 국가부채 악화 영향과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을 하락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수출 위축, 주택시장 침체 및 가계부채의 증가, 소비부진 장기화 등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철강경기 또한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산업 둔화로 철강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공급과잉 압력이 심화되면서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도, 불확실한 경영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글로벌 철강사업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201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63조 6,0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6,5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5.7%입니다. 포스코 개별기준 매출액은 35조 7천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률 7.8%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결 자산 규모는 79조 2천7백억 원이며,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으로 인한 차입금 축소로 부채 규모는 36조 8천4백억 원으로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86.8%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연결 조강 생산량은 3,970만 톤으로 전년대비 63만 톤 증가하였습니다. 포스코 제품 판매량은 시장악화에도 전년대비 56만 톤 증가한 3,505만 톤을 기록하였고, 수출 비중은 41.7%입니다.

재정절벽 (Fiscal Cliff)

세금감면 혜택 종료와 정부지출 삭감정책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

롱 프로덕트 (Long Product)

선재, 와이어, 봉강 등 길이가 긴 형태의 특수강

+ 포스코패밀리란?

포스코패밀리는 포스코와 국내의 출자사 등을 포함하며, 비전·브랜드·기업문화를 공유하는 포스코 소유의 그룹경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연결 조강 생산량

단위: 천 톤

	2011	2012
포스코	37,325	37,986
포스코특수강	829	684
장가항STS	920	1,032
합계	39,074	39,702

제품별 조강 생산량

단위: 천 톤

	2011	2012
열연	8,036	8,136
냉연	13,084	13,544
후판	6,350	6,088

철강부문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강부문 주요 계열사인 포스코특수강은 스테인리스강, 선재 및 봉강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세계 특수강 롱 프로덕트(Long Product)* 13위, 스테인리스선재 2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스코강판은 표면처리강판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입니다.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판매사인 중국 장가항스테인리스와 철강재를 가공/판매하는 해외 가공센터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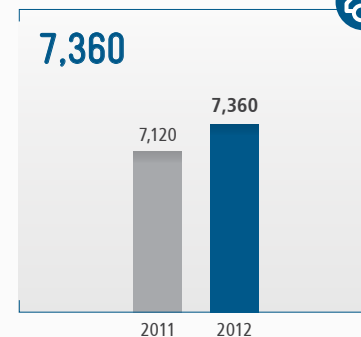
2012년 포스코의 주요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악화에도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수요기반을 확대하였고 저가수입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차별화로 불황기 수익성 확보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World Best-World First 제품의 점유비율을 높였으며, 자동차강판과 에너지용 후판 등 고급재 판매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 자동차강판 판매량은 736만 톤, 에너지강재 판매량은 270만 톤에 달했으며 선재와 전기강판을 포함한 고수익 제품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EVI(Expanded Value Initiative for Customers, 포스코형 EVI 모델) 활동 강화, 핵심고객 전담 조직인 KAM(Key Account Management)을 통한 토달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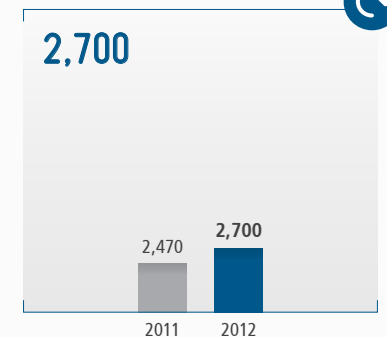
자동차 소재

단위: 천 톤



에너지 강재

단위: 천 톤



2012년 성과



철강부문

상/하공정

제철 공정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을 중간재인 덩어리 상태로 만든 후 최종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상공정은 쇳물을 만들기까지의 공정을 의미하며, 하공정은 중간재를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을 뜻합니다.

AMMC (ArcelorMittal Mines Canada)

IMFA (Indian Metals & Ferro Alloys Ltd)

PGL (Pickling & Galvanizing Line)

산세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

CGL (Continuous Galvanizing Line)

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

단위: 원

+ 2012 원가절감액

1조 2,66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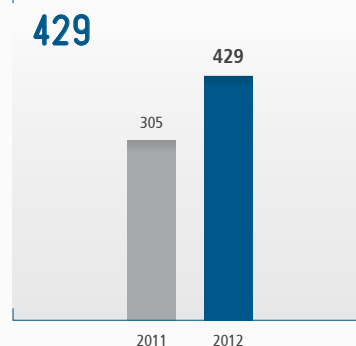
둘째, 신제품 및 공정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신규수요 개척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128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수요를 창출하였고, 신규 철강공정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건설이 완료되는 해외 상/하공정*법인들의 프리 마케팅(Pre-marketing, 사업 진출 전에 시행하는 마케팅 전략)을 시작하여 현지 시장의 철강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 부진 지속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원료투자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철광석 개발 프로젝트인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의 지분을 인수하고, 철광석 가행광산인 캐나다 AMMC*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의 IMFA* 페로크롬 전기로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며 원료 자급률을 제고했습니다.

넷째, 향후 철강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상공정 설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멕시코, 중국 등에 향후 지역별 수요 특성을 감안한 하공정 설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신성장 시장을 선점하여 미래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 개발량

단위: 천 톤



2012년 완공된 주요투자사업

프로젝트	완공시기		
탄소강	포항	PGL*	(75만 톤/년) 2012. 4
	인도	CGL*	(45만 톤/년) 2012. 5
	중국	CGL	(45만 톤/년) 2012. 12
STS	베트남	냉연 증설	(15만 톤/년) 2012. 2

마지막으로, 수익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1조 원 수준의 원가절감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원가절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등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성 향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캐시 코스트(Cash Cost, 감가상각을 제외한 현금원가) 기준으로 1조 2,661억 원에 달해 목표인 9,933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진행 프로젝트

프로젝트	완공시기		
탄소강	국내	포) 제 3 Finex	(200만 톤/년) 2013. 12
		포) 4 선재	(70만 톤/년) 2013. 05
		광) 4 열연	(335만 톤/년) 2014. 10
	인도네시아	상공정 1 단계	(300만 톤/년) 2013. 12
	멕시코	CGL 증설	(50만 톤/년) 2013. 06
	인도	냉연	(180만 톤/년) 2014. 06
		전기장판	(30만 톤/년) 2013. 10
	베트남 (포스코특수강)	전기로	(100만 톤/년) 2014. 07
	스테인리스 스틸	터키	냉연 (20만 톤/년) 2013. 04

2012년 성과



철강부문

수출

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

락인 (Lock-In)

열쇠로 문을 잠그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

철강 부문의 주요 출자사 경영 활동으로, 포스코특수강은 2012년 5월 2단계 합리화 투자를 마무리하고, 신설비의 본격가동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동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조업도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연간 24만 톤 조강 증산과 4,200억 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POSCO SS-VINA는 지난 6월, 201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착공하였으며 철근 및 형강류의 생산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건설수요 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선재, 스테인리스봉강 및 스테인리스강관 시장에서 공고한 지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여타 특수강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현재 국내시장에 동사와 같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와 축적된 생산경험을 지닌 경쟁사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포스코특수강은 제강, 압연, 단조 등 선재 및 봉강 제품생산을 위한 일관공정 과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및 신규업체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꾸준한 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2차 설비 합리화 투자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강생산력 증대, 생산공정단순화, 수출* 증대 및 매출 증대가 가능한 대단위 공정설비를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재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강판을 주력으로 한 철강본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알루미늄도금강판은 물론이고, 독자기술로 개발한 연속용융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도금강판, 후물알루미늄강판 등을 비롯하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소재 등 고부가 비탄소강 표면처리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믹스(Product Mix, 제품 구성)를 고도화하여,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외 표면처리강판 시장에서 차별적인 고객가치 확립을 위해 맞춤형서비스(EVI)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내수 우량 고객사와는 락인(Lock-In)* 정책, 주요 수출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사무소의 설립과 전략고객사에 대한 MOU체결 등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지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익성 중심의 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포스코와의 가전컬러강판 임가공 체제를 구축하여 가전사에 냉연제품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다변화를 통하여 저가형 소재를 개발하여 건축자재용 컬러강판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중국산 저가재의 확산을 막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 대응 강화와 철강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고내식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 패턴강판 등을 지속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성과



무역부문

무역부문

무역부문 대표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철강/금속, 화학/석유제품, 기계/운송장비, 농축산품 등의 수출입거래 및 해외 플랜트, 인프라 구축 등 해외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무역부문과, 국내 에너지, 광물, 식량자원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개발부문, 그리고 국내외 제조 및 유통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74개 무역 네트워크(지사 및 무역법인), 15개 투자 법인 및 17개의 자원개발 거점 등 해외 주요지점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중 무역부문이 전체 매출/손익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원 개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2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 17조 114억 원, 영업이익 1,41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포스코와의 M&A로 철강 비즈니스에서 연간 400만 톤 이상의 판매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공급선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건설, 소재, IT, 플랜트 등 그룹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사업 가능성의 확보 등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UOC (China National United Oil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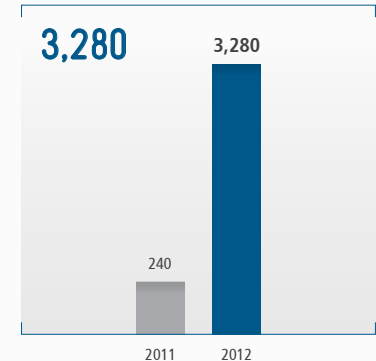
단위: 원

+ 대우인터내셔널	
매출액	영업이익
17조 114억	1,410억

에너지자원개발

자원개발부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의 경우 2008년 12월 중국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인 CNPC*의 자회사인 CNUOC*와 장기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수익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해상 생산시설 및 가스관/육상기지건설이 진행 중이며,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업 생산 개시는 2013년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며, 유가수준 및 각종 물가변동 요인 등으로 인해 정확한 수익창출규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확인된 가채매장량과 현수준의 유가, 향후 점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 추세 등을 토대로 한 업계 내 전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 회사의 수익창출력을 크게 초과하는 주요한 수익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2011년 10월에 탐사1기가 발효된 동해 대륙붕 6-1남부광구 탐사사업의 경우 과거 가스가 발견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유망구조의 정밀재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 3차원 탄성파 탐사와 탐사정 시추관련 입찰 등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2013년 하반기에 탐사정을 시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밖에도 회사는 페루 유전, 오만LNG 가스전 등에 지분참여 하였으며, 향후 에너지개발사업을 주력 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적인 자원개발회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 그룹사 연계사업 단위: 억 원



광물자원개발

회사는 광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에 대한 지분참여 및 구리 및 우라늄 광산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4% 지분참여한 암바토비 니켈광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에 위치한 세계 3대 라테라이트 니켈광산 중 하나입니다. 2012년 7월 니켈 완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29년동안 연간 6만 톤의 니켈과 5,600톤의 코발트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의 경우 회사는 5%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시범생산 후 2012년 6월 대량생산이 개시되었고, 향후 연간 6백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에서 구리, 우라늄 광산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성과



건설부문

건설부문

건설부문의 대표사인 포스코건설은 제철소 건설 경험을 토대로 토목, 건축, 에너지, 도시개발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9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2009년도에 시작된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사발주가 마무리되면서,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시설에 대한 신규 공사 발주가 부진을 거듭해왔으나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에서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LH공사가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 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이 지난해의 절반수준까지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수주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해외건설 수주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작년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와 같은 초대형 공사 수주가 없었던 탓에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브라질 CSP를 제외한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4조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0%수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사는 악조건 속에서도 2012년 수주 11조, 매출 7조 400억 원, 세후순이익 3,46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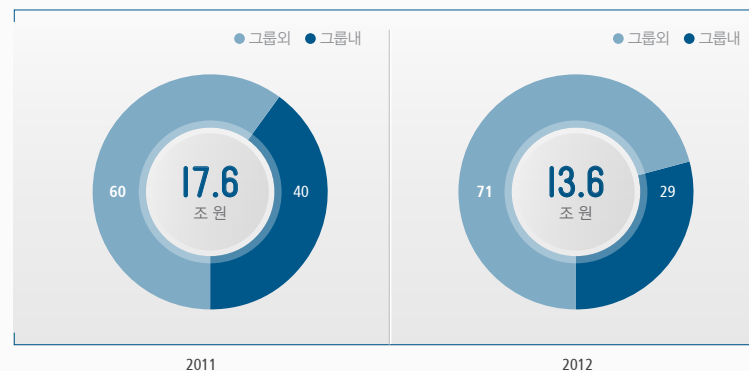
동사는 제철 플랜트 분야에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철 플랜트와 연관된 화공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행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초고층 건물 및 복합 상업시설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업계 최고의 시공능력과 상품구성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송도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역에서의 복합개발 사업 수행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등에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문에서는 제철플랜트와 연관된 발전 플랜트를 바탕으로 해외의 발전설비 분야에서 다수의 수행실적을 확보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기진출한 지역에서의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 진출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목사업 부문은 도로, 철도, 교량 부문에서 다수의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분야 및 진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파이낸싱, 설계, 요소기술 등을 확보하여 글로벌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수주

단위: %



* POSCO E&C 등 5개사 수주액 합계

CSP (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

단위: 원

포스코건설	
수주액	매출액
11조	7조 400억

2012년 성과



에너지부문



ICT부문

단위: 원

+ 포스코에너지	
매출액	영업이익
2조 8,567억	2,732억
+ 포스코ICT	
매출액	영업이익
1조 1,284억	305억

에너지부문

포스코에너지는 1969년 경인에너지라는 사명으로 국내 첫 민자발전사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해왔습니다. 2005년 포스코패밀리사로 편입된 후, 2011년 인천 LNG 복합 5, 6호기의 준공 및 광양부생발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최대 민간 발전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이래 친환경에너지인 연료전기 제조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부생가스발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국내외 시장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사명을 포스코에너지로 변경함과 더불어 미래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최고·최대의 민간발전회사로서 첨두부하용 LNG복합화력발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기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인천발전소는 수도권 발전설비의 약 16.5%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의 전력공급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발전소는 첨두부하 화력발전소(전력수요가 높은 상태인 최대부하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로서 기동특성이 좋고 출력조정이 용이함)로서 전력부하변동에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수도권의 전력계통 안정에 필수적인 발전소입니다.

인천 LNG복합발전소는 1,800MW 용량의 1~4호기에 2011년 2월과 6월에 각각 준공된 1,252MW 용량의 5, 6호기를 추가하여 총 3,052MW의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고효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보다 효율 높은 발전소인 1,200MW 용량의 대체 1,2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LNG복합발전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 1~4호기의 경우 전력수급계약(PPA)에 의해 생산된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LNG 복합화력은 기동, 정지가 용이하여 첨두부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에비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CT부문

포스코ICT는, 융합과 녹색성장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고 IT와 엔지니어링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하여 <Creating Green ICT Future>라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회사는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해 EIC(Electronic Instrument Compute: 전기, 계장, 컴퓨터) 전 분야에 대한 자력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하고 포스코 해외 제철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패밀리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사업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사와 협력을 통한 솔루션 사업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 사업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도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최첨단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였고, 강한 조직, 강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소통 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합병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개선되는 1거브 효과를 조기에 극복하여 회사 단독으로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등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ICT는 전통적 IT서비스 분야를 넘어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미래 신수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박판용 고성능 레이저 용접기 연속 라인이나 스마트 원자로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계통 설계 등 핵심 기술 개발 및 관련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빌딩 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 그리드 핵심 솔루션이 적용되는 신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 전력망 및 제철소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내 미래형 선진경영시스템(POSPIA 3.0) 구축 수행을 통해 컨설팅 기반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 등 신성장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성과



소재부문

소재부문

포스코엔텍은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소재회사로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종합 내화물회사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칼슘(2009.12월), 포스그린(2010.7월) 합자사 설립 및 침상코크스, 등방흑연블록 등의 케미칼 사업 진출을 통해 회사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감은 물론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에 발맞춰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건설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침상코크스는 수입에 의존해 오던 탄소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침상코크스는 전극봉,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 2차전지, 슈퍼커패시터 전극재등 소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방흑연블록은 반도체, 원자로 등 첨단산업과 태양광 등의 그린 에너지산업에 적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생산장비의 부품 소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전망이 있으며, (2010~2015년 연평균성장률 34.8% 전망) 국내에 등방흑연 가공 시장은 성숙되어 있으나, 가공 모재인 등방흑연블록 제조 기반은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량 수입종인 등방흑연블록의 국산화 추진시 안정적 원료 제공으로 탄소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전지음극재 국산화로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의 국산화를 이룰 예정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외국 경쟁사와는 차별화되는 독자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고용량 전지에 적합하고 장기 수명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차전지음극재 사업의 매출은 2012년부터 2분기부터 시현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 제품 개발을 통해 고용량 및 자동차시장에 확대 진입하고자 합니다.

포스코엔텍은 철강원료 및 철강포장 전문기업으로 철강부원료(알미늄 탈산제 및 몰리브덴)의 공급과 철강포장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철금속 제련 및 합금철 등 소재사업 영역을 개척하여 철강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엔텍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여 소재부문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고, 전분야에 걸친 끊임없는 혁신으로 기존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상시위기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환경 대처 등 전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2년 연결기준 매출액 9천 588억 원, 영업이익 157억 원의 실적을 올려 창사이래 최대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소재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사업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습식제련 생산 전문단지인 영월 희유금속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첫번째 사업으로 몰리브덴 습식제련 공장을 준공하여 설비안정화 및 공정최적화 활동을 통해 조기 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몰리브덴 사업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광산사업 관련 출자사인 (주)나인디지트와 (주)리코금속을 흡수합병하여 도시광산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영월희유금속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원료의 수급에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의 위탁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설비 보완 작업 등 조업 조기 정상화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건설중인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의 운영을 위해서도 조업연수, 조업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완벽한 조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회사는 2012년 한 해 동안 사업계획 단계에 있던 신사업들의 공장을 준공하고, 실체를 갖추어 가면서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소재부문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기술력의 성장을 함께 이루었고, 동시에 소재사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단위: 원

+ 포스코캠텍	
매출액	영업이익
1조 2,957억	921억
+ 포스코엔텍	
매출액	영업이익
9,588억	157억

2013년 계획

철강산업은 주요 국내 수요산업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동북아 3국의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철강 공급물량도 증가하여 마켓쉐어 확보를 위한 철강 사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어려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글로벌 100대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유동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 선행지표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시나리오 전환을 판단하고, 각 부문별로 수립한 시나리오별 실행계획을 통해 외부 환경변화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 고유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해 고망간강 등 차별화된 고유 제품기술 개발과 미래 선도형 혁신공정기술인 POIST(POSCO Innovative Steelmaking Technology), CO₂ 배출 저감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판매 전략을 고객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장 리더십과 수익성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형 EVI, 고객성공전략, 필드영업과 감성마케팅 강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고객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고객가치경영(Customer Value Management)’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본격적인 가동 및 판매에 앞서, 본사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각 지역별 조기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여 고객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조업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현지 인력에 대한 조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진화된 경영시스템인 POSPIA 3.0을 인도네시아 일관설부터 적용하여 본사와 현지 법인 간 유기적인 전략 실행은 물론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의 현지 지원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철강부문

단위: 원

2013 매출액

66조

단위: 원

포스코매출액

32조

단위: 만 톤

조강 생산 능력

국내

4,300

해외

400

단위: 건

철강 기술 개발

신제품

140

공정기술

140



소재부문

단위: 원

소재 매출

8.2조



에너지부문

단위: MW

국내외 발전 설비 능력

4,474조

기타

휴업도수율

0

단위: 점

고객만족도

80

단위: t-CO₂ / t-s

CO₂ 원단위 2020

1.98

중요성평가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과 기업 경영의 영향도를 파악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2008년 자체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보고서 제작 과정의 개선 사항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고서 제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경영 활동에서 잠재적 영향도가 높은 이슈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전년 대비 개선 사항

	<p>이슈 확인을 위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I 4.0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GRI 4.0 초안을 중요성 평가에 적용하였습니다. · SAM DJSI의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Global 100, Fortune 존경받는 기업, EIRIS FTSE4Good의 지표도 추가하였습니다.
	<p>실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CSR 전문가 인터뷰를 SPICE의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분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포스코 관련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01

02

03

04

05

내외부 이슈 확인	중요성 매트릭스 작성	주요 이슈 도출 및 반영	검증보고서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 정비
<p>내부/외부 이슈를 파악하여 포스코 관련 이슈를 도출</p> <div> <div> 사회적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SNS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동종업종 기업(Peer Group) KPI 분석 · 지속가능경영 평가 DJSI, Global 100 등 · 지속가능경영 규범 GRI, ISO 26000 등 · CSR 트렌드 WBCSD 비전 등 · 지난해 검증 기관 의견 </div> <div> 비즈니스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회의 안건 · 이사회 안건 · 혁신과제 · 전사 KPI · 사내 정책/지침 · 관련 위원회 유무 · 직원 설문 </div> </div>	<p>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와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라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습니다.</p>	<p>제작된 매트릭스에 따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주요 이슈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p> <p>내용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가치 창출 및 인권 내용 보강 · UNGC 원칙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 각 분야별 Case Study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를 보고 	<p>실무자와 임원 인터뷰를 통해 회계기관의 검증을 마치면 검증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이는 경영진에 보고된 지속가능경영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합니다.</p>	<p>1년 간의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 및 검증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내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내외부 이슈 확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p>

중요성평가

2011, 2012 중요성평가 상위 10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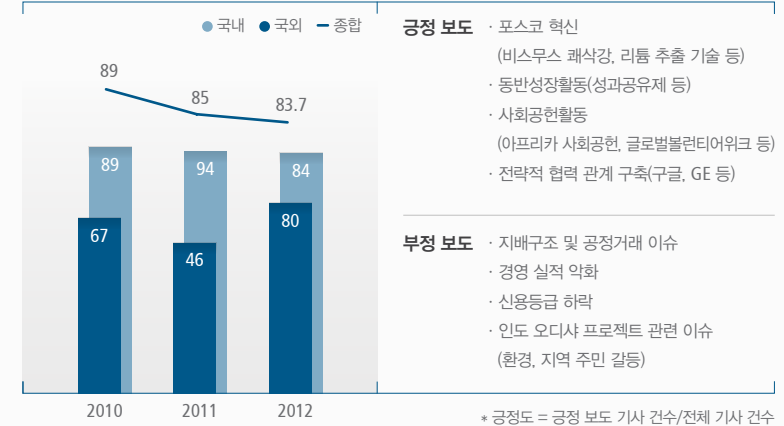
순위	Revised Issue Pool	순위 변동	구분	이해관계자
1	경영실적	-	경제	주주
2	연구 개발	▲ 2	경제	주주
3	고객관계관리/품질경영	▲ 17	사회	고객
4	직원 근무 환경	▲ 14	사회	직원
5	임금 수준/복지후생	▲ 6	사회	직원
6	환경경영 비전/방침	▲ 9	환경	환경
7	기후변화 대응	▼ 2	환경	환경
8	혁신경영/원가 절감	-	경제	주주
9	기업 지배구조	▲ 15	경제	주주
10	해외 사업	▲ 20	경제	주주

미디어 분석 결과 : 국내외 주요 언론 282개 기사

공정도 변화 추이

단위: %

주요 기사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중요성평가

이해관계자 설문

만족도

단위: 점

정보 유용성		신뢰도	
2011	2012	2011	2012
3.80	3.98	3.90	3.99
이해도		디자인 표현력	
2011	2012	2011	2012
3.80	3.85	3.90	3.93

반영 결과

그래픽을 활용하여 생소한 철강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요 기타 의견

장점	· 이해관계자별 목차 구성 및 서울대학생 커뮤니케이션이 우수 · 정량/정성적 KPI가 공개돼 있어 활용 가치가 있음.
단점	· 보다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보고를 하면 좋겠음. · 웹 및 모바일 매체에서 볼 수 있도록 구현 바람. · 포스코만의 아이덴티티 및 CSR 전략/체계가 부족함. · 보다 다양한 데이터 공개
당사 이슈를 외 제안 이슈	·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응 · 감사나눔운동

반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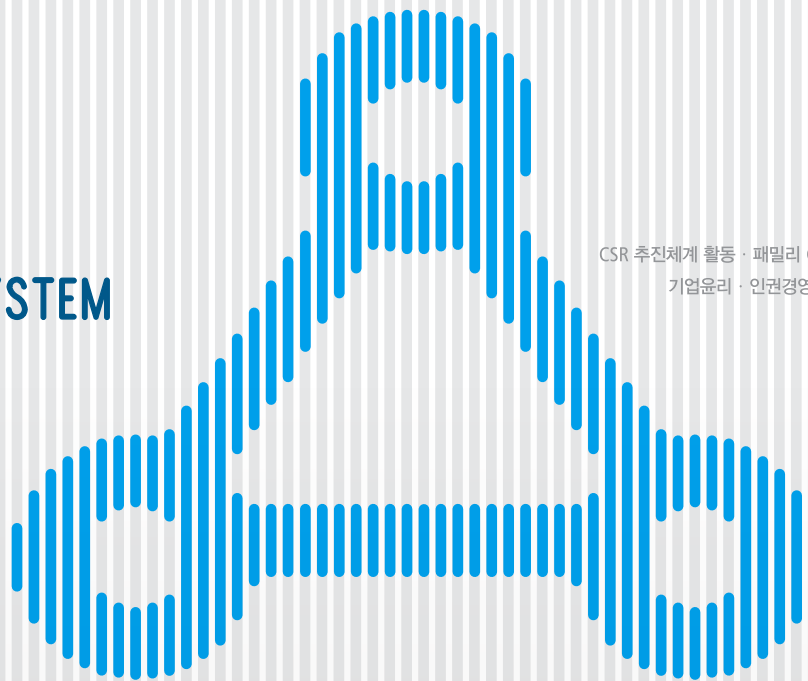
· 인터랙티브 PDF를 제작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양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표를 추가했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읽은 후 인식 변화

순위	응답	응답률
01	윤리적 기업이다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이다	56.6%
03	R&D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33.2%
04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32.7%
05	중소업체와 동반성장하는 기업이다	29.0%

순위	응답	응답률
06	친환경기업이다	26.8%
07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24.9%
08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이다	22.7%
09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다	13.8%
10	아무 변화 없다	3.9%

01 지속가능경영체계 CSR MANAGEMENT SYSTEM



CONTENTS

CSR 추진체계 활동 · 패밀리 CSR 역량 진단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기업윤리 · 인권경영 · 위험관리체계 · CASE: 오디샤 프로젝트
CASE: SNS · CASE: 감사나눔운동

+

20
PAGES

CSR 추진체계 활동

다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철강 산업은 경제,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코는 철강 산업의 특성을 인지하여 창업 이래 환경 중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2003년에는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을 경영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하고 CSM(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팀을 조직한 이래,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위원회

구분	주기	위원장	참석 대상	활동 내용
환경경영위원회	연 1회	CEO	패밀리사 대표	포스코패밀리의 환경에너지 중기경영전략 수립
동반성장협의회	연 2회	CEO/ 중소기업 대표	포스코 임원 및 패밀리사 대표, 중소기업 대표	동반성장활동 전략수립, 성과점검 및 공유
CSR 위원회	연 1회	CR 본부장	포스코 임원 및 외부 전문가	사회공헌프로그램 개선 방안 검토 (전략적 CSR, 이해관계자 소통, 출처사 CSR 등)
포스코패밀리 안전위원회	연 2회	탄소강 부부장	포스코 담당 임원, 패밀리사 대표	안전 활동 점검과 안전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연 2회	CEO	포스코 담당 임원, 패밀리사 대표	포스코패밀리의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검토/확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연 2회	대외협력실장	관련 부서 (마케팅, 구매 등) 임원	CP* 활동 보고 및 활동 계획 수립

CSR 추진체계 활동



사랑받는 기업 동영상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는 회사의 경영 활동은 이해관계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합니다. 2011년 6월에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형 이해관계자 모델인 SPICEE 모델에 의거한 '사회, 파트너, 주주/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6개로 분류하여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포스코의 이해관계자 활동을 담은 사랑받는 기업 백서를 발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 '전략적 이해관계자 관리 실행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 이해관계자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사랑받는 기업 백서

사랑받는 기업 현장 (2011.06.09 선포)

포스코는 국민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기업으로서 위대한 기업을 지향해 왔다. 이제 포스코는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재도약하여 포스코의 이념과 가치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인류복지에 공헌할 것이다. 포스코는 사업 가치, 인간 가치, 사회 가치, 환경 가치를 균형적으로 추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다

- 01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와 녹색환경을 발전시킨다.
- 02 자원과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기술로 산업녹색화를 선도한다.
- 03 신소재와 에너지 개발로 생태계를 개선하고 녹색생활과 녹색문화를 창달한다.

고객을 성공시킨다

- 01 고객 중심 마케팅과 신뢰구축으로 고객을 만족시킨다.
- 02 고객사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고객 가치를 실현시킨다.
- 03 고객과 함께 시장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한 가족으로 동반성장한다

- 01 소통과 상호 신뢰구축으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
- 02 상생협력으로 협력사의 경쟁력과 성장력량을 강화한다.
- 03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인다.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 시민이 된다

- 01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 02 사회단체, 정부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선도한다.
- 03 자유기업 시민으로 사회가치와 문화창출에 기여한다.

인간존중과 자아실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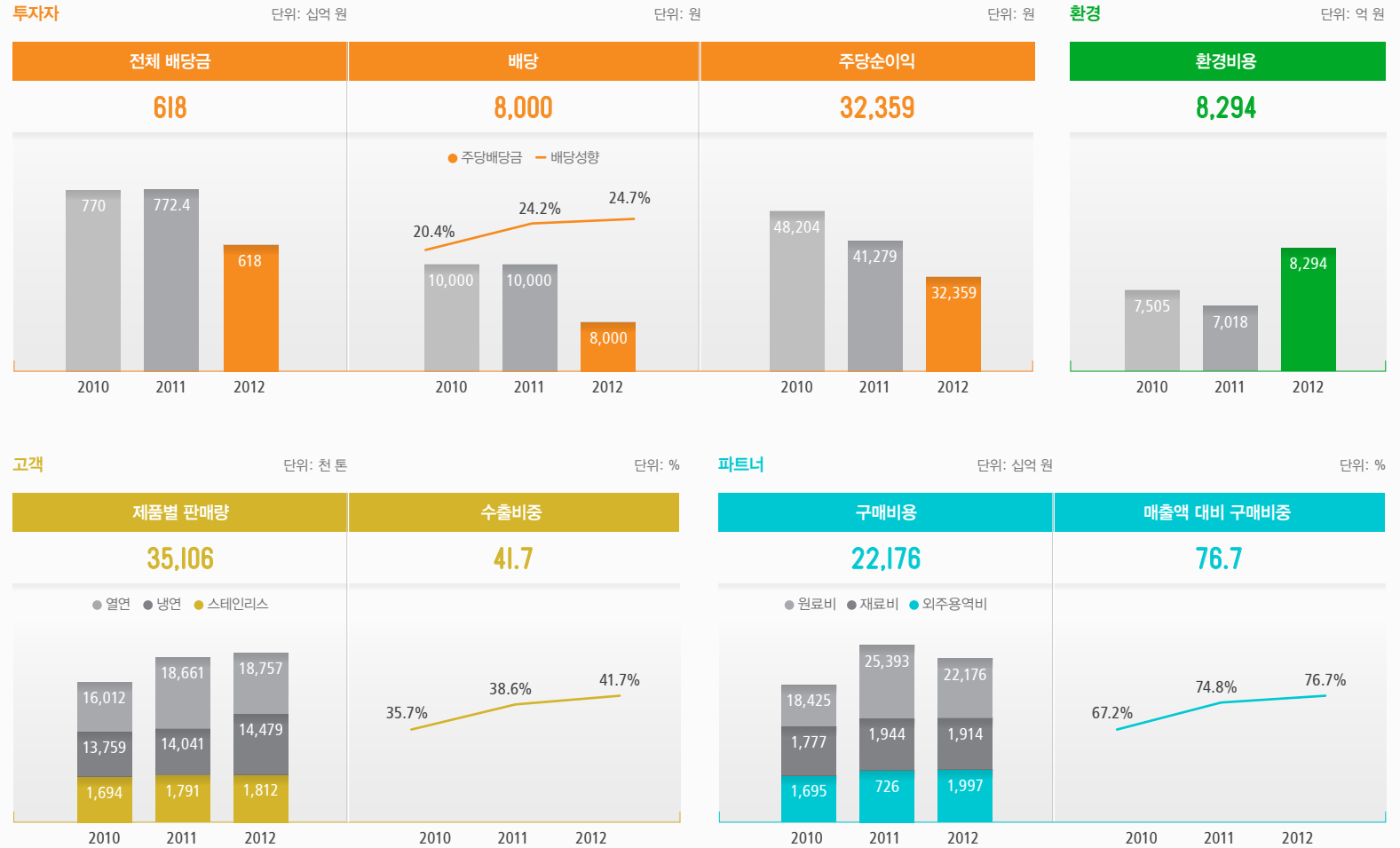
- 01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되게 한다.
- 02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과 직장가 가정의 조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03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실현하며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이룬다.

주주임을 자랑스럽게 한다

- 01 경영투명성과 적극적 소통으로 주주의 신뢰를 구축한다.
- 02 기업가치 증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03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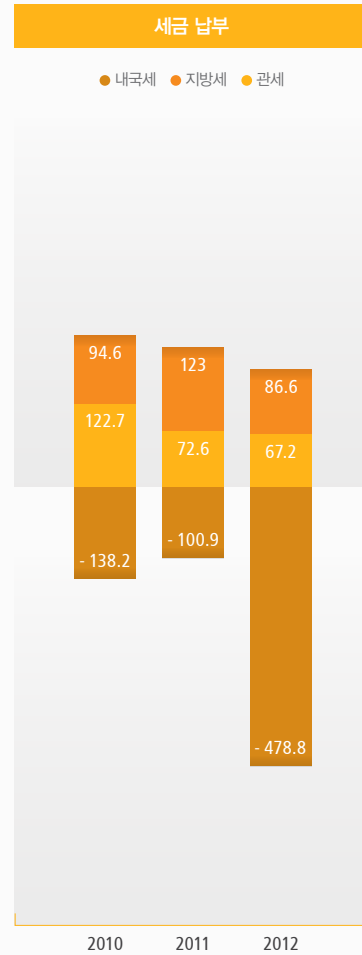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별 활동 및 성과



이해관계자별 활동 및 성과

사회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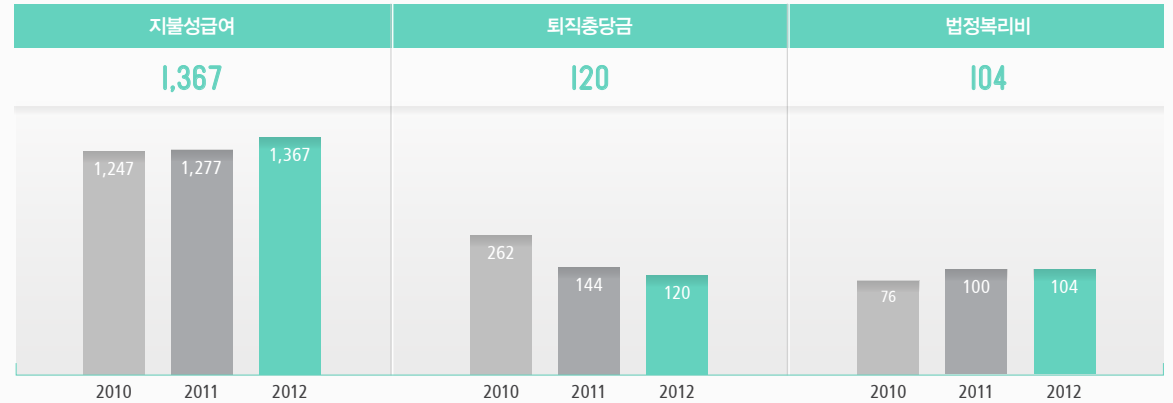


직원

단위: 십억 원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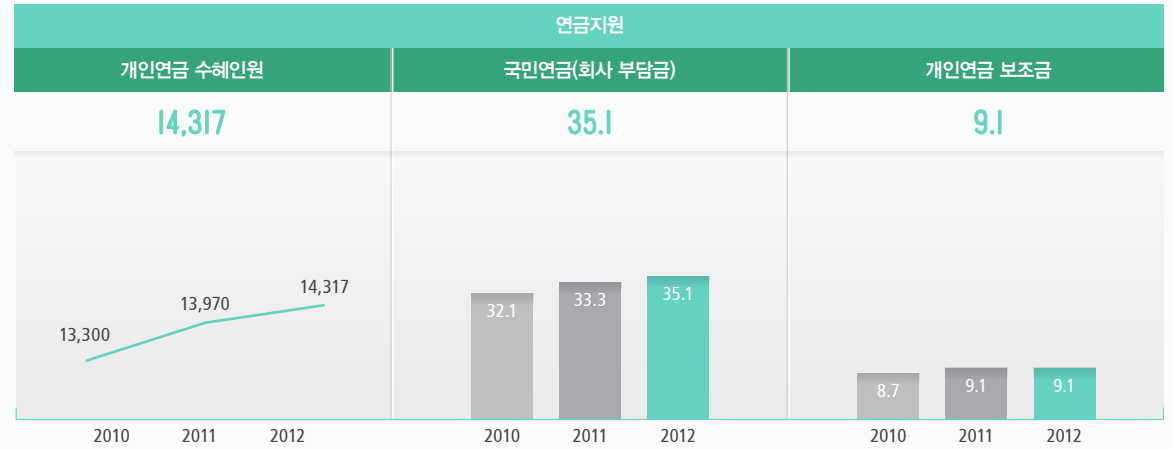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단위: 명

단위: 십억 원

단위: 십억 원



패밀리 CSR 역량 진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기업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전체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가진 역량을 전파하여 포스코 밸류체인 모두가 건강한 기업 환경을 가꾸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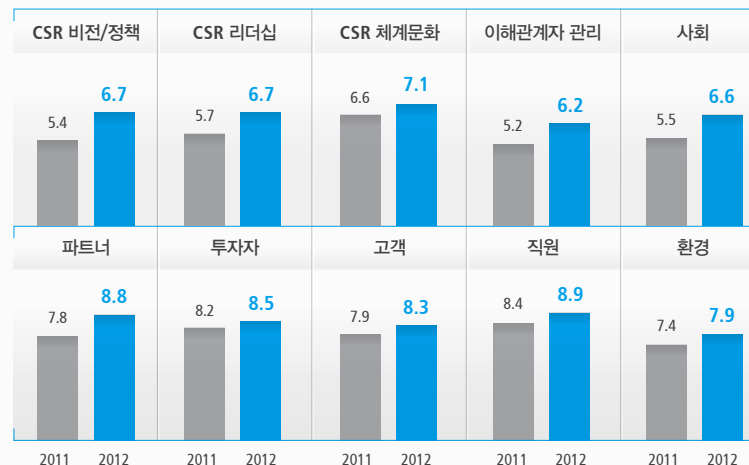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 지속가능경영 체계구축과 역량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지속가능경영 진단을 포스코경영연구소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ISO 26000, SAM-DJSI 평가 항목, GRI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규범에 맞추어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2012년에는 지속가능경영 진단을 포스코 고유의 모델로 체계화하고자 2011년 지표를 기본으로 포스코 사랑받는 기업 모델에 따라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진단 지표는 CSR리더십, CSR비전/정책, CSR체계/문화, 고객, 투자자, 환경 등의 총 10개 분야 6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각 패밀리스별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 화학, 철강 등 특수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 지속가능경영 진단 지표: 10개 분야 61개 항목



지속가능경영 진단 결과

단위: 점, 10점 만점



* 2011년 결과는 2012년 지표 체계에 맞춰 재평가한 것임.

2012년 진단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특수강,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켄텍, 포스코엠텍 등 총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별 자체 점검과 방문 진단 및 현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표별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2012년 진단 결과, 2011년 대비 모든 영역에서 패밀리 평균 수준이 상승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직원, 고객, 파트너, 투자자 환경 분야가 우수한 반면, CSR정책, CSR리더십, 이해관계자 관리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각 패밀리스의 현황, 규모, 산업군의 특성에 맞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도 개선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진단지표 개선, 공통취약 부분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제공한 개선안 수행에 대해 자문하고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패밀리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향상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이 지속가능경영활동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포스코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기존에 CSR 전문가 중심의 인터뷰에서 벗어나 실제 이해관계자가 포스코 경영활동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대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투자자 Investor



한화자산운용 | 정지윤 차장

저는 2002년부터 철강, 에너지 업종관련 증권회사에서 일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포스코에 대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업환경은 현재 국내의 독점적 지위가 마무리 되었으며, 중국이 철강 수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포스코가 에너지,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관련해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보고서를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재무정보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SRI*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G* 성과의 투자자 활용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전체를 보고 ESG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ESG성과 데이터를 요약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RI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사회책임투자, 투자 요소로 사회와 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행위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환경 · 사회 · 지배구조로 지속가능경영의 3대 요소

● 고객 Customer



(주)한금 | 민정현 팀장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는 고객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포스코는 마케팅 3.0의 일환으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의 변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거에는 포스코 마케팅 담당자를 대하기가 어려웠고 고객이 포스코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포스코 담당자가 수시로 고객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고객사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동반출장을 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지자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런 활동을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객 입장에서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철강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고객사들은 철강재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포스코와 고객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니다. 포스코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고객을 대한다면 고객과 포스코가 모두 만족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환경 Environment



ECO DESIGN 연구소
양인묵 소장

포스코의 환경경영은 조직과 제품 개선 측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를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에너지 · 온실가스 문제도 환경 이슈에 포함되기에 이들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제품 환경 규제에 대한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를 정의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환경경영의 좋은 사례입니다.

포스코의 우수한 환경경영에도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에 대한 추가 설명과 위험 · 기회 요인과 기업 비전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생산량이 늘어나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환경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Partner



(주)대동 | 이용동 대표

포스코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윤리경영입니다. 저희도 포스코를 벤치마킹하여 4차 협력사까지 공문을 보내서 명절에 선물 안 주기 안 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거래중소기업에게 납품 후 영업일 3일 이내 주2회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활동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테크노파트너십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위 문제점들을 포항공대, RIST 연구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제품판매에 있어서도 포스코가 영업 및 수출을 같이 해주고 있는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300억 수출탑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500억 수출탑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은 한계가 있으며 해외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스코가 해외사업추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협력사들도 동반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 입니다.

직원 Employee



포스코 전사 노경협의회 이주형 대표

포스코 노경협의회의 역할은 직원과 회사 사이에서 서로가 원하는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회사도 노경협의회도 오픈된 자세로 다가가간 결과 과거 대비 노사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경협의회가 직원복지후생 외에 새롭게 추진할 사항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추진하는 여러 활동들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업무집중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창업시대의 직원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신뢰도가 높아질 때 주인의식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 Society



광양시청 | 이삼희 과장

광양 시민들은 '포스코가 잘 돼야 지역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광양시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도 꽤 많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자매마을결연과 같은 지역사회공헌활동과 QSS 활동 등의 혁신활동은 지역사회의 호응도 높고 광양 지역 기업의 현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포스코 사이의 인식 차이를 줄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와 지역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생 발전해나갔으면 합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김태연 사회복지사

포항은 포스코 없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포스코가 포항을 위해 자매마을 활동을 비롯 각종 소외계층 지원, 불빛축제 개최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포스코가 사랑을 줘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지역사회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이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자매마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매마을이 아닌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시스템을 좀더 보완하면 포스코가 지역을 보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으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포스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학생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김진우 전반적으로 포스코의 우수한 활동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활동이 나열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과 같이 감성적인 부분의 내용은 포스코가 왜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에서부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실었으면 정보 공개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희택 오디샤 프로젝트 Case Study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인도 지역에서 다양한 CSR 활동을 하는 이유도 분명하여 스토리가 충분히 녹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지속가능성보고서에도 오디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달라져보이는 게 없는 듯해 보이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박샘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포스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직원 인터뷰라든지, 사회공헌 수혜자 인터뷰 등을 실어서 좀더 생동감 있고, 친근한 보고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느낌을 풍기는 기업의 이미지도 조금은 친근해지는 것 같고요.

윤형기 전체적으로 활동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습니다. 활동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활동 대상자들의 인터뷰라도 실는다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하나 친근한 보고서가 되려면 쉬워야 한다는 점도 빠질 수 없어요.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생소한 철강 용어, 기술 용어가 많이 담겨 있었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든지, 조금 쉽게 풀어써야 가독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6일 포스코는 22명의 대학생과 함께 이해관계자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은석 “패밀리리사”라는 용어로 마찬가지로입니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패밀리”라는 용어를 흔히 쓰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보고서 초반에 포스코가 사용하는 “패밀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백명현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내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매년 넣으면 지면 낭비도 발생할테고요. 이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내용과 포스코의 비즈니스 관련 주요 용어를 담은 레퍼런스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범 포스코가 데이터 공개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대비 몇 %라든지, 국내 00 수준이라든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박기향 뿐만 아니라 수치가 내려간다고 하면 왜 내려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에서는 ‘숫자가 떨어졌으니 상황이 악화된건가’하고 생각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어야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영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진정성이 더욱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하진 않았을텐데 성공 케이스, 긍정적인 내용과 더불어 실패,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해관계자는 지속가능성보고서가 홍보물이 아닌 성과를 담은 보고서로 볼 것입니다.

한성희 새로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보니 정작 구체적이어야 할 내용은 구체적이게 담기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추상적인 미사여구는 보고서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대학생 명단(이름 가나다순)

일시/장소: 2013년 4월 6일 포스코센터

김다민 Rutgers Univ. 경영학과 **김성진** 서울대 교육학과 **김승구** Balhousie Univ. 지속가능경영 전공 **김옥빈** 서울대 국사학과 **김유빈** 서강대 경제학과 **김진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김하나** 고려대 언어학과 **김희택** 고려대 경제학과 **노한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맹서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기향** 중앙대 경영학과 **박보혜** 고려대 심리학과 **박샘** 강남대 사회사업전공 **백명현** 서울대 경제학과 **윤형기** 서울대 경제학과 **이가영**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이진아** George Washington Univ. 경영학과 **이태영** 인하대 화학공학과 대학원 **정은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용범** 가천대 국제통상학과 **최진규** 인하대 화학공학과 대학원 **한성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기업윤리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경영의 정착

포스코는 지난 2003년 6월 윤리규범을 선포한지 올해 1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 동안 모든 업무처리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포스코는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글로벌 기업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임직원 교육 및 캠페인 지속 실시

포스코는 윤리실천을 기업문화로 공고히 하고자 무엇보다 임직원의 건전한 윤리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고유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임원 윤리세션 등 리더계층 대상의 '윤리적 리더십 강화교육', 조업·구매·외주 부문 등 이해관계자 접점부서 직원 대상의 '윤리 리스크 취약계층 특별교육', 임원이 직접 소속 부서원들에게 기업윤리를 교육하는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입사원, 승진자 대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 e-러닝을 전 임직원 필수 이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으로는 외주파트너사를 포함한 포스코패밀리 전 임직원이 함께 보는 기업윤리웹진 '올바름'을 매월 발간하고, 사내 신문과 방송을 활용한 관련 홍보를 통해 포스코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윤리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포스코패밀리 임직원들은 매년 업무를 시작함에 앞서 윤리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윤리실천 의지를 새로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년 CEO 윤리경영 메시지가 발표되며, 윤리규범 선포일인 6월 2일에도 매년 CEO 메시지 발송을 통해 CEO의 확고한 윤리경영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신분증 뒷면에 기업윤리 자가진단표 5가지 항목을 인쇄하여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시 안내하여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리실천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

포스코는 다양한 앞선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여 효과적인 윤리실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관리책임 범위를 상위 직급자에서 임원까지 확대 하였으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발생시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임직원 징계사항은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윤리 신고 보상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신고를 통해 회사의 손실감소, 수익증대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신고보상금을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행위를 강요 받거나 타인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행위 신고 및 윤리상담은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스코 신문고'를 통한 상담과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 임직원들은 매년 '신고인 신분보호 서약'을 실시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3년부터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여 명절기간에 이해관계자와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2012년까지 임직원이 선물반송센터에 접수한 선물은 총 2천 4백여 건이며, 반송하지 못한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온라인 경매로 거둔 수익금은 7천 2백여 만원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받은 승진인사 축하화환도 경매에 부쳐 거둔 수익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과도한 경조금과 사외출강료에 대한 임직원의 기탁도 일상의 윤리실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포스코 임직원은 사외출강료 64건, 총 1천 7백여 만원을 회사에 기탁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 하였습니다.

단계별 주요활동 내용

01 윤리진단

설문을 통해 부서의 윤리실천 수준과 현황 진단

02 과제선정

- 부서 윤리비전 및 개인의 윤리실천 목표 수립
- 부서장 주관의 기업윤리 전파교육
- 부서토론을 통한 비윤리 예방과제 선정

03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수행

기업윤리

패밀리와 함께 성장하는 윤리경영

포스코는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등 패밀리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윤리경영 인프라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부서장의 주도하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패밀리 차원의 윤리 리스크 발굴 및 개선활동에 초점을 둔 인프라로서, 2012년에는 포스코와 14개 주요 출자사 등 총 15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서는 내실있는 부서 내 윤리 리스크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별 방문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코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 활동이 종료된 후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회사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부서장의 인사평가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천여 개 주요 거래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포스코의 윤리경영 의지, 제도 등을 알리는 지역별 설명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밖에 포스코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와의 계약 시에는 사전 동의 아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거래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윤리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의 리스크 예방

윤리경영은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한 핵심 요소로 포스코는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대해서도 글로벌 차원의 윤리 리스크 예방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파견예정 해외 법인장 및 직원 대상의 집합교육과 함께 주재원과 현지채용 직원 대상의 현지 윤리교육과 코칭활동 등 윤리경영 확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 베트남, 멕시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6개국 38개 패밀리 법인을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서 직접 방문하여 주재원 및 현지채용 직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윤리 및 FCPA 교육, 윤리실천 코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거점법인의 경우 비윤리 행위의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2011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법령 법령 준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글로벌 반부패 법령의 준수를 윤리규범에 명문화하였으며, 임직원 윤리규범 준수서약의 항목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FCPA 전용 신고 및 상담전화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패밀리 FCPA 준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요약문)

부패방지법 준수 포스코 임직원은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해외 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해외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완전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금지 및 예외 행위 규정된 공무원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통상적 수준 이내의 업무상의 편의를 공무원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자 대리인 및 합작 투자 포스코가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공무원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 통제 및 감사 모든 재무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문서화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 공무원과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이 있는 관련 임직원들은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윤리적 제약 등 해외 부패방지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위해 해외 부패방지법 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고 및 내부 신고자 보호 해외 부패방지법 또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자신의 상급자, 준법위원회, 기업윤리 파트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 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고용관계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처벌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외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포스코 임직원은 취업 규칙 및 상벌 지침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은 임직원도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해외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로부터 벌금액을 상환 받지 못한다.

인권경영

빈부격차, 차별 등 사회적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인권 취약국으로의 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모든 직원이 차별 받지 않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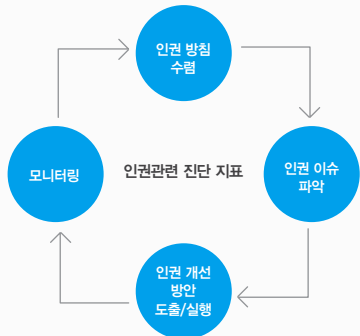
윤리 규범에 입각한 인권경영



포스코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인권 및 노동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또한 포스코패밀리의 윤리규범에 따라 세계 인권선언, UN 보호, 존중, 국제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글로벌 인권 규범을 준수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업과 인권에 대해 점차 강조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윤리 규범에 인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더 알아보기

* 2012년 포스위드, 포스에코하우징은 포스코휴먼스로 통합됨.



윤리규범 중 인권 관련 규정

4. 임직원

-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5. 국가와 사회

-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윤리실천을 통한 인권 보장

포스코는 윤리를 실천해 인권보장과 인간존중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윤리실천 키워드는 배려와 상생, 신뢰로서 윤리규범 기본책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철학을 이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 효과적인 제도와 연결시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인권보장과 인간존중에 위배되는 행동, 사례를 접수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윤리딜레마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2011년에는 윤리규범을 해설한 가이드인 '기업윤리 핸드북'을 발간하여 임직원의 윤리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간존중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행동준칙 제5항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e-러닝 과정 및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취약계층 고용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위드를 비롯, 포스플레이트, 포스에코하우징, 송도SE 등 4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대한 포스코패밀리 인식 확산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가 인권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내외 인권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시행한 '포스코패밀리 지속가능경영 역량 진단'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진단 툴에는 인권 방침, 현황 파악, 협력사 인권 관리, 인권 침해 사례 등 인권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 방침 수립 ▶ 인권 이슈 파악 ▶ 인권 개선 방안 도출/실행 ▶ 모니터링'의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진단을 실시하여 포스코패밀리 전반에 인권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각 패밀리사별로 개선 사항 및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전달하여 포스코패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 더 알아보기

리스크관리체계

2012년

선행지표 기반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2013년

해외법인과 그룹사로 대상 확대

리스크관리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철강산업의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포스코는 회사 내·외부를 둘러싼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상시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리스크관리체계

전사통합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체계 구축 방향

포스코는 2010년 ERM조직 신설 초기에 성장투자사업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전사차원의 통합된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리스크관리정책 수립 및 규정 제정, 조직체계 정립 등 ERM체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2012년에는 리스크 선행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행지표 기반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해외법인과 그룹사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스크관리 조직

포스코의 리스크관리조직은 리스크관리활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 Committee'를 정점으로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와 '리스크관리총괄업무담당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Committee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심의기구로서 전사리스크 기본 방침, 정책 및 규정, 리스크관리 한도 및 종합계획, 상정된 리스크 관련 안전 등을 심의합니다. 리스크관리 Committee 산하 실무위원회는 리스크관리 활동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각 부문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현안 리스크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그룹내 투자계약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검토하는 '계약심의위원회'와 부문의 리스크를 식별, 검토하고 부문간의 리스크관리활동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ERM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총괄업무담당조직인 경영진단실은 포스코의 ERM체계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그룹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를 위해 그룹사를 지원하고 그룹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기준을 운영하는 등 리스크관리 활동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내 각 유관부서와 그룹사 리스크관리조직은 부문별 전문분야 및 각 사회 분야의 중점리스크에 대한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체계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 선행지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중점 리스크 식별 및 전망

포스코의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는 선행지표를 통한 리스크 모니터링 활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외부 환경변화 및 위기상황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행지표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지하고 중점리스크의 변화추세를 전망하는 한편, 평판, 정책, 환경 등 정량화가 어려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기법 등을 적용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선행지표 체계는 외부환경의 영향이 큰 철강업의 특성에 따라 철강시장, 금융시장 및 포스코 진출 신흥국 리스크 지표로 구성된 '외부 리스크 선행지표'와 내부 핵심업무인 마케팅, 재무, 원료 부문 리스크 지표로 구성된 '부문 리스크 선행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에도 주요 부문과 그룹사에 대해 선행지표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Text-mining)

비정형화된 데이터인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

선행지표 구성체계



리스크관리프로세스



위험관리체계

● 핵심리스크 선제적 대응 및 공유

포스코의 리스크 대응체계는 선행지표를 통한 1차 사전대응과 결과지표를 통한 2차 대응의 2-Line-Defence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선행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전사운영 회의에 보고하고 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매 분기마다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상 변화를 전망하여 최고 경영층에 보고함으로써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분석 결과를 ERM실무위원회를 통해 공유하여 전사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층의 피드백과 활동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활동에 반영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행지표와 결과지표 및 정성적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사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2012년에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요 리스크의 현황 및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리스크지표에 대한 세부 구성항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스크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표관리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선행지표의 개선과 추가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외법인과 그룹사의 리스크 선행지표 적용과 회사의 정보 Hub인 GIH(Global Information Hub)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향후 각 부문의 리스크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포스코 '리스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행지표의 지속적인 개선, 리스크 전문가 양성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 풀 운영, 통계 기법 활용 등 리스크 분석기법 다양화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리스크보다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전사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 리스크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변화관리활동

포스코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e-러닝 과정과 사내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리스크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룹사 ERM 정보교류회 정기적 개최 및 사내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그룹 차원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체계

리스크 자율 예방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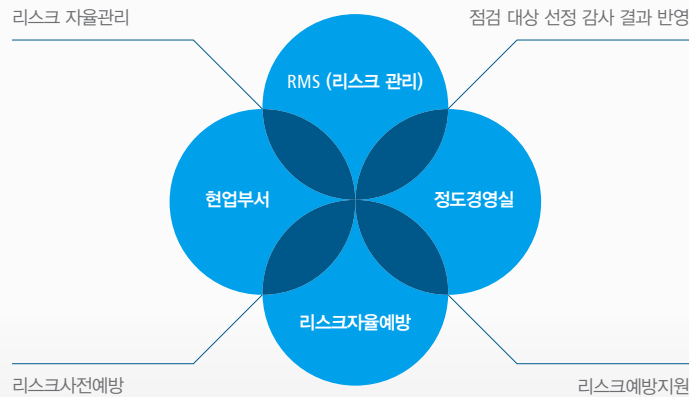
포스코는 2004년 RMS(Risk Management System)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전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프로세스별 리스크를 평가 및 선정하여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RMS의 운영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와 내부 감사 활동을 연계하고 현업부서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에서도 항상 리스크를 조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업부서와 내부 감사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무 보고 내부 통제

한국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는 2003년 12월 공시 및 내부 통제에 대한 CEO/CFD의 인증 절차 수립 및 공시위원회 운영 등 재무 보고 과정의 내부 통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부터 내부 통제 활동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X 법*상 2006 회계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의 입증 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5년 3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평가시스템도 구축 준비하였습니다.

또 2006년부터 외부 감사인의 인증 감사를 통해 재무 보고 산출 및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재무 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COSO*와 미국 SEC에서 제시하는 'Standard Control Activity Framework'를 이용하여 10개 부문의 중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업무 위험을 평가하였으며, 통제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SOX법 (Sarbanes-Oxley)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
회계 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허용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미국의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단체

내부통제 프로세스

1. 설계평가 (Test of Design)

회사가 갖고있는 주요한 통제활동들의 설계가 잘 되어있는지
(내부통제가 전사의 중요 업무 프로세스에 빠짐없이 구현되어 있는지) 회사가 평가함

2. 설계평가 감사

회사가 실시한 자체 설계평가를 감사법인이 감사

3. 운영평가 (Test of Control)

설계평가로써 설계 검증이 완료된 통제활동들이 그 설계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가 평가함
(예:시스템 운영 화면 캡처 등 증빙으로 운영이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함)

4. 운영평가 감사

감사법인이 회사가 실시한 운영평가를 감사

오디샤 프로젝트

포스코는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및 지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5년 포스코는 인도의 오디샤 주 정부와 4,004 에이커 규모의 토지에 연산 1,2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MOU 체결은 기업의 사업을 위한 목적만 아니라 인도와 한국 사이 경제 협력의 초석이 되는 프로젝트로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이 인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환경경영을 경영목표로 삼은 포스코는 환경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포스코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포스코는 친환경 제철 프로세스인 FINEX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인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인 절차에 따랐습니다.

삼림과 환경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준수하였습니다. 2008년 인도 대법원은 삼림 지역 전용을 승인했습니다. 2010년에 인도 중앙 정부는 Saxena 위원회와 Meena Gupta 위원회에 삼림 전용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했고, 2011년에 최종 인허가를 승인했습니다. 2007년에는 항만과 제철소 건설에 대한 승인을 얻었습니다. Saxena 위원회와 Meena Gupta 위원회는 환경 승인 관련 건도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2011년 인도 중앙 정부는 부가 조건과 함께 환경 인허가를 승인했습니다. 2012년에는 환경법원(National Green Tribunal)에 의해 중앙정부의 환경인허가 승인이 재차 검증되었는데, 환경법원의 판결에서도 포스코 프로젝트 환경 인허가 승인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법원은 인도 중앙정부가 2011년에 부여한 추가조건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심의해서 추가조건을 부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인도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오디샤 지역에 적극 투자하여 지역 사회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막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인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디샤 프로젝트 진행 경과

날짜	경과
2005.06	· 오디샤 주 정부와 MOU 체결(1,200만 톤 규모 제철소 및 항만 건설, 철광석 광산 개발)
2005.08	· 포스코-인디아(POSCO-India Private Ltd) 설립
2006.01	· 부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쿡장(Kujang)에 홍보전시관을 설치
2006.02	· TISS(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에 '포스코 R&R Package 및 경제사회 조사' 용역 수행 -73% 조사 완료 후 반대 주민들의 현장 차단으로 조사 중단
2006.11	· NCAER(National Council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오디샤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2007.05	· 환경산림부, 항만(minor captive port) 환경 인허가 · 연안보호구역 해제
2007.07	· 환경산림부, 제철소 건설 환경 인허가
2008.09	· 환경산림부, 대법원 지시에 따라 1단계 삼림 해제 승인
2009.12	· 환경산림부, 2단계 삼림 해제 승인
2010.01	· 오디샤 주 정부, 수자원 할당 갱신
2010.06	· POSCO Foundation 설립
2010.07	· RPDAC(재건/주변지역개발자문위원회), 프로젝트지역주민에 대한 R&R 보상안에 대해 승인
2010.07	· 오디샤 주 정부, 현장 보상과 함께 부지 내 99개 베텔작물 철거 개시
2007.10 ~ 2010.07	· 오디샤 주 정부, 삼림 지역이 아닌 548 에이커 임대 (제철소 건설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못함.)
2010.08	· 환경산림부, 오디샤 주 정부에 의한 부지 인수 작업 중지 명령
2011.01	· 환경산림부, 인허가 재 심의 후 조건을 부가하여 기존 인허가가 유효함을 발표
2011.05	· 환경산림부, 오디샤 주 정부에 삼림 전환을 최종 승인(삼림지역에 주민이 없음을 확인)
2011.05	· 오디샤 주 정부, 주정부 소유 토지 인수 작업 재개. (현재까지 2개의 Gram panchayat의 베텔작물이 철거되고 631명의 농장주에 보상이 완료됨.)
2011.12	· 건설 준비 작업과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부지 지역에 사무소 개설
2012.03	· 환경법원(WGT), 기존 환경승인은 유효, 2011년 1월 부여한 추가조건에 대한 재검토 명령



환경 승인 관련 문서

National Green Tribunal 판결

응용경제연구위원회의 사회-경제 영향 평가

포스코 윤리 규범

오디샤 프로젝트

먼저 사업 시작 전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 3의 기관을 통해 사회-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젝트에 따른 공유가치 창출*을 산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MOU 체결 이후 약 7년간 오디샤 주 정부는 4,004 에이커의 부지를 포스코에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한 4,004 에이커 중 89%인 3,566 에이커는 오디샤 주정부 소유이고, 11%인 438 에이커가 개인 소유입니다. 오디샤 주 정부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은 평화적이었습니다. 포스코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문제도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코의 R&R 패키지*는 2010년에 NGO, 지역 대표, 정부 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주위원회(RPDAC)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포스코의 R&R 패키지는 오디샤 주 정부가 요구하는 R&R 정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포스코는 구순구개열(언청이) 수술, 메디컬 캠프, 장학금, 긴급구호, 가로등 설치, 도로 건설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인권 유린 역시 없었습니다. 인도 대법원 산하 인권조사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역 인권 조사를 했으나 포스코에 어떠한 처벌이나 권고 사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오디샤 주 정부에도 지역 주민들의 인권 및 생계 보호를 요구했고 불법적인 폭력은 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스코는 윤리 경영과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업사회책임의 글로벌 지침인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국제 규범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합니다.

포스코는 윤리 경영 방침 하에 인권 보호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윤리 규범에 따라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 관련한 국제법규와 현지국 법규 등을 준수합니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꾸준히 소통해나갈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기본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가치 창출

기업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

R&R 패키지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

포스코-인디아 R&R 패키지

추정된 주택지/농지 평균가격 Rs 25만 대비 6.8배

01. 사유지에서 이주되는 가구에 대한 보상 (주택/토지 권리기록 보유자)

보상금 제공, 고용훈련, 생계지원 등 보상 제공

02. 100% 토지 상실자

오디샤 주 정부 R&R과 동일 보상: 우선적으로 고용, 고용훈련 제공

03. 부분적인 토지 상실자

오디샤 주 정부 R&R에는 규정 없지만, 포스코는 고용훈련 제공

04. 국유지로부터 이주되는 가구 (국유지에 불법점유 거주자)

오디샤 주 정부 R&R에는 규정 없지만, 가구 당 주택 혹은 현금 보상 제공.

05. 불법 점유 농업 종사자

베텔작물에 대해 오디샤 기준의 두 배 수준 보상, 오디샤 주 정부 R&R에 규정 안 된 노동자, 새우연못, 논, 국유지 내 과일나무에도 보상

SNS

포스코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사내외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포스코의 다양한 기업 스토리와 이벤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포스코를 더욱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외 블로그 'Hello 포스코'는 오픈 7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수 40만명을 기록하였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오픈 4개월 만에 5만 명의 팬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 글로벌 블로그와 링크드인(LinkedIn)을 개설하여 포스코의 최신 기업 소식과 제품, 채용 정보 등을 전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언제 어디서나 포스코의 기업 소식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B2B 기업의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스코의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은 온라인에서 포스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포스코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 블로그 '포스코&'은 포스코패밀리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또한 기존에 흩어져있던 직원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합·정리하여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NEWS, PEOPLE, FUN, TALK 등의 게시판으로 구성된 '포스코&'을 통해 직원들은 CEO 메시지와 회사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사내 에피소드 및 동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게시판인 '토크시대'는 직원간 또는 직원과 경영자간 수평적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구축으로 '쉽고 빠르고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생김으로써 회사 주요 소식과 정책의 전파, 포스코패밀리간 소통 강화 및 업무 처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외 블로그 'Hello 포스코'는 일반 대중에게 포스코 기업 정보와 신소재 에너지,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철에 대한 이야기, 채용 소식 등을 전달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OSCO, PEOPLE, TOGETHER, CAREER CULTURE, SOCIA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기존 블로그와 유튜브의 콘텐츠를 포함해 포스코의 다양한 기업 이야기를 일반 대중들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SNS 속 포스코



포스코는 [황소]가 생각나는 회사입니다. 황소는 똑심있고 배짱도 좋습니다. 또한 게으름없이 자신의 할일을 묵묵히합니다. 그래서 주인(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죠. 황소는 열심히 달립니다. 끊임없이 달리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요. 포스코는 [황소]입니다.



포스코하면 결과 속이 다른 회사 아닌가? 차갑고 딱딱한 철을 만드는 철강회사이지만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요^^ 따뜻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포스코 광고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각 부문에서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공헌의 대표기업이 바로 포스코죠.

감사나눔운동



포스코는 동료, 가족, 설비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입니다. 사진은 감사카드를 동료 간에 나누는 모습

포스코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의 일에 주도적으로 임할 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혁신경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믿음하게 감사나눔운동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감사나눔운동은 2011년 7월부터 제철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 포스코 및 출자사 전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감사나눔의 취지와 실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해외법인들도 활발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고유경영사례

감사나눔활동 추진단계

공감대 형성

2011.07 ~ 2011.10

- CEO, 감사나눔 활동 전사 추진 선언
- 포항제철소장, 감사나눔 운동 도입 추진
- 감사나눔 특강/토론회 실시
- 수첩/뱃지, 감사나눔신문 배포, 감사나눔 블로그 운영

감사나눔 실천

2011.10 ~ 2012.05

- CEO 및 제철소장 감사나눔 솔선수범(전화, 트위터)
- 감사일기쓰기, 감사APP, 감사보드, 감사 저금통 운영
- 감사나눔 공유 한마당 개최
- 감사나눔신문, 현장 우수 사례 취재/홍보

정착 및 확산

2012.05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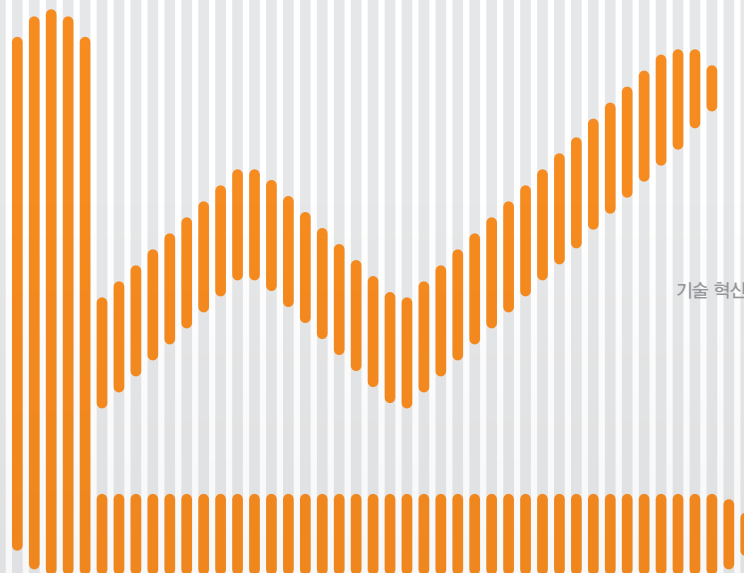
- 감사나눔 범포항 추진 본부 출범
- 지역사회 지원강사 POOL 구축(20명)
- 도요타, 당산, 수도권강철 등 글로벌기업으로 확산
-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에 감사나눔 활동 지원

CEO는 하루 3회 이상 직원에게 감사전화, 제철소장은 SNS 발송과 현장 격려방문, 부서장은 직원에게 감사카드를 보내는 등 리더계층의 솔선수범으로 조기 정착 되었으며, 직원들은 일일 5 감사쓰기, 카드/편지쓰기 활동으로 구성원간 긍정 적인 대화와 관심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조업설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천하며 가족간 감사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업현장에서 운전설비에 대한 감사나눔 활동은 조업과 정비 활동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를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달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활동으로 감사카드, 감사액자, 100감사패널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는 1,000개의 감사 액자를 광양시에 전달하고 광양시는 1,245개의 감사글을 모아 제철소에 전달하며 지역화합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2년 5월부터 감사나눔활동의 노하우와 실행 경험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와 파트너에게 대외기관 전파, 확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나눔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포항시는 감사나눔지도자를 양성하여 감사나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2 투자자 INVESTOR



CONTENTS

투자자 정보 · 기업 가치 및 대외 평가 · 업무 혁신
기술 혁신 · CASE: 스마트워크플레이스 · CASE: 리튬 추출 기술

+

12
PAGES

기획재무부문장 사장 박기홍

비전 2020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기획재무부문은 지속 가능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지속 가능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현지에서도 사랑 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투자사업부문장 사장 김준식

비전 2020 달성을 위해 성장투자사업부문은 소재, 에너지를 포함해서 공급사슬 확장, 경쟁력 확보, 사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사업에서 인권, 노동, 환경 등 CSR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현지사회와 포스코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자 정보

포스코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다양한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분기별 실적발표회와 매년 초 실시하는 CEO 포럼을 통해 회사의 영업실적과 경영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적발표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Non-Deal Roadshow*, 글로벌 컨퍼런스, face-to-face 미팅과 컨퍼런스콜, 제철소 견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와 만나고 회사 경영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3년 1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CEO포럼을 개최하고 2012년 경영실적과 주요활동, 2013년 경영계획과 전망 등을 발표했다.

기업설명회 (Non-Deal Roadshow)

보통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지만,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으로도 열림

배당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20% 이상의 배당성향과 2%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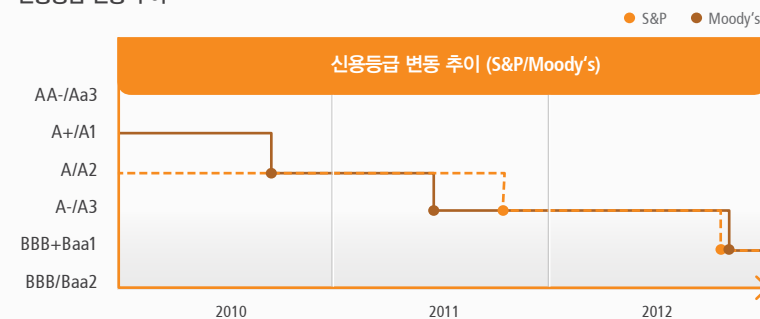
	2010	2011	2012
주당 현금배당금 (원)	10,000	10,000	8,000
현금배당금총액 (십억 원)	770.3	772.4	618.0
현금배당성향 (%)	20.4	24.2	24.7
현금배당수익률 (%)	2.03	2.56	2.27

신용등급

2012년 철강산업의 저성장, 저수익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연이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S&P와 Moody's는 당사가 보유한 우수한 경쟁력을 감안하여 2012년 3분기까지 당사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해 왔으나, 철강경기 부진 지속에 따라 당사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각각 BBB+(Stable)와 Baa1(Negative)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는 당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원가 및 기술 경쟁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 대비하여 독자등급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추이



기업가치 및 대외평가

포스코는 2012년 원가절감 등의 비상경영 체제로 경영 여건 악화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전 세계적 불황에 따라 경영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포스코 개별기준으로 2012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5조 6천 650억 원, 2조 7천 900억 원으로 각각 9.0%, 35.6%가 감소했습니다. 실적 악화는 주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3일 393,500원이던 주가는 2012년 12월 28일 349,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원료 배합 단가 절감, 설비자재 최적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하여, 영업이익률 7.8%로 세계철강사 중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건전성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2012년 12월 28일 현재, 28,371백만 US달러로 세계 철강사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술력 · 수익성 · 원가절감 · 재무건전성 · 원료 확보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하는 본 평가에서 포스코는 2013년에 7.76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근로자 숙련도와 노동생산성과 파이넥스 등의 혁신기술력, 원가경쟁력 항목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원가절감, 수익성, 신형시장 확장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WSD 철강사 경쟁력 순위

순위	2012년	2013년
1	포스코(한국)	포스코(한국)
2	NLMK(러시아)	NLMK(러시아)
3	CSN(브라질)	세베르스탈(러시아)
4	세베르스탈(러시아)	JSW스틸(인도)
5	바오산강철(중국)	신일철주금(일본)
6	JSW스틸(인도)	게르다우(브라질)
7	SAIL(인도)	뉴코어(미국)
8	NSC(일본)	하디드(사우디)
9	뉴코어(미국)	타타스틸(인도)
10	스미토모(일본)	바오산강철(중국)

2012년 9월 포스코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에 우수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8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적 리스크가 높은 철강 부문에서 8년 연속 DJSI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는 포스코가 처음이며, 특히 2009년부터 이어져온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 속에서도 포스코는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0년 연속 포스코를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포스코의 미래 가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및 대외평가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

DJSI는 금융 정보 회사인 다우존스가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의 기업 가치 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DJSI는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된 세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위스 샘(SAM) 연구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분석을 통해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영성과는 물론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샘 연구소는 회원사로 선정된 기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례 재평가를 통해 평균 10~15%의 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주식은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ing) 기금에 우선 투자 대상으로 추천되어,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됩니다.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 평가 결과

단위: 점

구분	경제	환경	사회	총점
포스코 점수	64	84	70	74
백분위 점수*	82	100	79	96
철강업계 최고점	83	84	84	77
철강업계 평균	49	38	47	44

백분위 점수

철강산업군내 포스코의 백분위 순위, 최고점(1위)일 경우 100점임.

2012년도 국내외 수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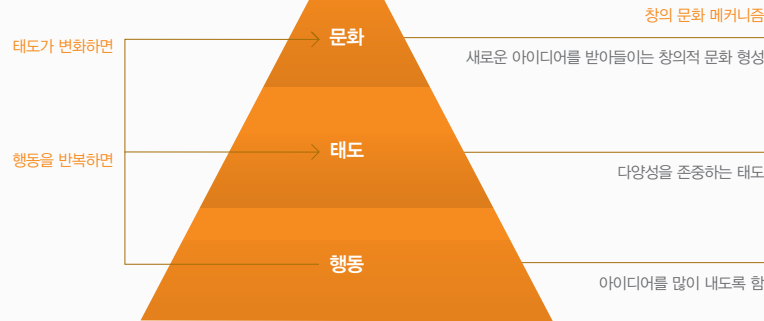
해외	2012.02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100 선정(국내기업/세계 철강사 중 1위)
	2012.03	포춘,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y), 금속 분야 3위
	2012.06	WSD(World Steel Dynamics),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3년 연속 1위
	2012.09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 8년 연속 철강 분야 우수기업 선정
	2012.10	세계지식포럼, 최우수 아시아 MAKE(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s · 가장 존경받는 지식기업)상
	2012.10	세계철강협회 혁신대상 수상
국내	2013.02	WSD(World Steel Dynamics),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4년 연속 1위
	2012.05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대상
	2012.06	문화체육관광부, 휴가문화우수기업
	2012.07	포브스코리아, 대한민국 글로벌CEO 수상
	2012.07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경쟁력 우수기업
	2012.09	대 · 중소동반성장 페어, 중소기업청장상
	2012.10	성과공유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2011.11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 2011 대한민국친환경대상 환경경영부문 대상
	2012.12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정보보호대상

업무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은 기업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됩니다. 특히 극심한 철강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포스코에게 혁신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 모델인 파이 이노베이션(π innovation)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집니다.

포스코의 혁신은

CREATIVE POSCO FAMILY



포스코는 ERP* 시스템 구축과 포스코형 식스시그마 모델인 Quick Six Sigma(QSS, 식스시그마 기법)를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혁신 기법)를 비롯,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을 통해 포스코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비전 2020 달성을 위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여 새로운 혁신 모델인 파이 이노베이션을 선포했습니다.

파이 이노베이션(π innovation)이란 무한대를 상징하는 원주율 파이와 같이 무한대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분배의 원천인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개인의 성과도 커질 수 있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파이의 논리'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기존의 실행력 강화와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개되던 혁신 활동만으로는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스코의 파이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 확대, 신사업 개발, 포스코패밀리 시너지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 창출과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게이트 리뷰 (Gate Review)

프로젝트 주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

파이 이노베이션(π innovation)은 BI(Breakthrough Innovation), CI(Continuous Improvement), PO(Process Optimization)로 구성됩니다. BI(Breakthrough Innovation)는 글자 그대로 성장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활동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빅 씽킹(Big Thinking) 프로세스로 획기적인 수익 창출과 미래의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임원이 참여하여 신사업 개발, 혁신적인 원가 절감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결합(combine)하고, 적합하지 않은 과제는 삭제(delete)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덧붙이고(add), 설명이 부족한 과제는 현업에 검토(modify)하는 CDAM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CDAM을 거쳐 한 번 정리된 아이디어들로 BI과제 후보군을 형성하고, 후보군에서 BI과제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파이 이노베이션 (π Innovation)



2012년에는 290건의 아이디어를 CDAM 과정을 통해 과제 후보로 발굴하였으며, 총 26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BI과제는 CEO 주관의 게이트 리뷰(Gate Review)*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과제 실행력을 높이게 됩니다.

업무 혁신

+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은?

QSS (Quick Six Sigma)

식스시그마 기법을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혁신기법

트리즈 (TRIZ)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으로 근본 모순을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Mega-Y

전사 차원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임원의 옹호하에 복수의 부문 단위 간의 협력을 통하여 개선하는 테스크 포스형 혁신 활동

Big-Y

Mega-Y와 달리 부문 내의 각 부서 협력을 통하여 개선하는 혁신활동

CI(Continuous Improvement)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 성공 모델을 포스코패밀리로 확대하여 패밀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 활동입니다. 기존의 QSS, 트리즈(TRIZ), Mega-Y, Big-Y 등 포스코 혁신 활동을 표준화해 확산·체질화합니다. 2012년에는 대표적 활동인 QSS를 해외법인 18사(누적 34사)로 전파하였습니다. 사무혁신은 본원적 업무 강화를 위해 낭비개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SNS나 이메일을 통한 보고 확대 등 지시/보고 방식을 개선하여 인당 인쇄량이 59매에서 30매로 50% 감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책보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회의문화 개선활동으로 회의비용을 86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지수도 64점에서 82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던 비주얼 플래닝(Visual Planning)은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전사적으로 협업하여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Mega-Y 과제의 경우 부산물수익성향상, 안전재해 제로화 등 총 8건을 수행하여 1조 1,19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각 부문 내에서 진행되는 Big-Y 과제는 고질문제, 품질개선, 수익성 창출 과제 등 총 15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PO(Process Optimization)는 프로세스상의 윤리적 리스크와 비효율 등을 진단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진단 활동입니다. PO를 통한 진단은 Customer, Output, Process, Input, Supplier 순으로 개선기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담당자와 공급자의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저해하는 이슈를 찾아내는 등 체계화된 진단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2012년도 프로세스 진단 결과 포스코는 총 444억 원, 패밀리사는 총 459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내는 등 프로세스 간 낭비요소와 비효율을 제거하여 포스코패밀리의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 법인 간 수출 프로세스를 단축하였고, 포스코 건설은 엔지니어링과 견적 역량을 개선하고 해외프로젝트 클레임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패밀리 차원의 프로세스 최적화 방향을 제시하여 시너지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술 혁신

상세공정

제선

FINEX (파이넥스): 고로 공정을 간소화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석탄 사용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값싼 연료와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선 공정 기술

고로: 철광석과 원료탄을 고로 상부에 넣고 아래에서 1,200℃의 열풍을 불어넣어 철광석을 환원시킨 후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

제강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은 탄소, 인, 황 등의 불순물이 많으므로 산소를 불어넣어 탄소, 인, 황 등을 제거하는 정련 과정

연주

불순물이 제거된 쇳물을 주형에 넣은 후, 연속 주조하여 슬라브, 블룸, 빌릿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공정

압연

슬라브, 블룸, 빌릿 등을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늘리거나 얇게 만드는 과정으로 크게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



기술 혁신

철강 부문

World Top 기술경쟁력 확보

포스코는 글로벌 No.1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5대 기술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포스코 고유의 혁신 철강 제품과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으며 제조현장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World Top 기술력 지수”를 103% 달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을 통하여 CO₂ 발생 원단위, 에너지 소비 원단위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고유기술의 자력엔지니어링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표면처리 강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속 에어 나이프(Air Knife), CEM* 직결 연연속 압연기술* 등을 개발하였으며, 미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프로젝트도 20건 이상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개발 성과



제선

세계 최대 내용적 고로 설계 기술 개발(세계 최고 고로 설계 능력 보유)

- 당사 고유의 고로조업 및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고로설계 및 건설 (광양 1고로, 내용적 6,000m³)

저가 철광석, 석탄 사용을 통한 경제적 제선 조업 기술 개발(원료 다변화, 원가 경쟁력 향상)

- 안정 조업 유지하에 기존의 제철 연원료 대비 품질이 열위한 저가 연원료 40% 이상 사용

FINEX Coke-less 조업기술 개발(저품질 석탄 매장지역에 FINEX 건설 가능성 입증)

- 고강도 성형탄 제조기술 개발로 세계 최초 고가의 코크스 없이 조업 가능성 확보

대형 코크스 오븐 경제적 조업 기술개발(저품질 원료탄 다량 사용, 수익성 창출 기대화)

- 저품질 원료탄* 을 최대 50%를 사용하는 조업 기술력 확보

CEM (Compact Endless casting and rolling Mill)
기존에 분리되었던 생산 프로세스인 제강-연주-압연 공정이 하나로 통합된 공정. CEM 직결 연연속 압연기술은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부터 최종 코일을 생산하는 압연공정까지 슬라브를 절단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임.

연연속 기술
열연제품의 소재인 슬래브(slab)를 1차 압연해 두께 25~35mm의 바(bar) 상태로 만든 선형 바와 후행 바를 접합해 2차 압연하는 것

원료탄
Coke 제조용 석탄중에서 점결성이 매우 낮아 스스로 Coke가 되기 힘든 저가의 석탄



제강

저원가 고품질의 고효율 제강 조업기술 개발

- 저가 합금철 발굴 및 합금철 투입패턴 최적화를 통한 조강 원가 절감 기술 확보

에너지 강재 수요 대응 극후물 슬라브 제조기술력 향상 기술개발 ▶ 경쟁사와 품질 차별화

- 포스코형 주편 중압하 기술개발(PosHARP), 400mmt Slab 제조기술개발로 극후물재 품질 향상

CEM 고속주조 및 연연속 압연 기술 개발 ▶ 고생산성 박판 제조기술 확보

- 고속주조 안정화 기술 확보로 박슬라브 분야 글로벌 선도 수준의 생산성 확보
- CEM 직결 연연속 압연기술 개발로 박물재 품질 및 제품 경쟁력 향상



압연

고기능 열연재 제조기술력 향상 기술 개발 ▶ 경쟁사와의 품질 차별화

- 고유기술인 연연속 기술 적용, 통판성 및 폭 제어 정도 향상 등 기반기술 개선

빌렛소재 내외부 표면층 재탐상, 재연마 설비도입으로 자동차용 선재 공급확대 체계 구축

- 빌렛내부 결함탐상설비 도입
- 표면층 제거위한 2차 탐상, 2차연마 시스템을 통합 정정 아드(선재공장별 부속된 연마설비를 한곳에 모아 일괄 탐상, 연마하는 장소) 에 구축

고기능 냉연재의 차별화 제품 (World First 제품) 개발 ▶ 경쟁사와의 품질 차별화

- 고급 가전용 고선영 UV 코팅제품, 고내식 GI Hybrid 코팅제품 (SST 300시간 확보)

친환경 자동차 구동모터용 최고급 Hyper-NO 제조기술 개발 ▶ 고급 Hyper-NO 시장 선점 가능 기술 확보

- 신성장 친환경자동차 산업부문의 최고급 NO 시장 및 제조기술 리딩력 강화

스테인리스강 친환경/고품질 제조기술 개발로 스테인리스강 냉연 75만 톤 생산체제 구축

- NOx 발생을 현저하게 저감한 친환경 냉연 산세기술 개발
- 연연속 냉연 공정(TRM)을 활용한 고품격 430 제조기술개발
- 고유의 스테인리스 극청정강 정련기술개발로 냉연 품질 향상

기술 혁신

신성장 기술부문

● 신성장 기반기술 개발

2012년은 FFT(Family Flagship Technology), World First-World Best 신성장 기술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사업화로 연계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염수리튬 직접 추출 기술, 니켈 습식제련 기술 등 사업화를 위한 연속화, 대형화 공정기술 검증에 착수하였고, 마그네슘 제련 수직형 열환원 공정기술, 산업용 LED 조명시스템, SNG(Synthetic Natural Gas) 제조/공정 기술 등 7건의 신성장 파일럿 플랜트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후속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차세대 신성장 기술개발 가속화와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을 운영하여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방향성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술개발 성과



니켈 습식제련 기술 개발

스테인리스강, 2차 전지 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니켈은 지금까지는 고품위의 황화광으로부터 채취를 하였으나, 황화광의 고갈 및 신규광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니켈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저품질 산화광을 이용하여 고유기술인 수소환원 및 침출법을 개발, 파일럿 연구를 통하여 포스코 고유의 신 니켈제련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적용 시 저품질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90% 이상의 니켈 회수가 가능하여 국내 니켈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양/음극재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이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 기술개발 분야에서 LMO(리튬망간산화물) 양극재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습식이 아닌 건식 LMO 공정을 개발 완료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용량 성능을 가진 NMC* 양극재 역시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음극재는 기존 천연흑연계 음극재의 성능 개선을 통해 고객군을 넓혀가고 있으며, 인조흑연 및 Si-Graphite 복합 음극재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기술 선점을 위해 포스코패밀리 연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NMC 니켈 - 코발트 - 망간의 3성분계



광폭 마그네슘 스트립 캐스팅 기술 개발

포스코는 트윈 롤 스트립 캐스팅(Twin Roll Strip Casting)법을 이용하여 폭 1,800mm의 광폭 판재 주조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00mm 광폭 판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재 적용을 위한 활용기술 연구를 자동차 부품사와 공동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 판재 적용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그네슘 제련 수직형 열환원 공정기술 상용화

포스코는 청정에너지 사용 및 고온 축열식 연소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수직형 마그네슘 제련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준공한 강원도 옥계 POSCO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공정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설비 및 조업 안정화 단계로 향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마그네슘 수요(2만 톤/년)의 상당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SOFC(Solid Oxide Fuel Cell)는 고효율·친환경 발전 기술로서 수십kW급 규모의 건물용 열병합 시스템에서 수 MW급 규모의 발전용·선박용 시스템까지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SOFC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대면적 셀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스택 및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LED 조명시스템 개발

LED 조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용 환경에 특화된 LED 조명 기구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산업용 LED 조명 기구는 고온, 고습, 고분진 산업체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기존 조명 대비 수명이 길고 가벼우며, 스마트 팬을 이용한 독자적 방열 기술과 주기적 분진 자동 제거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검증 받았습니다. 2012년 상반기부터 산업용 조명을 제철소와 포스코패밀리에 적용 중이며, 2013년부터는 국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술 혁신



스마트 인더스트리 (Smart Industry)*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분야에서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라는 새로운 분야를 2010년 세계 최초로 개념 정립하고 이를 포스코 광양 산소공장에 실증함으로써 2011년 기준 수십억 수준의 전력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포스코패밀리 현업에 확대 적용 중이며, 대외사업과 연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저장장치(ESS)와 연계하여 산업용 및 건물용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합성천연가스(SNG : Synthetic Natural Gas) 제조 및 공정기술 개발

합성천연가스(SNG)는 저가의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 한 후 정제 과정과 메탄합성공정을 거쳐 천연 가스와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청정 원료로 포스코는 주요 공정 중 하나인 메탄합성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메탄합성반응기와 비교해 설비가 간단하고 열효율이 우수하며, 메탄합성의 핵심인 촉매기술의 효율이 높습니다. 광양에 건설 중인 합성천연가스플랜트가 완공되면 연간 1,5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화합물, 연료 등의 유용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경제성이 확보된 고유 하부구조물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해용 부유식 하부구조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해상풍력발전 선진기업들이 2020년 이후 대용량 풍력발전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전도 기술을 적용한 10MW급 이상의 대형 풍력용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유기술 및 선제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전도 발전기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인더스트리 (Smart Industry)

산업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롯해 가스·열 등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흐름과 사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함께 CO₂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스마트워크플레이스

포스코는 IT 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일하는 문화를 기존보다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12월 10일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개발, 구글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시스템으로 구현한 스마트워크플레이스(Smart Workplace, 이하 SWP)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SWP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소통, 협업 가능한 스마트한 업무수행을 비롯해 아이디어의 창출, 발전을 프로세스화 하도록 지원합니다.

설계 초기부터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글로벌 선진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반영한 이 혁신 플랫폼에는 소셜미디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IT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변화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코칭과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SWP는 크게 소통과 협업, 지식공유와 활용, 집단지성 기반의 창의활동을 추진합니다. 영상회의, 공동 문서작업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는 소통과 협업을 지원합니다. 실제 PC를 활용한 영상회의는 월 3,000회 이상 활용되어 지역간 원거리 출장이 14% 줄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약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지식을 자유롭게 찾아보며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계된 문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된 종합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공간도 제공합니다. 모든 직원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지식을 등록하고 구성원간 공동 작업으로 집단 지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유된 지식은 사내 SNS와 검색 툴을 이용해 손쉽게 전파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페형 블로그와 위키(Wiki)형 공동 작업 등에는 그룹사, 공급사, 협력사 등 연간 약 860개 회사가 참여해 정보를 나누며, 이는 업무 개선의 토대가 됩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은 월 14,000건에 달합니다.

포스코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담은 SWP시스템을 구축한 노하우를 협력사에 전파하며 시스템의 공유범위와 파급효과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집단지성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협력사의 대상을 넓히고, 학계 등 외부의 전문가의 참여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식공유와 활용의 수준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리튬 추출 기술

리튬은 휴대폰 등의 모바일기기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차세대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염수에 포함된 리튬이 전 세계 약 2,300억 톤으로 채굴가능한 육상 매장량 1,400만 톤의 약 1만 6,000배에 달합니다. 염수에는 리튬 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이 다양한 광물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소재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포스코는 미래의 주요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을 확보하고자 2012년 2월 무증발식 리튬 추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종전의 자연 증발 방식은 리튬 추출 공정기간이 1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또한, 염수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불순물형태로 남게 돼 리튬 추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의 리튬 추출 기술은 1개월 이내, 최소로는 8시간만에 리튬 추출이 가능하며, 고순도리튬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자연증발식과 달리 기후나 장소에 제약이 없으면서도 자연증발식과 유사하게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친환경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고순도 리튬 추출을 방해하는 불순물이었던 마그네슘과 칼슘, 칼륨 등을 분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염수 내에 다른 광물까지 자원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2012년 볼리비아 국영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리튬배터리 사업추진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리튬배터리 사업에 공동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칠레 현지에서 기술 검증을 위한 플랜트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상업화를 위한 대량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비가동을 진행 중입니다.

리튬 추출 기술 비교

	기존 방식	포스코 방식
리튬 추출 방식	자연증발식	흡착재 이용
리튬 추출 기간	12개월	1개월 이내
고순도 리튬 회수율	약 25%	80% 이상 칼륨, 칼슘,
리튬 이외 추출 광물	칼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

리튬 추출 기술 비교

단위: %

단위: 개월

단위: %



염수 내 광물 활용 표현

리튬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이동용 전자기기와 전기자동차의 이차전지 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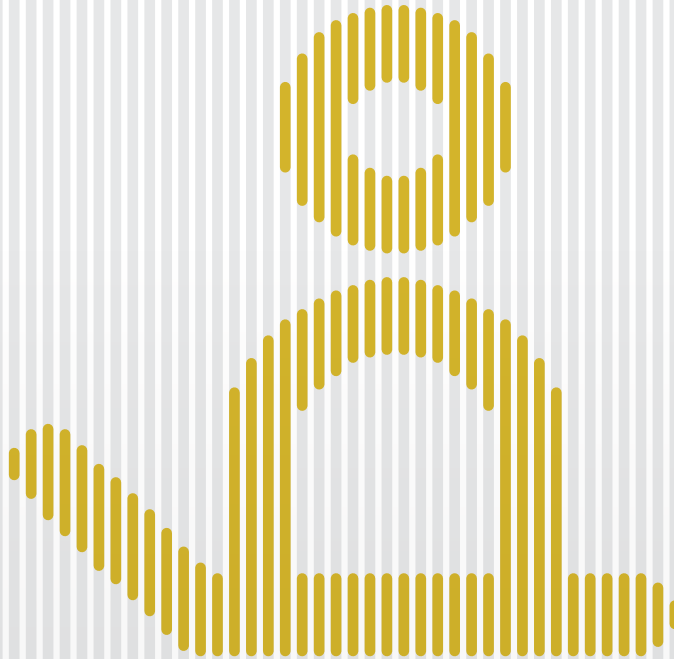
붕소 유리섬유, 의약품, 금속표현, 세정제 등

칼슘 종이, 페인트, 고무, PVC 등

칼륨 대부분 비료용

마그네슘 동물 사료, 고무와 플라스틱 강화제, 시멘트 바닥재 등

03 고객 CUSTOMER



CONTENTS
친환경기술 · 고객가치창출 · 품질경영
CASE: 친환경 자동차

+
12
PAGES

탄소강사업부문장 부사장 장인환

포스코는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왔으며, 그 기간에는 납기, 품질, 가공공정 등 고객사의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EVI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러한 활동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체감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제품 판매 외에도 필요하다면 고객의 경영전반까지도 상의하고 협력하며, 마케팅부서뿐 만 아니라 회사의 전 부문, 더 나아가 패밀리사 역량의 최적 조합을 통한 고객가치혁신(Customer Value Innovation)을 실행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

포스코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1차 고객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품이 인체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없애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기능성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연 제품

주요 용도 파이프, 형강, 자동차 프레임 · 휠, 컨테이너 등

열연 제품은 뜨거운 상태의 소재를 압연하여 만든 제품으로 열간압연기(Hot Strip Mill)에 의해 생산된 열연코일과 이를 절판한 열연강판으로 나뉘집니다. 열연공장에서 생산되는 열연코일의 일부는 원제품으로 판매되거나 냉연 · 전기강판의 중간소재로 사용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가공됩니다.



냉연 제품

주요 용도 자동차강판, 고급 가전 제품, 금속기구 등

냉연 제품은 열연재를 소재로 하여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압연을 하여 만드는 제품입니다. 표면이 미려하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세탁기 · 냉장고 등의 가정용품에서부터 자동차 · 산업기기 · 각종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포스코는 다양화, 고기능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재 제품

주요 용도 교량용 와이어, 타이어 코드, 스프링, 건축구조물 등

선재 제품은 '선의재료'로 코일이나 판재와 같은 형태가 아닌 철사와 같이 가늘고 긴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이며, 보통강과 특수강으로 구분됩니다. 보통강은 나사 · 못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통 선재와 자동차 · 교량 · 기계류, 해저케이블 등에 쓰이는 특수 선재로 나뉩니다. 또한 특수강은 자동차용 볼트 · 너트 · 건축용 고장력 볼트 · 베어링 · 스프링 · 피아노선 · 타이어 코드 등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포스코는 고강도화, 경량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강판

주요 용도 변압기, 모터, 발전기 등

뛰어난 전자기적 특성을 지닌 전기강판은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정 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규소 함량을 높여 제조하기 때문에 규소강판(Silicon Steel)이라고도 불리며, 자기 특성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나뉩니다. 주로 변압기 · 모터 등의 철심 재료로 활용됩니다.



티타늄 제품

주요 용도 원자력 · 화력발전소, 석유 · 화학 플랜트, 우주항공, 스포츠, 의료용 제품 등

티타늄 제품은 무게, 강도, 내식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독성의 환경친화적 금속입니다. 티타늄 소재는 제품의 경량화를 통해 엔진 등의 연료소비 절감, 효율적인 열전달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고 황화수소 원유 등과 같은 어그레시브(Aggressive) 소재에 대한 저항력, 부식 · 누수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의 방지 등 환경비용 절감 등의 장점으로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주요 용도 주방용품, 의료기기, 건축 내외장, 자동차 부품 등

스테인리스 스틸은 광택이 좋으며 부식이 적은 특수강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철강재입니다. 제품은 주로 주방용품 · 자동차부품 · 화학설비 등에 쓰이며 특히 최근 인천국제공항,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의 건설에 이용되면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제품

마그네슘은 비강도가 가장 우수한 금속재료로서 주로 자동차부품 · 휴대폰 · 알루미늄합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루미늄합금과 경쟁하면서 3C(Computer, Communication, Camera)와 자동차 다이캐스팅 부품용 소재로 사용되는 등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친환경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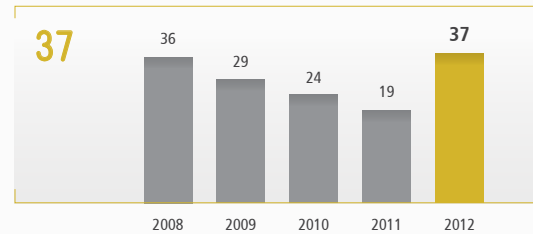
친환경 신제품

2012년 환경친화형 제품 개발이 전체 제품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개발된 환경친화제품의 2012년 판매량은 252천 톤이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개발현황

환경친화제품 강증수

단위: 개



환경친화제품 유형

구분	주요기능	2008~2012년 개발건수
환경보전	· 환경유해물질 미함유, 인체 유해요소 차단 · 소음, 진동 감소, 배기가스 정화 성능 향상	21
에너지절감	· 자동차 경량화, 공정/열처리 생략제품 · 에너지 효율 향상, 가공성 향상	90
재활용향상	· 내부식성 향상 및 장수명화, 내구성 향상	34

	고기능 열연재 중장비용 열연 고장력 구조용강 ATOS100
	고기능 냉연재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 · 고윤활 GI Cr-Free강판 · 가공용 법랑강판
	후판 제품 대형 컨테이너선용 고강도대입열강 (조선사의 용접작업시 효율 증대) 극한지용 고기능 해양구조용강 · 고강도 내부식용 석유 및 가스 수송용 후판
	전기강판 제품 초고효율 에어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 Cr-Free 고절연코팅 무방향성 전기강판
	선재 제품 해양구조물 Wire용 2200Mpa급 선재 · 풍력발전기용 볼베어링강

친환경기술



YS 900MPa이상급 열연 고장력 구조용강 (ATOS100)

지구 온난화, 화석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로 연비향상을 위한 자동차 경량화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체경량화를 위해 기존 제품대비 강도를 증대시킨 고장력 구조용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개발한 고장력 구조용 ATOS100은 YS 900Mpa 이상급으로 차량 경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량화 추세에 발맞추어 YS 1100MPa이상의 제품도 개발 진행 중입니다.



저온보증 YS355 MPa급 Critical용 해양구조용강

최근 고유가 추세로 극한 심해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구조물 설치 지역이 점차 극지방이나 깊은 바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지역에서의 개발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원 고갈로 인한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양의 에너지원이 해저에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해양구조물의 시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해양구조용 EN-S355G10M은 기존 -10℃보증대비 온도를 하향시켜 -20℃를 보증하고 두께 또한 75t에서 100t으로 확대하여 가혹한 해양 저온환경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구조물 사용가능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양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원유유출 등의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 해양구조용강은 저온보증용뿐 아니라 구조물의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YS 500Mpa 이상의 고강도 해양구조용강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 사이드

차체의 측면 하부

크로스 멤버

엔진룸 하단 하체에 차체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지지대

마르텐사이트

강철 조직의 하나로 매우 단단하나 연성이 약함.



초고효율 에어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35PNH1400L 제품

포스코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따른 가전업계의 고효율화 전략에 맞춰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의 효율 향상을 위해 콤프레셔 모터 소재의 특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재 대비 우수한 자성을 가진 35PNH1400L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00Hz 고주파에서의 철손이 13.8W/kg, 자속밀도가 1.7T 수준으로 기존의 35PN 230 대비 철손은 3.5%, 자속밀도는 2.3% 개선되었으며 가전용 콤프레셔의 효율을 향상시켜 친환경 백색가전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포스코는 35PNH1400L 뿐만 아니라 HEV/EV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구동용 모터코어 소재에 대한 요구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의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강재용 PosMart GI 1470 강판

포스코는 자동차강판 차체 경량화에 대응한 초고강도 강판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경량화 경향, 안전법규 강화 추세에 맞추어 고강도강이 적용된 자동차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의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에서 도입한 25% 오프셋 충돌 평가법은 보다 안전한 자동차의 제조에 대한 자동차사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돌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 사이드* 및 크로스 멤버*, 범퍼 등의 부품에는 TS 1,400Mpa 이상의 고강도강이 요구됩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PosMart GI 1470 강판은 TS 1,470MPa 이상을 보증하는 초고강도 Martensite* 강판으로 저탄소 설계를 통하여 용접성이 뛰어나며, 타사 마르텐사이트강 대비 형상품질이 뛰어나 고객사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또한 타사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GI재를 경쟁기업 대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내식성이 필요한 차체 하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PosMart GI1470강판 개발을 통해 강도와 내식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가치창출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한 CEO 철학

모든 경영 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과거 안정적인 철강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철강경쟁 심화와 원료비 급등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한계로 기업 환경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발생할 가격 경쟁을 뛰어 넘어 가치 경쟁으로 마케팅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전략 하에서의 고객 가치 창출을 성장 전략의 가장 큰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가치 창출전략은 고객에게 맞춤형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매출 증대가 가능하며, 고객과 기업의 상호 동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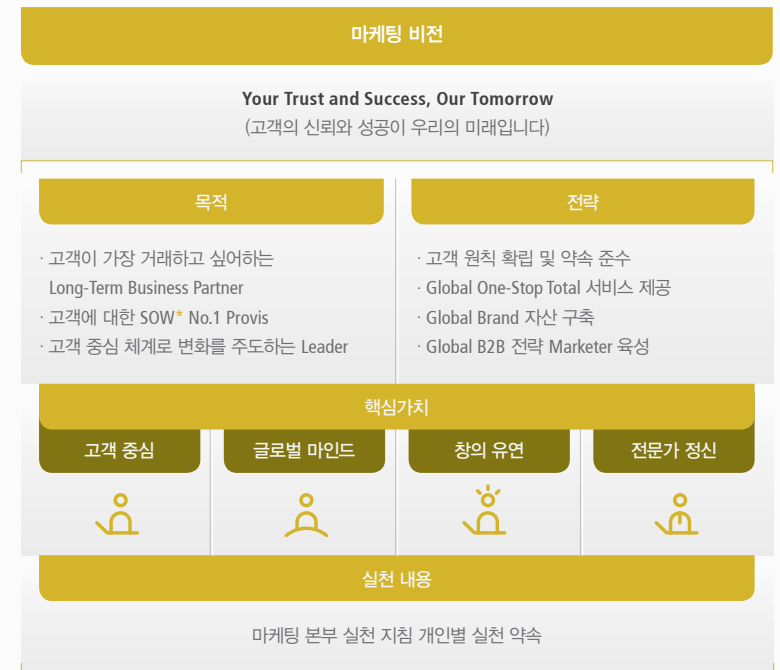
고객 성공, 고객과의 상생 및 고객의 신뢰 확보 등 지속적인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CEO의 경영철학입니다. 3대 경영방침의 하나인 '창조경영'의 핵심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고객가치 창출을 통하여 고객이 성공하고 이것을 통해 포스코와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혼을 담아 고객을 섬김으로써, 고객에게 행복을 주며 고객의 성공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마케팅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의 변화

포스코 마케팅 3.0의 구현을 위해,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의 변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고객과 해외 지역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고객의 니즈를 원 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시해 온 핵심고객 전담조직인 KAM(Key Account Management)을 글로벌 자동차사, 조선사, 가전사까지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들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일 고객사의 내수와 수출을 한 개의 KAM팀에서 전담하여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철강 고객사의 환경 변화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OW (Share of Wallet, 지갑 점유율)
한 고객의 총 지출 중 특정 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
즉, 고객사의 당사 구매 비중을 의미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Your Trust and Success, Our Tomorrow)라는 마케팅 비전 달성을 위해 더 빨리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하기 위해 항상 시장 앞에서, 또한 고객 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드 영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더불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감성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창출

고객 성공 마케팅 추진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의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고객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의 숨겨진 니즈까지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산업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사의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화에 따른 고객의 구매 결정요인도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 중심의 가치를 제공하던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잠재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고객 성공 마케팅활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성공이란 고객과 포스코가 협업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객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고객 만족을 뛰어 넘는 개념입니다. 마케팅 부문은 고객 성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객사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원하는 고객 성공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고객의 1차적인 니즈인 Quality, Cost, Delivery* 중심의 가치를 발굴하는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여 고객사 구매 부문, 마케팅, 생산, R&D 등 전부문은 물론, 더 나아가 고객의 고객까지도 가치 창출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적극적인 고객사 락인을 위한 고객사 지분투자과 해외 가공기지 및 물류기지 투자 등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최대한 창출하여 고객 성공을 지원하는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VI활동

EVI의 개념은 당초 자동차 메이커가 신차 개발시 핵심 부품공급사를 개발 초기단계에 참여시켜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활동(Early Vendor Involvement)에서 출발했으나, 포스코는 이러한 소극적인 측면의 가치창출에서 벗어나 전 산업에 걸쳐 고객사뿐 아니라 고객의 고객에까지 비즈니스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 및 기술개발을 선 제안,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스코형 EVI(Expanded Value Initiative for Customers)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VI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가전, 건설, 후판, 선재, API 강재* 등 전체 산업과 제품군을 아우르는 EVI 조직을 발족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점차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철강수요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인 자동차 부문에서는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재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요구보다 먼저 새로운 소재를 제안하는 EVI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 자동차용 고강도강을 적용함으로써 경량화와 원가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부문에서는 기존의 벌크선 중심에서 에너지, 플랜트부문으로 이행 중인 조선사의 사업 영역 변화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랜트용 강재의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단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토털 소싱(Total Sourcing)의 개념을 도입하고,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스코패밀리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잠재 성장성이 큰 에너지 산업 고객사들의 요구에 부응해 왔습니다.

한편, 가전산업에서는 국내 가전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가전사의 빠른 원가절감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가절감형 제품인 박판 흑색수지를 제안하고 양산 적용함으로써 연간 3만 톤 이상의 강재를 공급, 고객사에게 약 3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호필름 생략형 흑색수지강판 적용으로 연간 3만 3천 톤의 강재를 공급하여 고객사가 48.6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에서는 건축공사에서 활용되는 대형 H형강(폭 1,200~1,800mm, 두께 18~25t) 제작시, 플렌지 부분에 사용되던 후판을 열연 플레이트로 대체하는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작 손실을 줄여, 기존 대비 약 5% 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납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신규 사업(철구조제작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지속적인 토털 솔루션 제공을 통한 고객사 가치 향상을 바탕으로, 고객과 포스코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토대를 착실히 다져갈 계획입니다.

Quality, Cost, Delivery

품질, 코스트, 납기를 의미하며 Q.C.D라고도 함

API 강재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약자로 원유, 가스 등을 운반하는 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재를 API 강재라고 함

고객가치창출

고객만족도 극대화

포스코는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의 반응과 불만사항, 개선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진행과 VOC* 청취를 위해 외부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 지향적 포스코로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툴(Tool)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며 영업담당자서비스, 납기, 제품 품질 등 6개(해외 고객사는 5개) 항목에 대해 7점 척도 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12년에는 조사대행사를 통해 국내 220개, 해외 301개 고객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 88점, 해외 81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국내가 3점 하락, 해외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2012년 극심한 경기불황과 치열하게 경쟁중인 철강 시장 환경 하에서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가 반영된 결과라 해석됩니다. 포스코는 2012년 조사에서 나온 고객 불만족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포스코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법인, 가공센터, 상사 등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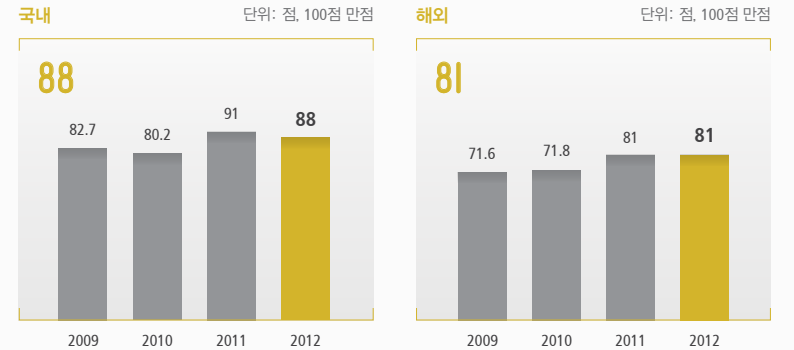
또한 포스코는 시장경쟁 심화 속에서 고객 성공 실현을 위해 '마케팅 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대고객 서비스 매너 교육, 고객사 초청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고객 중심 마인드 함양하여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는 내부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친 포스코화를 위해 고객사 대상 제철소 초청 마케팅 집합 교육과 연중 상시 e-러닝 마케팅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 구매 담당자의 철강 제품 지식과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제철소 생산현장 학습을 통해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육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 실현하고 있습니다.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목소리/의견

포스코는 2003년부터 고객정보를 통합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은 고객사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되도록 고객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영업 생산성, 마케팅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고객가치창출

고객 성공 사례

● 대원강업 - 자동차 서스펜션용 고응력 코일스프링강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친환경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자동차 연비 향상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포스코는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를 통해 포스코의 고객과 최종 소비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제품 품질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각종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그 중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좋게 하고, 차체와 기관 등을 보호하는 서스펜션도 철강재로 만든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포스코는 스프링강을 경량화하여 친환경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포스코 1차 고객사인 스프링 가공업체 대원강업에 스프링강의 경량화를 의뢰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단계별로 어려움이 예상돼 곤란해 했지만 포스코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해 12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개발하게 된 고응력 코일스프링강은 일반 스프링강과 같은 사양에 일반 스프링강보다 두 배는 작은 서스펜션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차사의 품질평가 결과, 피로수명 및 내부 식성이 기존 재보다 10% 상승하는 등 목표 이상의 품질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대원강업은 소재 사용량이 감소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작업시간도 줄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는 경량화를 통해 연비를 높이고, 자원가의 스프링을 구매해 해외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국내 자동차사와 함께 고품질 · 고부가가치의 고응력 코일스프링 시장에 진입하고,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인 대원강업과의 공동연구로 고응력 코일스프링을 개발했습니다. 대원강업 직원이 코일스프링의 내부식성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

● ENK - CNG 버스 연료탱크용 고강도 후판

시내버스 중에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를 연료로 사용하는 CNG 버스가 있습니다. CNG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를 기화시켜 압축한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청정연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G 버스는 가스 CNG 탱크를 싣고 달리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 등 대중 교통의 안전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기존 국내에 유통되던 CNG 탱크는 일본 제철소 등에서 수입한 70kg급 열연 파이프를, 양쪽 개구부에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은 소재가격이 비싸고 가공공정이 복잡하며 결함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부가 양쪽에 존재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압축가스용기 전문제조업체인 ENK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탱크 가공공정이 단순한 DD(Deep Drawing & Ironing) 공법을 개발했으며, 열연이 아닌 후판을 사용해 강도를 높였습니다. 포스코가 ENK에 공급한 최초의 DDI용도 후판은 70kg급이었습니다. 포스코는 더 나아가 CNG 탱크의 저장능력 확대할 수 있도록 초고강도 110kg급 강재의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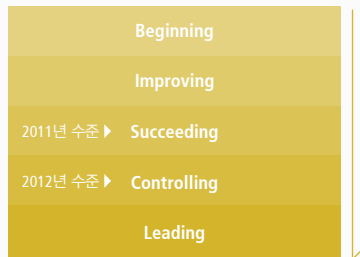
이를 통해 110kg급 CNG 탱크를 장착한 버스는 서울시내 모든 노선뿐 아니라 경기지역 광역버스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수입 제품에 비해 CNG 탱크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더욱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후판과 ENK의 DDI 설비로 만들어진 CNG 탱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획득했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ISO 인증을 획득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ENK의 공동 노력으로 시내버스에 장착된 압축천연가스(CNG) 저장용기는 기존 수입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품질경영 성숙도



포스코는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The POSCO Quality' 달성을 목표로 본사, 제철소, 해외 생산 법인은 물론 패밀리사와 공급사까지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포스코패밀리 품질경영을 추진합니다. 포스코 품질경영그룹을 중심으로 전 패밀리사 업종별로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여 글로벌 품질경영체계를 완성하고, 제조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켜 차별화 된 고객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포스코패밀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품질현장 선포

2010년 포스코는 고객가치 창조를 통한 글로벌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포스코패밀리 품질현장을 선포했습니다. 품질은 고객과의 신성한 약속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품질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포스코패밀리만의 차별화된 품질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품질 현장은 품질 비전과 3대 핵심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 비전인 'The POSCO Quality'는 포스코는 곧 품질의 상징이며,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달성을 의미합니다. 3대 핵심가치는 Customer Inside, Basic Inside, Synergy Inside 이며, 각각의 핵심가치에 따라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포스코패밀리 품질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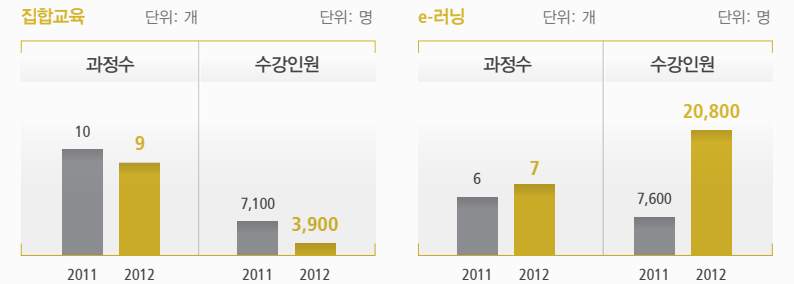
THE POSCO QUALITY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Customer Inside	고객의 잠재 니즈까지 반영하여 고객가치를 창조한다
Basic Inside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여 편차와 낭비를 제거한다
Synergy Inside	신뢰와 소통으로 Supply Chain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계층별 맞춤형 품질교육

회사는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의 품질마인드 향상과 품질경영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품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임원 및 그룹리더 품질전략 특강을 비롯해 신입사원 품질마인드 교육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집합 과정과 7개의 e-러닝 과정을 통해 2만 4,700여 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품질경영 전반에 대한 심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품질경영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총 64명의 품질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품질경영 진단 및 지도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진단

포스코는 프로세스 성과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포스코패밀리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진단은 품질현장의 핵심가치 및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50여개의 진단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품질경영 성숙도를 Beginning ▶ Improving ▶ Succeeding ▶ Controlling ▶ Leading 5단계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Controlling 단계의 수준으로 패밀리사의 품질경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패밀리는 2011년 Succeeding 단계에서 2012년 Controlling 단계로 품질경영 성숙도가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년 업계 최초의 서비스 품질 진단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E&C 업종의 패밀리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단모형을 개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포스코패밀리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품질경영

2012년 진단 실시 개요

진단대상 포스코패밀리사 중 25개사 (제조 13, E&C 4, 서비스 8)

진단일정 2012.10.8~10.19

진단위원 품질경영그룹+KMAC

진단내용 품질현장 핵심가치인 CI, BI, SI 구현 및 이행 정도 (세부진단항목수 45~50개)



품질경영대상 시상 (PQA, POSCO Quality Awards)

회사는 매년 품질경영진단을 통해 포스코패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품질경영대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낸 포스코패밀리사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상의 종류에는 대상, 혁신상, 도약상, 시너지상 등이 있으며, 포스코패밀리의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각 군별 최우수사에게 상이 수여 됩니다. 품질경영대상은 포스코패밀리 품질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패밀리 품질경영의 지속적 개선과 패밀리사 간의 시너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	2011	2012
대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E&C
혁신상	포스코TMC	포스코캠텍
도약상	포스코A&C	엔투비
시너지상	스틸베르크&삼일(주)	범우
시너지상	포롤텍	광희

포스코서플라이어품질인증제도 (POSQC, POSCO Supplier Quality Certification)

포스코는 품질 핵심 자재 공급사 및 외주 파트너사의 품질 보증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개선과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활동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2012년 포스코형 공급사 품질인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품질인증제도는 선정, 운영, 심사, 인증, 모니터링의 총 5단계의 PDCA사이클로 운영되며, 품질 핵심 자재에 대한 공급 능력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 최종 포스코의 공급사 및 외주파트너사 선정 및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공급사 및 외주파트너사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며, 2012년 시범운영 된 6개사를 시작으로 향후 전체 포스코 품질 핵심자재 공급사 및 외주 파트너를 대상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소재 개발

포스코는 혁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고객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발맞춰 친환경성에 걸맞은 자동차 소재를 공급하여 친환경자동차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철강, 마그네슘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소재가 보다 가벼워지면 자동차의 연비는 향상되고 효율을 높여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가 됩니다. 포스코는 더 얇고 적은 소재로 기존과 동일한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튼튼하고,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철강재와 기타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친환경 첨단고강도강(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강재를 공급하는 등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철강재 연구 개발 및 생산에 힘써왔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PosMart G1470 강판은 인장강도 1,470MPa 이상을 보증하는 초고강도 강판입니다. PosMart G1470은 저탄소 설계를 통하여 용접성이 뛰어나며, 타사의 동일 강판 대비 형상 품질이 뛰어나 고객사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는 자동차 경량화 및 내식성을 요구하는 부품에 당사 PosMart G1470 강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의 고연신형 1180 강판은 늘어나는 성질인 연신성이 우수한 강판입니다. 기존 소재 대비 한층 월등한 가공성으로 자동차 B-Pillar 등 성형이 어려운 부품에 적용이 용이한 소재입니다. 고연신형 1180 강판은 기존에 B-Pillar에 사용되던 포스코의 TRIP강 대비 합금원소 사용을 줄여 저감하여 용접성을 향상시키면서 고강도, 고연신을 확보하여 차체경량화를 통한 연비향상 및 친환경에 기여합니다.

또한 포스코의 신소재인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자동차를 경량화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한 마그네슘으로 자동차 시트프레임용 판재를 개발하여, 동일한 강도로 중량을 줄임으로써 연비 및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개발 트렌드에 발맞춰 포스코는 전기승용차용 경량 차체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세계 17개 철강사는 지난 3년간에 걸친 미래철강차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철강협회 자동차 분과(WorldAutoSteel)에 의해 시작된 본 프로젝트에 포스코도 참여하여 소형 전기승용차용 경량 차체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B-Pillar

자동차 측면의 수직 지지대를 Pillar이라 하며, 자동차 앞문의 앞 쪽에 있는 지지대를 A, 그 다음을 B, C 순으로 칭함.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중형 전기승용차용 경량 차체(POSCO Body Concept-Electric Vehicle, 이하 PBC-E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링 패키지 검토, 설계, 해석, 부품 제작 조립 등의 단계를 거쳐 2011년 2월 프로토타입(시험 조립 차체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PBC-EV에는 일반 차체보다 초고강도강(UHSS, Ultra High Strength Steel) 사용량을 40% 이상 늘리고, 열처리 강도를 높이는 열간프레스성형(Hot Press Forming)과 가변롤로 초고강도강을 쉽게 가공하는 가변롤성형(MDRF, Multi directional roll forming) 등의 최첨단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26% 경량화시키는 한편, 전 수명주기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측면에서 기존 차량대비 약 50%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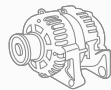
프로젝트	차체중량	온실가스 배출	개발 목표
WorldAutoSteel FSV (포스코 등 17개사 참여)	소형승용차 35% 감소	70% 감축	2020년 양산 목표
POSCO Body Concept Electric Vehicle	중형승용차 26% 감소	50% 감축	2015년 양산 목표

친환경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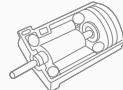
차체 개발과 더불어 전기자동차에 쓰일 모터용 전기강판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줄인 친환경 자동차용 전기강판 개발을 위하여 포스코 기술연구원에 EM-ES(Eco Motor-Electrical Steel) 연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고, 10여 개의 국내외 자동차사와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터들



Alternator 50PN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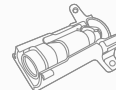
Electric Compressor Motor 50PN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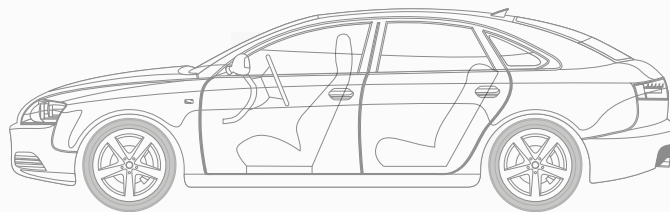
Traction Motor 35PN230



ISG 35PN230



EPS Motor 50PN470



- 2,300MP α 급고응력 엔진 밸브 스프링용 선재 · 자동차 보강재용 PosMart CR/ GI 1470 강판
- 자동차 보강재용 고연신 CR 1180 강판 · 자동차 구조용 GI 550 Hot Press Forming 강판
- GYS 1180CP강 · 자동차 시트프레임용 마그네슘 판재 개발 · 4,000MP α 급 극초강도 타이어 코드용 선재

04 환경 ENVIRONMENT



CONTENTS

환경경영 · 기후변화 · 친환경 공정
환경 파트너십 · CASE: 생물다양성



15
PAGES

기술부문장 사장 권오준

포스코는 에너지사용량 감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고객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혁신적인 품질을 가진 World First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포스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 재순환 모식도

INPUT



단위: 만 톤

원료	철광석	원료탄	석회석
4,900	2,500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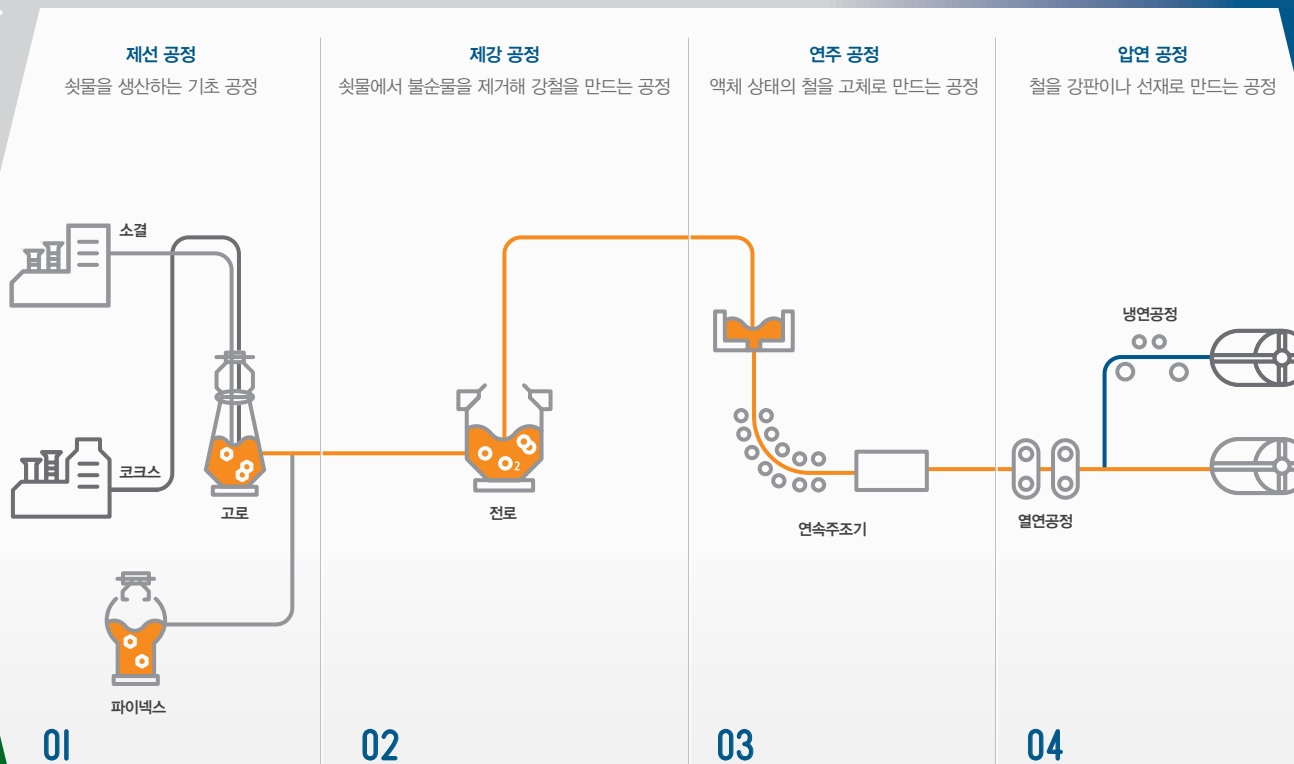
에너지	전력	중유	LNG
927 _{MW}	2,390 _{kl}	828 _{MNm³}	

사내재이용



사내재이용	용수	부산물	부생가스
98%	16%	92%	

REUSE



OUTPUT

조강 생산량	제품 판매량
3,799 만 톤	3,505 만 톤

방류량	용수
1.69 m ³ /t-s	2%

매립량	부산물
7 만 톤	2%

사외재활용



사외재활용	부산물	부생가스
82%	8%	

RECYCLE

부산물자원화량
2,358 만 톤

CO₂ 배출량 77백만 톤 | 구입원료 이송에 따른 CO₂ 발생량 1,021천 톤 | 임직원 출퇴근 및 출장 이동에 따른 CO₂ 배출량 7.1천 톤
고효율 철강재 보급 및 자원활용에 따른 CO₂ 감축효과 | 고장력자동차강판 659천 톤 | 저철손전기강판 2,510천 톤 | 수재슬래그 6,290천 톤

환경경영

포스코는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철학으로 삼아,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 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환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포스코 고유의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철강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성장도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밀리 환경경영

포스코는 환경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1995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며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2010년에 환경방침을 제정하여 패밀리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2011년 '사랑받는 기업 헌장'을 통해 전 그룹 차원의 환경경영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신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패밀리사와 공유하였으며, 향후 신사업 초기검토 및 패밀리사 사업확장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환경방침

포스코는 환경을 경영전략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2010년 12월, 출자사, 공급사, 외주 파트너사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 경영 방침'을 선언하고, 포스코 및 패밀리사의 환경경영체제를 실천하기 위한 비전, 전략,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방침 전문(2010.12 개정)

포스코패밀리는 환경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 및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ISO 14001을 기반으로 패밀리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청정 생산 공정 도입과 최적 방지 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생태 효율성을 향상한다.
- 청정 에너지 사용과 녹색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한다.
- 환경 경영의 성과를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Green PCP (Green POSCO Certified Partner)

포스코가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대상에 환경 경영 체제 인증서를 발간하는 포스코형 자율 환경 인증 프로그램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비전/전략

비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

전략

통합 환경 경영 체제 구축 ·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 열린 커뮤니케이션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ISO 14001 인증율(출자사)	Green-PCP 인증율(외주/공급사)	ISO 14001 심사원보 양성	환경 경영 e-러닝 이수자 수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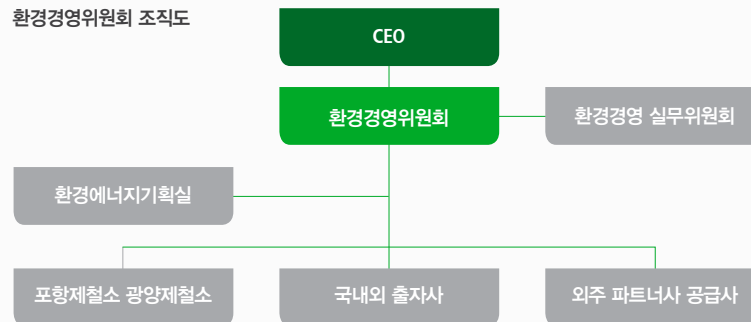
구분	2012년 목표	2012년 실적
ISO 14001인증 (출자사)	28개사	28개사(100%)
Green-PCP* 인증	95개사	95개사(100%)
ISO 14001심사원보 양성	20명	22명
환경경영 e-러닝 이수	2,000명	9,697명

환경경영

○ 환경조직

포스코는 환경방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임원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환경경영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국내외 환경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여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환경·에너지 중기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환경·에너지 중기경영 전략안은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서 전사 중장기 경영 전략안과 함께 심의·의결되며, 매월 최고경영자 주재로 열리는 전사 사 운영회의, 임원회의에 보고됩니다. 또한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정책 및 경영 동향을 분석하고 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 조직도



환경경영위원회 조직

구분	환경경영위원회	환경경영실무위원회
개최 시기	1회 (11월)	2회
구성	위원장: CEO / 위원: 패밀리사 CEO	위원장: 환경에너지기획실장 위원: 패밀리사 환경경영 담당임원
주요 내용	·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승인 · 주요 환경이슈 논의 및 대응방안 수립 · 환경경영성과 보고 및 녹색경영대상 수여	· 환경경영 추진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 환경 리스크 도출 및 관리 · 우수 환경경영 및 관리 시스템 확산

○ 주요 패밀리 환경경영 프로그램

환경 교육

포스코는 포스코 및 패밀리사 임직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환경경영 교육은 외주사, 공급사 임직원에게도 공개되어 기업활동에 관련된 전 임직원이 환경개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사의 환경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심사원 및 국제심사원 교육과 임원급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경영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환경경영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패밀리사 환경실무자들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사 환경 심사

패밀리사의 환경경영체계 확립과 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SO 14001인증을 취득한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환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사 환경담당자에게 ISO 14001 국제심사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환경 리스크 심사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교육이수자는 패밀리사간 상호 환경심사 활동에 참여하여 포스코 환경경영체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환경리스크(폐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테마 심사를 실시하여, 패밀리 차원으로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대상 운영

포스코는 환경경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수한 환경성과를 거둔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환경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체계 및 운영성과와 환경·에너지분야 개선활동의 혁신성, 활용성 및 노력도를 평가하여, 우수 패밀리사는 환경경영위원회에서 CEO가 포상합니다. 평가단은 CT0를 평가위원장으로 하여, 환경에너지기획실, 철강기술전략실,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경영

환경 성과 관리

포스코는 환경경영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환경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과 환경이 상호간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며, 그 결과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환경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환경 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의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환경 규제 및 환경 이슈를 기회 요인으로 규명하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장기 사업 전략 및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정책적 및 경제적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잠재적 사업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와 주변의 대기 및 수질, 생활환경을 비롯한 생태계 환경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 패트rollers를 시행하며 양 제철소 주변의 공기오염정도를 수시로 검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제철소 설비 신증설 시뿐만 아니라 해외공장 건설 시에도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포스코는 2001년부터 ERP를 활용한 환경시스템(POEMS: POSCO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며 전사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공장에 설치된 굴뚝측정기를 통해 집계된 환경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도청과 환경부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환경데이터는 전사 환경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누구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지표는 사외 환경 전광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이래, 매년 사외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환경부서를 주관으로 매년 2회 이상 내부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전략 및 목표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존 환경시스템을 개선한 웹 기반의 글로벌 환경시스템인 '新 POEMS'를 설계 중에 있으며, 2014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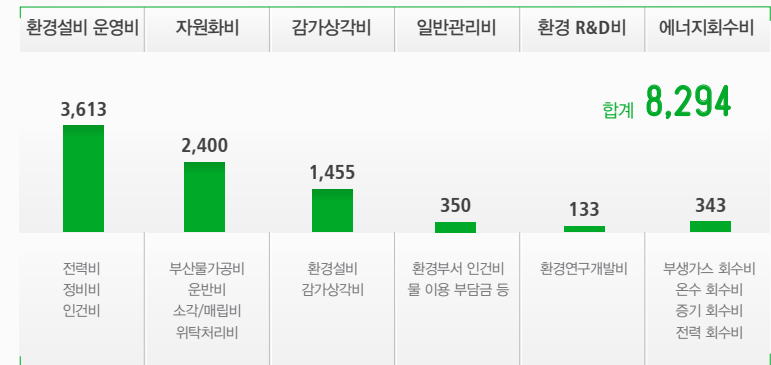
● 환경 회계

포스코는 ABM(Activity Based Management, 활동원가관리)에 기반한 환경활동 비용집계시스템을 통해 환경성과를 회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수나 부산물 자원화 등에서의 환경효익을 비용과 동시에 분석하여 조업부서의 합리적 업무수행과 설비투자 등에 반영하며, 주주, 투자자,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新 POEMS에서는 시각적인 환경회계 분석자료를 경영층에 제공함으로써, 환경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수단 및 환경비용 절감 톨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에 투자하여, 환경설비 투자금액은 전년도 대비 1,512억 원이 증가한 6,340억 원이며, 총 설비투자액의 32.6%에 해당됩니다.

2012년 환경비용

단위: 억 원



2012년 주요 환경설비 투자내역

단위: 억 원



* 2012년 주요 투자 내역

포항: 밀폐식 원료저장소 및 B/C 설치, 연속연료하역시설(CSU) 설치, 스테인리스 2,3제강 집진능력증대 등
광양: 밀폐식 원료저장소 및 B/C 설치, 소내 배수체계개선, 1,2소결공장 집진기챔버 추가설치 등

환경경영

환경 성과

포스코는 자연자원의 사용과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공정 개선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철강공정의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부산물의 친환경적 활용 가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종다양성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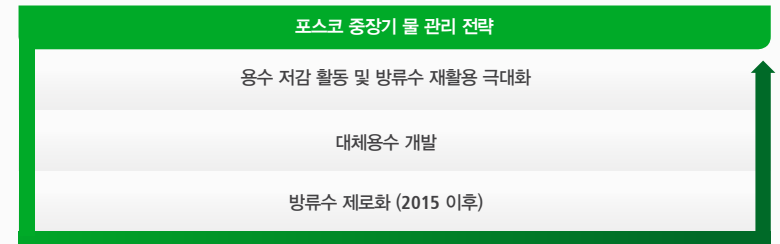
● 물 관리

포스코는 물 자원이 전세계적인 리스크임을 인식하여, 물 사용 현황과 위험요소, 기회요인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 물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방류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용수저감 활동을 통해 물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대체 용수를 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며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계철강협회에서 주관하는 'Water Management Project'(2007-2011)와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Water Disclosure'(2010~)에 참여하고,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공급망에 대한 물관리 가이드라인, 'WBCSD Water Tool' 등의 활용을 통해, 물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공장별로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분석하여 전문진단을 거쳐 보완점을 발굴하여 최적의 용수 효율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용수 누수율 관리 선진화를 통해 6천 톤/일의 용수사용량이 감소하였으며, 냉각수 관리강화를 통한 농축도 향상으로 10천 톤/일의 용수사용량을 감소시키며, 냉각수 농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저감 활동을 통해 2015년까지 용수 구입량 조강톤당 3톤을 목표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공장별로 용수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 실행하는 것은 물론 공장 내 용수 순환계 폐수 배출 프로세스를 개선, 빗물 회수 설비 설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성과는 주간단위 용수속보를 통해 공개되어, 임직원의 용수 절감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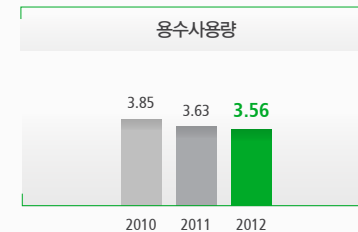
포항제철소는 선강용수 처리수 재활용 증대를 통해 하루 5,500톤 이상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압연 폐수를 염소 함량에 따라 각각 분리 수집, 재생 처리하여 2012년 하루 8,000톤 이상 재활용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배수종말 방류수, 오폐수, 신원료야드에서 발생하는 물을 하루 60,000톤 이상 재활용하고 있으며, 알칼리 냉연수 등 수질이 양호한 공장폐수는 하루 14,000톤 이상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R/O (Reverse Omosis) 역삼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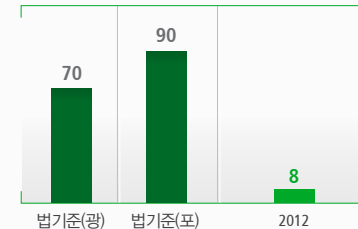
조업용수취수량 및 방류량

단위: m³/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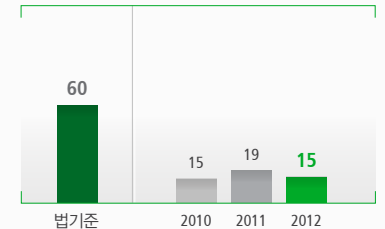
최종 방류수 COD 농도

단위: mg/l



최종 방류수 T-N 농도

단위: mg/l



환경경영

NOx 질산화물 SOx 황산화물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발적 협약

30/50 프로그램

화학물질 배출량을 협약 체결 3년 내에 30%,
5년 내에 50% 저감

POPs 자발적협약

2001년 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다이옥신 배출량 저감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물질. 1톤 이상 제조/수입되고, 신고 대상 물질 목록에 포함된 완제품 내 고위험성 우려 물질 (SVHC)이 중량 기준 0.1%를 초과한다면 완제품 제조자/수입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함.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 안전보건 자료 프로그램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의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U에서 발표한 특정 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

PFOS (Perfluorooctanoic Sulfonate)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인 포말형
소화약제

대기 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

포스코에서는 제철소 주변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자발적 협력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대기환경개선 Big-Y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조업부서와 함께 잠재 배출시설에 대한 밀착관리 및 환경개선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는 지난 2012년 1월, 환경부·전남도청을 비롯한 광양 만권 17개 사업장과 함께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저감 2단계 자발적 협약(2012~2016)'을 체결하 고 자발적협약 이행계획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2단계 협약에서는 1단계 협약(2006~2011) 의 먼지, NOx*, SOx* 이외 에도 오존생성에 영향이 큰 VOCs*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08년도 대기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3%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다이옥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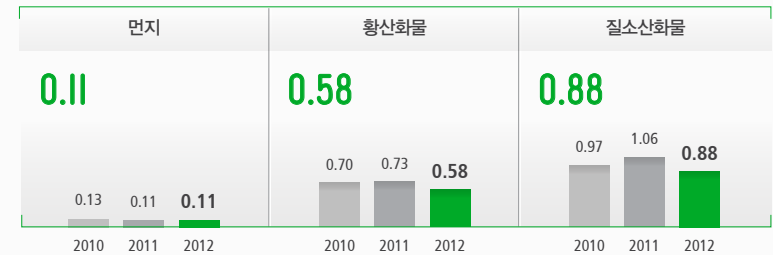
포스코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배출저감(30/50 프로그램) 자발적협약*' 1단계사업 (2005~2011년)과 '특정잔류성오염물질(POPs) 배출저감자발적협약*(2006~2010)'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도 다이옥신 배출량을 협약 저감목표를 35% 초과 달성한 15% 수준(저감목표: 2001년 배출량 대비 50%수준)으로 저감하였습니다.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EU에서 발 표하는 위험물질사용지침과 SVHC* 후보 물질의 최신 목록을 참조하여 판매하는 모든 소재별로 MSDS*, REACH*, RoHS*, 그리고 PFOS* 등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포스코 전자거래시스템(www.steel-n.com)에 등 록하여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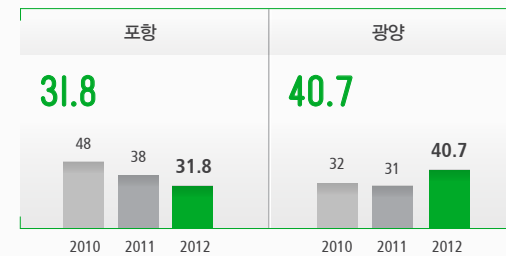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단위: 단위: kg/T-S



화학물질 배출현황

단위: 톤/연



* 광양: 소결 생산설비 증가 및 압연 산세라인 증설에 따른 대기 배출량 증가

환경경영

● 자원 관리

2012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총량은 2,396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슬래그*는 74%(고로슬래그 46%, 제강슬래그 27%), 더스트와 슬러지는 15%, 기타 부산물은 12%에 해당됩니다. 포스코는 부산물의 98.4%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고품화 매립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시멘트 원료나 골재 대체재 등으로 발생량 100%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고로슬래그는 76% 이상을 수재슬래그로 생산하고, 제강슬래그는 해양 생태복원용 등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며 수요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슬래그 시멘트 활용

고로 용융슬래그를 물로 분사하여 급냉시켜 모래 분말 형태로 만든 수재슬래그는 시멘트클링커*와 함께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재슬래그는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등의 광물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CO₂발생을 줄이며, 포스코는 2012년에는 801만 톤의 슬래그를 시멘트 대체재로 활용하여 629만 톤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스코는 기존 슬래그시멘트* 대비 친환경성을 높인 시멘트 소재인 포스멘트(PosMent)를 개발하였습니다. 포스멘트는 기존 슬래그시멘트 대비 슬래그 함량을 높이면서도 강한 초기 강도를 가지는 소재로 이를 시멘트 클링커 대체재로 활용하면 석회석 등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기존 시멘트 대비 CO₂발생을 약 70%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멘트는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구조물이나 해안에 위치한 건물 등 실제 건설현장에 시범적용되었으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재슬래그 및 슬래그파우더 해외 수출

2011년 포스코는 연간 계약을 통해 수재슬래그를 최초로 해외로 수출 하였으며, 2012년에는 판로를 동남아시아 4개국으로 확대하여 총 41만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는 패밀리사인 포스화인에서 생산중인 슬래그파우더를 싱가포르 첫 수출하여 수재슬래그 원료 뿐만 아니라 제품의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슬래그 발생증가에 대비하고,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 천연자원 보존 등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슬래그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도 병행해 친환경 시멘트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고부가가치 슬래그 활용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멘트클링커

석회석 등의 시멘트 원료를 고온 소성한 것. 이를 미분쇄하면 시멘트가 됨

슬래그시멘트 (Slag cement)

포틀랜드시멘트와 슬래그미분말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것

슬래그파우더

고온의 용융 상태인 슬래그에 물을 분사해 급랭시킨 고로수재슬래그를 밀(Roller Mill)에서 일정 분말로 분쇄한 것으로, 고강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

부산물 활용기술 개발

포스코는 제철 공정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자원으로 인식하여 2007년부터 패밀리차원의 “부산물 수익성 향상 Mega-Y”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고부가 활용 기술을 개발 및 유관 산업체와의 협력활동을 통한 시너지를 확대하는 포스코패밀리 고유의 부산물 활용모델을 구축한 결과, 2012년 부산물 수익성 향상금액은 전년 대비 1,264억 원 향상되었으며 누적 성과는 6,1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패밀리사와의 협력활동 강화를 통해 부산물원료 발굴을 가속화하며, 특히 타업종 산업체와의 활동영역 확장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물 자원화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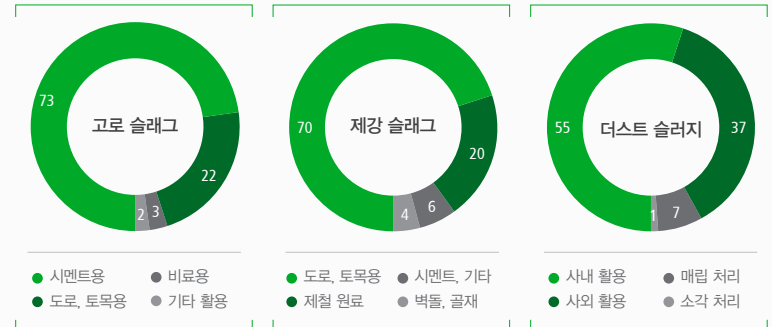
단위: 만 톤

단위: %



2012년 부산물 자원화 현황

단위: 만 톤



기후변화

포스코는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로 포스코패밀리의 저탄소 녹색성장도 비전 2020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O₂ 저감 철강 프로세스 개발, 소재 경량화, CO₂ 자원화 등 저탄소 혁신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보급 및 초경량, 비철강 소재 개발로 Green Steel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차원으로 풍력, 발전용 연료전지, 폐기물 자원화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리튬 소재개발 등 녹색사업 분야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아 Green Business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과 가족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워크 캠페인,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통하여 Green Life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내외 탄소정책 협력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업활동 강화로 Green Partnership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CO₂ 배출원단위 감축 목표

· IPCC Guide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WBCSD/WRI Greenhouse Gas Protocol, World Steel Association Guidelines, ISO TC 17/SC draft Calculation method of CO₂ emissions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2010.8.27)을 참조하여 철강산업에 적합한 포스코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산정범위: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직접배출(Scope 1): 제철소 내 차량 운행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중요도가 낮아 제외하였음.
간접배출(Scope 2): 구입 전기의 사용에 의한 간접적인 CO₂ 배출량

· 석탄배출계수는 2006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수목된 CO₂ 배출량은 기업 온실가스 보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며, 정부가 탄소규제를 위해 2011년 3월 고시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산정치와 다를 수 있음

GLOBAL GREEN GROWTH LEADER

2020년까지 최근 3년 평균대비 조강 CO₂원단위 9% 감축
사회적 온실가스 14백만 톤 감축(고효율 철강재 보급 및 그린비즈니스)

2018년까지 저탄소 철강 & 녹색비즈니스에 7조 원 투자, 녹색일자리 8만 7천 명 창출

GREEN STEEL



철강프로세스 혁신, 고강도 강판 및 초경량 소재 개발

GREEN BUSINESS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사업에 포스코패밀리 역량 집중

GREEN LIFE



탄소중립프로그램, 그린워크 캠페인, 녹색일터

GREEN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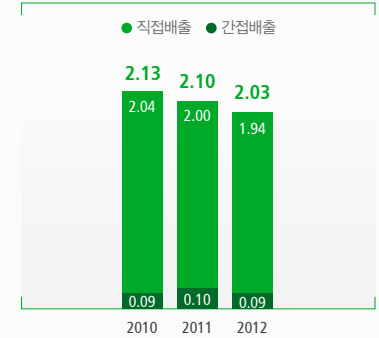
기후변화 정책협력 (기후변화 아태파트너십 등 GREEN TECHNOLOGY 이전, 확산)

2020 포스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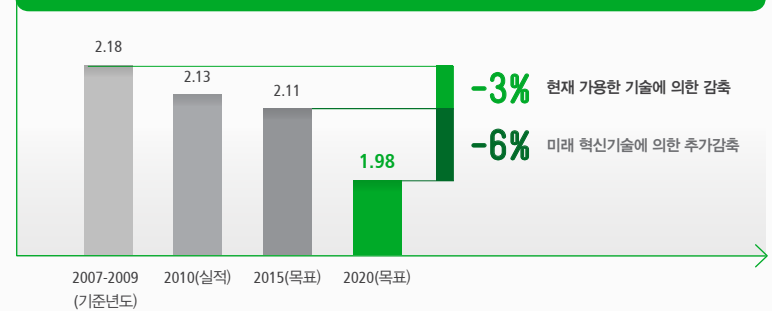
포스코는 지난 2010년 2월 대통령 주재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 포스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조강 1톤 당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CO₂ 원단위를 2020년까지 2007~2009년의 평균(2.18 t-CO₂/t-S) 대비 9% 감축한 1.98 t-CO₂/t-S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석탄원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미래 CO₂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2018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연비를 개선시키는 고장력 자동차 강판, 모터 및 변압기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고급 전기강판 등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 시멘트 소재로 대체 가능한 고로 수재슬래그를 공급 확대하는 등 출자사와 함께 녹색성장 사업에 총 5조 5,000억 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연간 1,400만 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₂ 배출원단위



포스코 CO₂ 배출원단위 감축 목표* (단위: CO₂/t-S)



기후변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천t-CO₂/년

고장력 자동차강판 659	저철손 전기강판 2,510	수재 슬래그 6,290
-------------------------	--------------------------	------------------------

* 2012년 공급량 기준

판매량

단위: 천 톤

고장력 자동차강판 818	저철손 전기강판 429	수재 슬래그 8,013
-------------------------	------------------------	------------------------

* 2012년 공급량 기준

기타 CO₂ 배출량

구입 원료 이송 1,022	임직원 출퇴근 5.6	임직원 국내외 출장 1.5
--------------------------	-----------------------	--------------------------

단위: 천t-CO₂

스마트 인더스트리 (Smart Industry)

산업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롯해 가스·열 등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흐름과 사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함께 CO₂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에너지 관리

포스코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각적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야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압연 조업스케줄을 조정하고, 에너지 패트를 실시로 에너지 낭비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에너지절감 TFT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포스코특수강, SNNC, 포스화인, AST와 함께 정부 전력수요 조정제도에 참여하여 31.5GWh의 절전효과를 달성하여 15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및 포스코 ICT와 함께 제철소 산소공장에 적용을 완료한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사업을 타 제조공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성진지오텍과 개발한 중저온 폐열 회수설비를 소결공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포스코는 2012년 10월, 아시아 철강업계 최초로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포스코패밀리 그린비즈니스

포스코 계열사 및 출자사와 함께 Global Green Growth Leader로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 매출 10조 원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 ICT, 신소재 등의 녹색 신사업을 주요 미래형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는 한편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사업(RDF: Refuse Derived Fuel)

- 생활폐기물을 분리·선별 후 연료화하여 전력을 생산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국내 최초 RFD 발전시설로 2010년에 착공 생활폐기물 900톤/일을 처리하여 고품연료 500톤/일을 생산, 이를 이용하여 시간당 25MW의 전력생산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2011년 협상 완료하여, 2013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 고품 연료(RDF)를 이용하여 12MW/h 전력 생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 서울시와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2012년 2월)
- 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하여 방류수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시설로 연간 20만Gcal의 열 생산 예정



탄천 하수열 조감도

● 태양광발전 | 포스코에너지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완공(2012년 1월)

- 3만㎡ 규모의 폐업전 부지 활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2MW급으로 조성, 연간 2600MW/h 전력 생산)
- 2012년 12월 5MW 태양광 발전단지 2차 착공, 2014년까지 총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계획
- 미국 네바다 태양광 발전사업: 300MW급 태양광발전 건설사업

● 풍력발전 |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강원도 풍력발전단지 운영

- 2008년도부터 강원도 태기산에 40MW풍력발전단지 운영 (연간 발전량 8만2,860MW/h)

포스코에너지: 제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전남 육상풍력시범사업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30MW급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 및 준공 후 운영 예정 (연간 82GWh의 전력 생산)
- 전남 5GW 풍력발전협회와 육상풍력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2012년12월)하여 진행 중

● 연료전지 | 포스코에너지

10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 국내 최초 도심형 그린에너지로 2012년 1월 서울시 서북병원, 어린이대공원에 설치 시간당 100kW의 전력과 46Mcal의 열 생산

인도네시아 연료전지발전소 착공(2012년 9월)

- 자카르타의 안쥘(Ancol) 유원지에 발전용량 300KW 발전소 설치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와 셀(cell) 제조기술 이전계약 체결(2012년 11월)

- 2015년도 상반기까지 경북 포항 연료전지 공장단지 안에 2만 826㎡(약 6300평) 규모의 셀 공장을 준공, 연간 70MW 규모의 셀을 생산할 계획

● 초고속 리튬 추출기술

- 2012년 2월 세계 최초로 무증발식 리튬 직접추출 기술을 개발
- 2012년 3월 볼리비아 국영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리튬배터리 사업추진을 위한 조인트벤처(JV) 설립 기본계약(HOA)을 체결하여 리튬배터리 사업에 공동참여

친환경 공정

포스코는 공급망의 녹색화를 통해 제품 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성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회적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Green-PCP 인증

포스코는 중소기업 포스코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한 포스코형 환경경영 인증 제도인 Green-PCP를 자체 개발·적용하여 2012년까지 주요 95개 외주파트너사 및 공급사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중·소 패밀리사의 자발적 실행과 참여를 기반으로, 포스코는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의 환경경영 활동과 환경개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Green-PCP 제도를 통해 환경경영을 공급망차원으로 확산하여 포스코패밀리 통합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제품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녹색 구매

포스코는 2005년부터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하여 친환경 자재 구매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는 공급사와 함께 친환경 구매망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는 녹색구매 활동을 패밀리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인 친환경상품 및 그 외 친환경상품을 7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녹색구매 추진활동 점검 및 3R(Reduce, Reuse, Recycle)품목의 적극 발굴을 통해 녹색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친환경 공정 및 제품

포스코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고로 부생가스에서 CO₂를 흡수, 분리하는 '철강 부생가스의 CO₂ 분리 기술' 및 철강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온의 용융 슬래그로부터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슬래그 현열회수' 등 철강공정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고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대량의 청정 수소 제도가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여 석탄 대신 수소를 철광석 환원에 이용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등, 포스코는 궁극적으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 배출이 없는 차세대 제철 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친환경 자동차의 소재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자동차 중량 10% 감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8%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동차 경량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고장력강판을 개발하여 고장력강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송배전 변압기, 모터 등에 주로 쓰이는 전기강판은 전기를 흐르게 할 경우 저항, 즉 철손(Core Loss)이 발생합니다. 포스코는 철손이 낮은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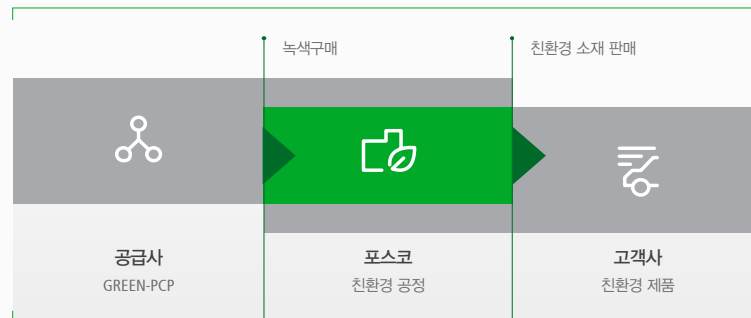
* 상세 내용은 고객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단위: 억 원

+ 2012 포스코 녹색구매 실적

4,541

* 2012년 녹색구매 품목 수: 3,510개



환경 파트너십

포스코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함께 환경 이슈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NGO, 국내외 협회, 학회 및 글로벌 철강업체 등과 협력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코패밀리 임직원 스스로가 직접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라이프 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환경보존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환경 콜로키움

국내외로 환경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환경 이슈 및 국내 환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환경 콜로키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기업, 학계 및 환경단체 등의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포스코의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녹색경제(Green Economy) 시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녹색경제 시대를 맞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환경 콜로키움에서 토의된 내용은 포스코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프로그램

포스코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포스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동아리, 시민단체,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론칭한 이래, 2010년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최대 1년 간 활동지원을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는 블로그 등 SNS와 잡지형식의 성과공유집 '탄소지움' 발간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캠페인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그린워크

'지구를 위한 녹색발걸음'을 의미하는 그린워크 캠페인은 포스코패밀리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포스코의 대표 녹색실천 운동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생활의 습관화를 위한 포스코패밀리의 전사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린워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환경과 관련된 뉴스와 전문가 칼럼을 제공하고, 그린포토, 그린에세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녹색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41개사 9,081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통하여 1만 여 가족이 함께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국제 협력 및 기술교류

포스코는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활동	세부 내용
국내	한국철강협회 환경정책협의회	환경 정책 변화 대차 및 자발적 환경개선 도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및 교류
	농림식품수산부 수산자원조성 상호 협력위원회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한 협력
	환경재단과 환경교육 협력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포스코와 함께하는 그린 스쿨' 교육 실시
국외	세계협회 환경정책협의회	세계 철강사와 환경, 기후변화 정책 대응 및 정보 교류
	동남아철강협회 환경정책분과위	동남아 철강사와 환경, 기후변화 정책 및 기술 공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세계자연보전연맹 2012년 9월 제주총회 참여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2 WB/CSD 서울 총회 후원 및 참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개도국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참여
	녹색기후기금	GCF(Global Climate Fund) 민간 유치위원 활동
	세계에너지총회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집행위원 및 참여준비

● 수상 실적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투명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1995년도 최초 환경보고서를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 홈페이지, 포스코신문 등을 통해 환경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탄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2년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세계 철강기업 중 유일하게 탄소정보 공개 최우수기업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경영의 노력을 평가받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인 SAM-DJSI에 8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 콜로키움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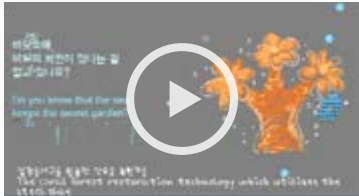
콜로키움 (Colloquium)

전문가회의,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형식



그린워크 웹사이트

생물다양성



트리톤 영상

생물종다양성 활동: 해양 보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아쇼크 코슬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는 포스코를 '한국에서 가장 녹색경영을 잘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하며, '트리톤'을 이용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한국이 해안 가장 중요한 환경 복원 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갯녹음(바다사막화) 현상은 1970년대 말에 국내 연근해에서 처음 발견되며, 이후 동해안, 남해안과 제주도 연안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해조류가 없어짐에 따라 전복, 해삼, 어류가 감소되고 해수의 자정능력이 저하되는 등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의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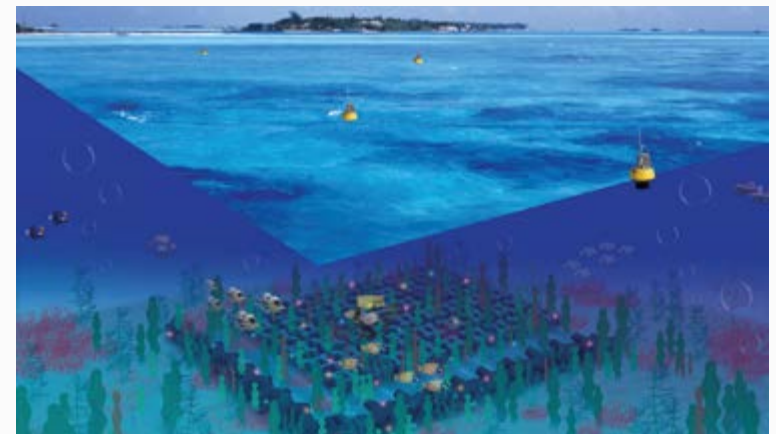
포스코는 갯녹음에 의해 훼손된 연안해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트리톤(Triton)*'을 개발하였습니다. 철강 슬래그는 건축, 토목재료, 비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는 친환경 기능성 소재로, 해양에 유용한 미네랄인 칼슘과 철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정화에 효과적입니다.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₂를 고정시켜, 해수온이 상승해 발생한 갯녹음 등에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스코의 MOU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남해 평산리 마을 어장에 설치된 바다숲은 18개월 경과 후 주변 암반 대비 생체량이 10배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산자원 조성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바다숲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2014년까지 총 17개 지역에 트리톤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바다숲 조성으로 연안생태를 복원하고 전복, 해삼 등의 수산자원이 조성되어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여,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서 제정한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에도 소개되며 그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제철소를 기반으로 산호초 복원 및 연안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해외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복원 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이슈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사업장과 정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트리톤 바다숲

여수세계박람회 트리톤 바다숲은 거문도 덕촌리 마을공동어장 내 수심 8~13m 해역에 1.4ha 면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바다숲 조성시 투입된 해중림초는 510기, 복토용 제강슬래그는 1,000톤입니다. 해중림초는 제강슬래그 골재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해조류 부착면적을 극대화하고 어류 서식공간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였습니다. 2012년 4월 바다숲 생태조사 결과 해조류 서식밀도는 모자반 서식량 제외시 평균 4kg/m²로 목표 2kg/m²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서식종 또한 감태, 모자반 외 청각, 유엽 등 서식생물의 종다양성이 높았으며 해조류 피복율은 90% 이상을 나타내었습니다. 포스코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포스코관에 트리톤 바다숲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전시하고 트리톤 바다숲과 관련한 해양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하여 포스코의 트리톤 바다숲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트리톤 브로셔 보기

트리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뿔고동 나팔을 불어 물고기와 돌고래를 부르고, 바다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바다의 신을 말하며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한 저탄소형 어초 브랜드

05 파트너 PARTNER



CONTENTS

공정거래 · 벤처 지원 프로그램 · 동반성장
CASE: 포스코형 성과공유모델 FOCUS



15
PAGES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김응규

포스코를 둘러싼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야 포스코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기업 및 중소 고객사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협력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지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포스코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한 이후,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 6월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방침을 천명하 바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매년 회사 운영회의, 계열사 사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공정거래의 중요성 및 관련 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7대 요소를 포함해서 포스코만의 프로그램을 추가 이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포스코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전예방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임직원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인 e-러닝 과정을 개설한 이후, 2008년 기존과정을 대폭 개선한 신규과정을 오픈해 2012년까지 총 47,872명의 임직원이 해당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2개 과정을 '알기 쉬운 공정거래' 단일 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84회에 걸쳐 신입사원, 승진자, 판매/구매 등 사내 유관부서와 출자사 등 6,119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자율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외전문가 초청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 점검 체계

임직원의 공정거래 점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4년에 사내에 공정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자율점검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와 연관있는 판매/구매/외주 등 7개 현업부서를 자율점검 필수부서로 지정함으로써 자율점검체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웹사이트의 주된 기능인 '부서별 자율점검 및 상담 체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독체계로 공정거래 유관부서의 실무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관 업무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내 전문부서와 미리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업부서에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마인드 제고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그룹리더 이상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실천리더, 계열사 공정거래 담당자의 학습동아리인 FTA(Fair Trade Academy) 및 공정거래 스터디그룹 등을 통해 정기적인 세미나, 정보교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율점검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점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내 공정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자율점검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자율점검 매뉴얼을 소지해야만 자율점검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고유경영사례

+

2012년 교육

집합교육

84회

집합교육

6119명

포스코의 CP 운영은 2004년부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총괄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CP 운영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79건의 안건이 심의·보고되었습니다.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지원팀을 2004년 신설하고, 2012년에 공정거래지원그룹으로 확대하여 패밀리 차원의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패밀리사 CP 도입 현황

2012년에는 4개 계열사가 CP를 신규도입하여 현재 포스코패밀리 중에서는 22개의 계열사가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의 하도급법 준수현황을 자체점검하고 동반성장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윤리 웹진 기사 게재, 공정거래 주간동향 메일링,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편람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있습니다.

시기	구분	회사수(누계)
~2003년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특수강	4
2006년	포스코강판, 포스코, 포스코켄텍, 포스코엠텍	8
2007년	포철기연, 포스코플랜텍	10
2008년	포스코P&S, 포스메이트	12
2009년	포스코A&C, 포스코에너지, SNNC	15
2010년	포스코엔지니어링	16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 성진지오텍, 엔투비, 포스코AST, 포스코TMC	21(19)
2012년	포스화인, 포레카, 포스코NST, 포스하이메탈	25(22)

* 합병으로 감소한 회사 감산

향후 추진방향

2013년 포스코는 패밀리사의 CP 역량 강화를 가장 큰 목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가 각 사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의 CP 도입 확대, 계열사별 자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정 심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동반성장 활동의 지원, 맞춤형 CP 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및 편람 개정·발간 등을 통하여 CP 운영을 그룹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법인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해외법인, 사무소 등에 대한 국제카르텔 교육 실시 등 해외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의 근간이 공정거래라는 인식 아래 공정거래 문화가 포스코 그룹 차원으로 더욱 확산되고 1~2차 협력기업 간에는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철강 부문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기업 납품단가 조정 내용이 2차 협력기업에까지 합리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협력기업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1차 협력기업 수를 기존 184개사에서 2013년 310개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시설 및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포스코패밀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벤처 지원 프로그램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 사회에서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금, 정보, 경험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벤처 기업은 소규모로 출발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성장자원을 통해 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로써 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포스코는 2011년 11월부터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는 청년 창업 및 초기 벤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와 '에인절 투자자(angel investo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는 우량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에인절 투자자(angel investor)는 창업 초기 및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투자자입니다. 이 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www.poscoventure.co.kr)'라는 벤처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 수립부터 사업 설계, 성장 관리까지 창업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부족으로 벤처 기업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펼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아이디어 발굴/심사를 통해 선별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육성캠프,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포스코 고유의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성한 후,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투자자에게 소개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벤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포스코 고유경영사례

2011년 6월부터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제1회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2011년 10월 27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멘토링 지원을 받은 회사는 29개사이며, 포스코는 최종적으로 11개사에게 총 31.5억 원을 투자 진행하였습니다.

제 3회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부터는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전'을 도입했습니다.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에게 투자하여 추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힐링캠프와 중소기업청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CEO 등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벤처 지원 프로그램 5단계

1단계 - 아이디어 발굴 및 심사 사업화 아이템 접수 및 심사

2단계 - 아이디어 육성 캠프

2박 3일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발표, 집단 토론, 일대일 심화 멘토링, 아이디어 업그레이드, 아이디어 심사)

3단계 -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멤버십 프로그램

10주간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구체적 사업계획서 작성

4단계 -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대외 사업 설명회 및 투자 유치 지원, 아이디어 전시 및 투자자와의 교류 기회 제공

5단계 - 에인절 투자 및 사후 관리

초기 투자 유치, 단계별 투자 확대 지원, 법률/세무/판로개척/R&D 등 지원

벤처 지원 프로그램

향후 계획

포스코는 벤처 투자자와 아이디어 보유자, 전문가가 함께 만나는 정기적인 아이디어 교류의 장을 만듦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해 더욱 체계적인 벤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는 지원 벤처기업과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사업 설명 대상을 작년 대비 150%로 확대해 다양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포스코패밀리 내에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는 포스코패밀리와 포스코 신사업실 연계 그룹 내 수요기술에 대한 대외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 도입 확대, 패밀리 차원의 R&D 지원, 판로 제공이 가능한 기술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신규 프로그램인 '기술거래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포스텍·리스트 등 패밀리 R&D를 연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주요 성과

구분	아이디어 공모	육성캠프	멤버십	투자	투자규모
1회	1,437 건	19 개사	9 개사	5 개사	20 억 원
2회	183 건	14 개사	8 개사	6 개사	11.5 억 원
3회	376 건	25 개사	12 개사	11 개사	10.2 억 원
4회	281 건	24 개사	17 개사	(진행 예정)	(진행 예정)
계	2,277 건	82 개사	46 개사	22 개사	41.7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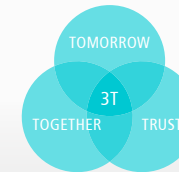
제 3회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에 방문한 포스코 정준양 회장.

동반성장

포스코 동반성장의 모토는 3T, Trust, Together, Tomorrow 입니다. 즉 포스코는 상호신뢰(Trust)를 기반으로 1차 및 2~4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Together)하는 미래지향(Tomorrow)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등 7개 카테고리, 67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문화를 패밀리사 및 2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 시행한 기업단계 성과공유제를 보다 강화하고 전 산업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포스코형 성과공유제인 FOCUS를 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9월에는 성과공유제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국가 기간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서 관련 중소기업과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 핵심 역량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며 전체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동반성장 모토인 3T는 '상호 신뢰(Trust)'를 기반으로 1차 및 2~4차 협력 기업과 '동반성장(Together)'하는 '미래지향(Tomorrow)'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반성장 추진 노력

1999~2004

- 1999~ 명절 구매 대금 조기 집행
중소기업 50억 원 이하 공사 발주 제도
- 2003.06. 철강사 최고 SRM 및 중소기업 CRM 도입
- 2004.07. 국내 최초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도입
- 2004.11.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 선정
- 2004.12.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결제 시행

2005~2007

- 2005.06. 중소기업지원팀 조직 신설
- 2005.06.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참여
- 2005.09. 협력기업지원펀드 조성
- 2006.07. 특허상담센터 운영
- 2006.08. 보유 특허 기술 이전 사업
- 2006.09. 테크노파트너십 시행

2008~2009

- 2008.06. 공급사 컨설팅 시행, 경영 닥터제 도입
- 2008.11. World First-World Best 육성 지원
- 2008.12. 범포스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 2009.01. 상생보증프로그램 협약 체결
- 2009.03. Job World '포스코 협력기업채용관' 개설
- 2009.09. 포스코패밀리 네트워크론 시행

2010

- 2010.04.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협의회 개최
- 2010.06. 공급사 행동규범 제정, 시행
- 2010.09. 동반성장 실적 임원평가 반영 시행
- 2010.10.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지원단 출범
- 2010.10. 포스코패밀리 2~4차 협의회 발족
- 2010.11.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페스티벌 개최

2011

- 2011.03.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사업 킥오프
- 2011.04.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 1~2차 CP 도입 선포
- 2011.06. Global Growing Center 개소(인도네시아)
- 2011.07. 동반성장지원단 그룹사 확대(12▶28개사)

- 2011.09. 글로벌 중견 육성기업 CEO 간담회
- 2011.10. 공생발전기금 조성 협약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개최
- 2011.11.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페스티벌 개최
- 2011.12. 민간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협력펀드 협약식

2012

- 2012.04.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 개최
- 2012.05.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획득
- 2012.06. 동반성장 투자지원 출연협약 체결
- 2012.07. 포스코형 성과공유모델 FOCUS 정립
- 2012.09. 베이비부머 협력기업 일자리박람회 참여

- 2012.09. 동반성장주간 성과공유 우수 대통령 표창
- 2012.11.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페스티벌 개최
- 2012.12. 포스코형 성과공유모델 FOCUS 시스템 개발

동반성장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2004년부터 7월부터 실시한 성과공유제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성과에 대해 3년간 성과 발생금액의 50%를 해당 중소기업에 보상함은 물론, 장기 계약 체결(3년),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공동특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 이래, 2012년까지 포스코는 1,389건의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669개사에 1,328억 원의 성과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크노파트너십(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포스코는 2006년 9월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테크노파크 등 7개 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포항 및 광양 지역 중소기업과 '테크노 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테크노파트너십 참가신청을 하면 기술연구원은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하여 중소기업을 선별,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게 되고 해당 중소기업은 포스코와 테크노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술자문단은 매월 한차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 현장진단 기술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산공정 또는 제품의 기술적 고민을 함께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포스코는 시험 연구설비를 제공하며, 박사급 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 인력이나 기술,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테크노파트너십 제도는 2010년 6월부터 자체 기술 연구소를 보유한 5개 그룹사로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는 인천 송도의 글로벌 R&D 센터를 통해 경인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포스코는 2012년 말 기준 그룹 차원으로 총 237개사에 대해 기술자문 1,057건 및 시험장비 무상 지원 4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테크노파트너십 운영 현황(2012년)

대상기업	기술자문	시험분석	참여 포스코그룹(7개사)
237개사	1,057건	412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특수강, 포스코ICT, 포스코켄텍, 포스코강판, SNNC

●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지불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4년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 금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납품 후 3영업일 이내 주 2회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명절 1주일 전부터 매일 지급으로 자금 지급 주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패밀리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포스코와 그룹사 임원진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임원 동반성장지원단을 결성하여 동반성장 활동을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1, 2차 협력 중소기업에 경영혁신, 노사 관리 등 경영진의 전문경험과 역량을 전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단에 참가하는 임원진은 매월 한 차례 협력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활동 실적은 지난 2011년부터 경영진의 인사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원단을 시작한 이후 2012년 12월까지 포스코와 27개 그룹사 임원 263명은 중소기업 677곳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2년 7월,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기업의 91.7%가 동반성장 지원단 활동에 '만족한다'라고 답변 바 있습니다.



2012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페스티벌

동반성장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1조 2,900억 원의 금융펀드 조성

포스코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총 1조 2,9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력기업 지원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 상생보증 프로그램, 포스코패밀리 네트워크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시중 보통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 이행 보증 사업에 참여, 1,000억 원 보증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협력기업 지원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	상생보증 프로그램	포스코패밀리 네트워크론	민관 공동 투자사업	뿌리사업 이행보증	계
1,400	1,200	3,300	5,000	1,000	1,000	12,900



포스코패밀리 임원동반성장지원단 활동, 박동석 산업전기사업(사진왼쪽)이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제품제조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동반성장 투자 펀드

포스코는 신성장 동력이나 핵심기술을 가진 협력 중소기업, 핵심고객사 및 신규사업 등에 지분투자를 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KB금융지주, 한화그룹 등과 함께 2,000억 원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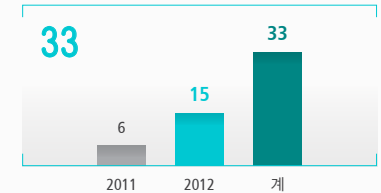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란 포스코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R&D 기금을 조성하고 포스코가 구매를 보장한다는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중소기업 R&D 과제의 개발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성공 시 3년이라는 장기계약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8년에 이어 2011년 12월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R&D 기금 1,000억 원을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가 지원한 중소기업 과제는 33건에 이릅니다.

단위: 건

연도별 과제추진 수(합계는 2009년부터 누적)



중소기업 특허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의 특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웹사이트(www.steel-N.com)에 공개하여 중소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출원에 필요한 행정 비용 전액을 포스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스코에 납품할 시에는 기술 사용료를 면제하여 비용절감과 특허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 상담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동반성장

기술임치제도

포스코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2건에 이어 2012년 한 해 동안 50건의 기술임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와 같은 지적 재산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차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주치의제도

포스코는 중견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11년 5월부터 기업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 금속, 전기/전자, 소재, 제어/계측, 환경, 에너지 등 기술 경영 전 부문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생산공정 및 제품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 자료, 교육 등 기술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연구 설비 이용 분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KC코트렐 등 27개사가 기업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파트너십 강화

World First-World Best 품목 육성

포스코는 우수 공급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그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업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World First-World Best 품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는 포스코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2012년, 33개의 새로운 World First-World Best 품목을 선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인증 품목 수는 5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원프로그램

- 포스코가 구성한 지원 그룹(CFT)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 테크노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지원
- 경영 컨설팅, 경영닥터제, QSS(포스코형 식스시그마 방식) 컨설팅
- 개발 완료시까지 최대 3년간 공급권 보장

World First-World Best 인증 품목 수 단위: 개

2011	2012
12	33

포스코 인증공급사(POSCO Certified Partner) 제도

포스코 인증 공급사 제도는 인증 파트너로 선정된 공급사를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 전문 품종(소싱 그룹) 공급사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선정 공급사에 그룹 차원의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연도별 포스코 인증공급사 현황

인증공급사수		단위: 개	인증품목		단위: 개
2011	2012		2011	2012	
42	39		70	70	

* 선정기준 : 2년 연속 해당 소싱 그룹 SRM 평가 결과 우수, 일정 금액 이상의 입고 실적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포스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30개 육성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포스코는 2012년 현재 공급사 및 고객사 등 31개사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자금, R&D,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을 묶어서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KC코트렐, BHI 등 협력기업 4개사를 중견기업으로 육성시켰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발주 물량 지원

포스코는 대기업 및 외국기업에 발주되었던 제철설비를 중소기업으로 전하, 발주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던 공장 신, 증설 등 대형 프로젝트 설비를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중소기업 구매 가능 품목을 발굴하여 분할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발주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발주물량	31,149	43,307	31,633	39,496	33,064	37,385

동반성장

● 납품단가 변동시 1차 협력기업이 2~4차 협력기업 단가 조정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있어 1차 협력기업이 2~4차 협력기업에 대해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반성장 분위기가 2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같은 내용을 1차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서와 일반 계약약관에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분	납품단가 조정 내용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제4조 6항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원자재가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5/100 증감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일반약관	제16조(계약변경) 4항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 시중의 거래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60일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점 기준가격 대비 총계약금액의 5/100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매도인(1차 협력기업)은 상기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매도인의 협력기업(2차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비구매 중도금

포스코는 지금까지 전체 계약 금액의 20% 내에서 시행해 왔던 설비구매 선금금 제도와 함께 2010년부터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를 제작할 때, 긴 제작기간과 소요 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계약 금액, 180일 이상의 계약 기간으로 포스코와 계약한 중소기업이며, 중도금은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선금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룹사이자 국내 대표 무역전문 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해외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 고객사 및 공급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가공센터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2009년 9월 태국과 인도에 연 홍보관은 각각 3개사, 4개사로, 2012년까지 태국 2,495명, 인도 4,418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홍보관에서 포스코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거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 시장 조사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Global Growing Center)를 2011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 Krakatau 제철소 건설 현장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고객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 주물선 고객에 대한 탄력적 가격운영과 안정적 물량 공급

주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물선 고객사에 대해 가격인상 적용유예, 가격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가 수입재 대체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포스코는 총 305억 원의 가격 할인제도를 전개하였습니다.

● 고객사 사용강제 최적화 및 수입소재 국산화(원가절감형 강종 개발)

포스코는 중소고객사의 원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철강재의 가공 프로세스 단축이 가능한 강종 개발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2개의 원가절감형 강종을 개발하여 6만 4천 톤 규모의 판매 지원을 하였습니다.

● 중소고객사 솔루션 프로바이딩 제도

중소고객사 솔루션 프로바이딩(Solution Providing) 제도란 포스코재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부터 소재를 다양하게 구매하는 고객사에게 각 소재별 특성에 맞는 가공기술(특히 성형, 용접, 도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재구매로부터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문제점을 포스코와 고객사가 함께 해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포스코는 보유하고 있는 검사/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품질 분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제품 프레스가공 및 용접기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고객사 11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과제수행 건수는 187건에 이릅니다.

● 중소고객사 정보교류회

포스코는 중소고객사가 철강재 가격 예측이 가능토록 제품별-업종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포스코의 판매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고객사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중소고객사 778개사에서 1,093명이 중소고객사 정보교류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적역량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및 중소기업 경영진 토요학습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예정자 양성 교육과 재직 근로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직원 훈련 컨소시엄에도 포스코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수료한 1~2차 중소기업 관련자들은 그룹 차원으로 총 73,091명입니다. 또한 같은 해 외주파트너사와 우수 중소기업 대표 등 경영진 총 2,903명을 대상으로, 대내외 경영환경 이슈 사항과 포스코 패밀리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진 토요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취약 부분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코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차 및 2~4차 희망 중소기업과 포스코그룹 추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 환경, 에너지, 자재관리, 조직관리 등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포스코 홈페이지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 포탈을 통해 언제든지 컨설팅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포스코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지식경제부와 8.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 1~2차 협력기업 20개사에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업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술, 현장 혁신 등 경영 전반위에 걸친 자문 지원을 받았으며 총 70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였던 포스코의 2차 협력기업 부강특수산업은 2012년 12월 13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2012년 동반성장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2013년에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경영닥터제

포스코는 협력 중소기업, 전경련 경영자문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영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닥터제란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전직 CEO 및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중소기업 경영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는 그룹차원으로 2012년 상반기에 6개사, 하반기에 9개사 총 협력중소기업 15개사가 경영닥터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 포스코 협력기업 채용관 운영

포스코는 2009년 3월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협력기업 채용관을 개설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윈윈전략입니다.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취업전문 사이트인 '잡월드(www.ibkjob.co.kr/jw)'에 회원 가입한 뒤 채용 공고를 게시하면 됩니다. 잡월드 사이트를 통해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기업은행 수수료 또는 대출이자 감면(채용 1인당 100만원) 혜택을 받으며, 잡월드 사이트의 구인 구직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신문고 운영(중소기업 상담센터)

포스코는 2010년 10월 중소기업의 불편 및 애로 사항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이버 신문고는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스틸엔닷컴(www.steel-n.com)의 첫 화면에 위치해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하게 하였습니다. 사이버 신문고는 정도경영(비윤리행위 신고), 동반성장(중소기업 상담), 구매부문(열린 구매 상담실), 판매부문(고객사 상담)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어떤 주제라도 불편 및 애로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포스코는 패밀리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1차 협력기업 대표 위주로 구성되었던 참여위원을 2차 협력기업 대표까지 확대하여 포스코패밀리만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1차 협력기업 동주산업 나채홍 대표 그리고 2차 협력기업 청우피앤티의 이수현 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며 포스코 각 부문 대표 임원 및 그룹사 사장 그리고 우수 협력 중소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5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협의회에서는 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며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의결합니다. 또한 동반성장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우수 동반성장 사례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개최 주기는 반기 1회입니다.

● 동반성장 활동실적 임원평가에 반영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핵심 경영가치로 삼아 포스코패밀리의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 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 실적을 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를 비롯한 13개 그룹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실적 및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동반성장 우수과제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 포스코형 성과공유제 브랜드화 정착

포스코는 2013년,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를 그룹사에 확산시킴으로써 전산업계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과공유제 도입 그룹사를 기존 12개사에서 14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며 성과보상금도 그룹 차원으로 600억 원까지 증대할 것입니다.

● 2~4차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 강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즉,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이 점점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포스코는 2차 협력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의 1~2차 협력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포스코패밀리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및 동반성장 성과를 정량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차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및 대금지급기일 개선유도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2차 협력기업 대상 각종 동반성장 협의체를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차 협력기업의 대표 및 임원진들과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2차 협력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서플라인 체인 CSR 경쟁력 향상

포스코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의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포스코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패밀리의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공급사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R 경쟁력을 서플라이 체인에 전파하여 공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CSR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제정(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

포스코는 포스코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도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6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UN Global Compact가 규정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범에 공정거래, 품질경영, 동반성장 관련 항목 등을 더하여 7개 부문 22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동규범은 포스코그룹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는 포스코 전자상거래시스템인 e-procurement(www.steel-n.com)를 통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포스코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평가지표 소개

포스코는 구매물품의 공급시장, 물품특성 및 계약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묶어 소싱그룹(Sourcing Group)을 구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사의 기본적인 재무능력, 설비규모 정도 등 포스코가 구매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심사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급사를 해당 소싱그룹에 등록하고 해당 소싱그룹의 물품에 대한 입찰 또는 협상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의 거래 실적은 소싱그룹별로 분기단위로 분석/평가하여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성과평가는 신용, 가격, 품질, 납기, 협조도, 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로 가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포함된 CSR 요소는 경제, 사회, 환경등의 전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회사별 봉사시간이 분기 50시간 이상되는 기업에 1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사회공헌 관련 포상 역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업이 포스코의 분기별 공급사 성과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동반성장 정책과 더불어 포스코의 2~3차 공급사도 시장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1차 공급사를 독려합니다. 공급사 성과평가 기준에 2~3차 공급사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을 가점항목으로 반영하여 포스코패밀리 가치 사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및 환경 분야 역시 공급사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KOSHA18001 등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건수를 가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 활동, 안전규정 준수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 공급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재해 발생 건수 및 제철소 내 수칙위반 건수를 감점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ISO 14001 등의 환경인증보유, 녹색구매금액, 친환경 상품 제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을 공급사 평가 기준에 넣어 친환경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급사 평가/분석을 통해 분기 단위 및 연간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급사에 제공하여 공급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공급사에 제공하는 보고서는 Poor, Good, Excellent 등의 3개 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Poor 등급을 기록한 공급사는 거래 정지 등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연간 단위 보고서에서 2년간 Poor 등급을 기록하면 1년간 거래 정지 및 소싱그룹 등록이 취소되며, 그 이후 다시 소싱그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과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xcellent로 평가받은 공급사 중에서 포스코 인증공급사(POSCO Certified Partner)를 별도로 선발하여 중요 자재 계약 시 우선협상권 부여, 각종 보증금 납부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공급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각 공급사의 강약점을 피드백함으로써 공급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공급사를 지원하거나 퇴출시키는 기준으로도 활용하여 포스코의 기업생태계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또한 공급사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두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민원을 야기한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최고로는 영구 제재를 가하는 등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가하여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이 포스코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사의 비윤리 행위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 규범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자발적 취업, 아동 근로 금지, 차별 금지, 근무 시간, 임금, 인도적 대우

안전 및 보건 작업 환경, 산업 안전

환경 유해물질, 폐수/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윤리 및 공정거래 비즈니스 청렴성, 윤리실천 특별 약관의 준수, 공정거래 준수, 신뢰 문화 구축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지적재산 보호

품질 경영 품질관리, 변경관리, 공급사 상호 간 품질 관리

동반성장, 사회공헌

동반성장

○ 친환경자재 구매 및 공급사 역량 향상 교육

포스코는 친환경자재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친환경자재에 대해서는 구매가격의 10% 이내에서 가격 선호율을 적용하여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자재가 타 품목보다 10% 정도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해서 사용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동일 용도의 다른 물품에 비하여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친환경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의 역량 향상이 곧 포스코의 역량 향상이라는 믿음 하에 포스코는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HR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 공급사,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우수한 혁신경영 활동을 전파하여 공급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 1회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서플라이 체인이 윤리적으로도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참여는 공급사 성과평가에도 반영합니다.



· 생산자로서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청정생산
· 소비자로서 친환경 물품의 우선구매

친환경영향 최소화

녹색 구매의 3R원칙: Reduce(감소, 절감),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주요활동: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그룹사에 녹색구매 활동 확산, 공급사 친환경성 평가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강화

포스코패밀리 SRM 평가 항목

☑️ 신용	신용등급
☑️ 가격	투찰가격, 견적신뢰도, 적정투찰율
☑️ 품질	불량율, 불량금액, 하자율, 하자금액
☑️ 협조도	입고실적금액, 사회봉사실적, Benefit Sharing 과제건수, Benefit Sharing 재무성과금액, 2~4차 공급사 대금 지급기일, 동반성장 협약체결, 중소기업 교육실적, 자재 사용부서 만족도, 혁신인재 양성 실적
☑️ 환경	친환경품목 납품실적 금액, 친환경마크 인증, ISO 14001 인증 등
+ 가점	2~4차 공급사 금융지원, 긴급돌발 지원, 도면제안: 0.25점/건, 최대 2점 안전보건경영 인증: 2점
- 감점	정도경영실 지적: -1점/건, 중대 재해: -3점/건, 일반 재해: -1점/건, 안전 위반: -0.25점/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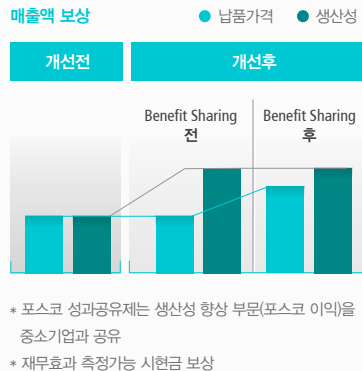
* 90점 이상 Excellent / 80점 이상 Good / 60점 미만 Poor

Excellent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 우대 및 우수 중소기업 선발 기회 부여

포스코형 성과공유모델 FOCUS

- F | Fostering 협력사 적극 육성
- O | Open innovation 열린 혁신
- C | Collaboration 협업
- U | Upgrade 수명, 납기, 품질 등의 향상
- S | Sharing 성과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공유

포스코 고유경영사례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포스코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원가 절감, 기계 수명 향상, 국산화와 같은 성과를 얻으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혁신활동으로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성과가 창출되면 그 성과의 50%를 중소기업에 현금 보상하고 장기계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영 체질 개선과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포스코는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2012년 7월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포스코 성과공유제 모델, 'FOCUS'를 정립하는 한편, 성과공유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동반성장의 표준모델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FOCUS'는 포스코형 성과공유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포스코와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FOCUS) 의미와 함께,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협력사를 적극 육성(Fostering)하고, 이들과 함께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기반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수명, 납기, 품질 등의 향상(Upgrade) 성과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공유(Sharing)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FOCUS'를 통해 성능 공동개선형, 협력기업 간 협업형 등 7개의 성과공유 모델을 세우고 그 하위 개념으로 25개의 구체적인 협력 유형을 정립하여 포스코 그룹 내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들이 성과공유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성과공유제의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공유제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CEO 포상과 연계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성과공유(BS) 마일리지로 보상합니다. BS 마일리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부금 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과공유 과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그 참여폭 또한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제철소 출력이 가능하여 개선기회 획득이 용이한 협력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과공유 과제가 도출되곤 하였는데 이제는 여타 협력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내부직원도 온라인을 통해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외주사와 공급사 등 협력기업 평가 시 성과공유제 참여 정도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난 12월에는 효율적인 FOCUS 운영을 위한 전문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에 대한 열린 참여 기회와 동기부여가 대내외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 특유의 동반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7개 성과공유모델

1. 목표원가 관리형

포스코 생산량과 연동하는 조업용 품목에 대해 목표원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개선 활동
추진 방법 책임관리제, 목표 원단가 관리제

2. 공동 원가개선형

외주작업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협력사와 공동 수행하는 원가 절감 활동
추진 방법 직원원가 절감, 외주비 절감, 물류비 개선, 제조원가 개선 등

3. 성능 공동개선형

설비의 불필요한 사양을 제거하거나 내구성을 좋게 만드는 등의 원가 절감 활동
추진 방법 품질개선, 사양 개선 수명향상, 자재재활용 등

4. 신제품 공동개발형

기존 구매하던 외국산 구매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활동
추진 방법 국산화 개발, 신제품 개발, 대체제 개발 등

5. 보유기술 지원형

포스코의 박사급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하거나 특허, 기술 등의 자원을 통해 추진하는 개선활동
추진 방법 테크노파트너십, 특허/기술이전, 기업주치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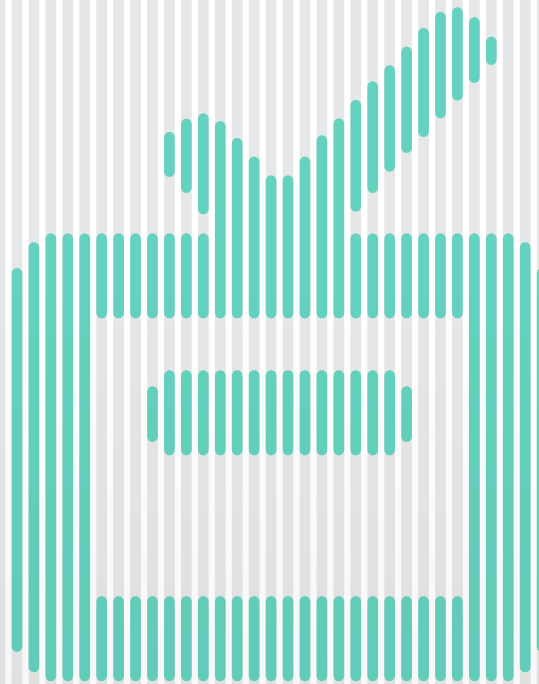
6. 협력기업 간 협업형

포스코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전후방 협력사가 함께 공동 수행하는 개선활동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시켜 성과를 공유
추진 방법 협력기업과 공동개선

7. 혁신성과 공유형

제철소 상주 외주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철소 내 작업공간 혁신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안전재해 예방
추진 방법 QSS(포스코형 식스시그마 방식) 활동

06 직원 EMPLOYEE



CONTENTS

안전 · 보건 · 행복한 일터 만들기 · 글로벌 인재육성
CASE: 다양성 존중_여성을 위한 근무환경
CASE: 안전 시스템_작업장 위험 요인 제거

+

16
PAGES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김응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직원입니다. 따라서 경영지원부문의 핵심 역할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본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워크플레이스(Smart Work Place)를 포함한 POSPIA 3.0의 성공적인 구축은 일하는 방식을 선진화하여,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전

포스코는 안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0순위'로 생각하고,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인간존중사상에 입각하여 소중한 가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안전이 모든 직원의 생명과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가족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을 지키고 안전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포스코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인간존중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재해 제로화 추진

부문별, 지역별로 추진하던 안전 보건 활동을 포스코패밀리 차원으로 통합하고 최적화 하기 위해 2010년 9월 안전혁신사무국을 확대, 개편하고 안전재해 제로 Mega-Y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해 제로 Mega-Y는 포항 및 광양 제철소는 물론이고 외주 파트너사, 출자사, 글로벌 생산기지를 포함한 전 포스코패밀리가 함께 합니다. Mega-Y 1차 년도인 2011년에는 9개 영역에 걸쳐 28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포스코패밀리 안전재해 제로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10월에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는 포스코패밀리는 물론 시민, 학생을 위한 교통, 가정 안전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직원, 지역사회, 철강공단이 동반성장하는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년도인 2012년은 새롭게 발굴한 10개영역 3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구축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모든 직원이 안전을 위한 필수역량을 확보토록 하고, 위험 요인의 발굴 및 개선, 글로벌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안전재해 제로실현을 통한 안전문화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는 포스코패밀리 전원 참여와 함께 특히 직책보임자의 프로세스 미세관리를 통해 실현하는 총원 참가 안전경영을 이행함으로써 실현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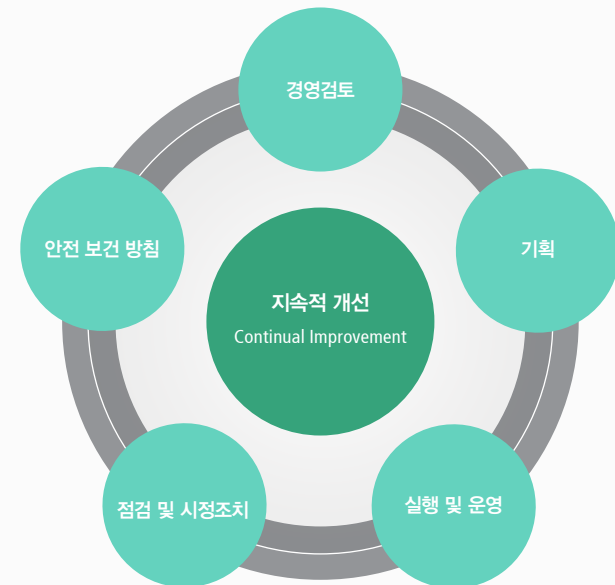
PDCA 사이클 (Plan-Do-Check-Act)

계획 ▶ 실천 ▶ 확인 ▶ 조치를 반복해서 실행하여 목표달성하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기법

POSCO의 안전활동 체계

포스코패밀리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인(Hazard)을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PDCA 사이클(Cycle)*에 의한 지속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경영의 핵심인 계층별 역할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꾸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

PSRS (POSCO Safety Rating System) 진단 컨설팅

포스코패밀리 대상 조직, 회사별 안전관리 수준인 안전리더십, 설비안전, 실행 부문 이행점검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화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맞춤형 개선안과 체계적인 변화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진단 툴인 PS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SRS 진단 순서	
PSRS Audit	단계별 중점 활동
진단계획 수립	범 POSCO Family 대상, 맞춤형 진단 계획 수립
진단 사전 준비	진단전 해당회사(부서), 안전활동 자료 사전검토
설문 조사	문제 은행식 설문, 의식 및 현상 파악
분야별 진단 실시	리더십, 조직, 실행, ILS 분야, 12 Element 별 Rating
변화관리	주요 지적사항 개선 여부, VOC 청취 및 조언
변화관리 재진단	

* 진단실적 : 2012년 (직원 11사, 계열사 10사, 외주사 26사)

PSRS 진단 체계

12개 진단 구성 요소



변화관리 (Change Management)

글로벌 수준의 안전 경영 실현

안전

안전행동 관찰 (SAO, Safety Acts Observation)

안전행동관찰(SAO)는 직책보임자가 현장에서 작업자와의 대화로 안전한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개선점이나 불안정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현장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해 주는 안전제도입니다.

설비안전체계 구축

설비투자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설비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사람의 실수 또는 설비 고장의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시 안전시설물이 누락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설치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설계기준을 표준화 하였으며 이러한 개선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혁신

포스코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입문, 리더십, 전문가 과정 등 계층별 36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매트릭스를 정립하여 모든 직원이 안전을 위한 필수 역량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계층 간 의사소통과 변화관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장과 전시관, 4D 영상관 및 체험실습실을 완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포스코패밀리는 물론,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마인드를 확산하고 포스코의 안전활동이 자기사랑, 동료사랑의 차원을 넘어 가족사랑, 회사사랑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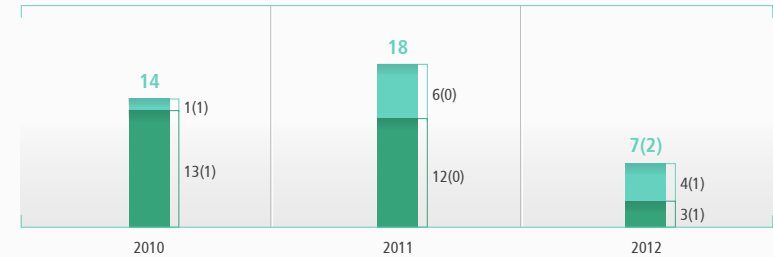
포스코는 이러한 첨단 교육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기준의 준수 문화를 구축하고, 체질화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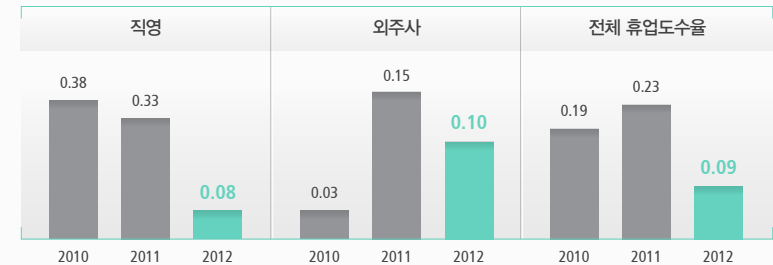
중대 재해

-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재해 건수 ● 직영 ● 외주사 단위: 건 (괄호 안은 사망 건수)



휴업도수율



* 휴업도수율 = (휴업 재해 건수/연 근로시간) X 100만 시간

안전

Fun Safety Smart 시스템

스마트폰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위험 (Hazard) 정보 공유를 통한 Smart and Fun Safety를 구현하여 안전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Fun Safety 시스템 개발

스마트폰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 아카데미



증강현실
현실 환경에 부가 정보 등의 가상 환경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 연도별 건강 신호등, 건강위험 주요요인, 질환별 건강위험도, 건강 이상정보 및 수준, 병원정보 제공

위험예지시스템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기술 기반의 위험예지 시스템을 통해 공장 내 각종 위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가스 누출 알람 및 위험(Hazard) 근접 알람 기능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MART 기반 위험예지시스템



SYSTEM

주요기능



SMART PHONE



PC



영상 모드 위험 정보 제공



지도 모드 위험 정보 제공



위험 내비게이션 기능



위험 근접 알람 기능



가스 누출알람 기능



위험별 상세 검색 기능



위험 현장 직접 등록 기능

보건

직원건강관리 체계

직원들의 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결과를 기록하고 누적 관리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진자료에 근거하여 산업의학전문과의 건강상담이 진행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이습관 및 운동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처방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정보 교육과 주기적인 검사를 제공받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실과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이상 이 발견된 직원을 위해서는 질병 악화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추적/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외에도 현대인의 최대 사망원인인 암 발견을 위해 자체 암표지자 검사(4종)와 사외위탁 암 검진(12종) 제도를 갖추고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형관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체형분석기, 디스크 감압치료기, 디스크 재활치료기 등의 시설을 갖춘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강 실천 가이드

금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환경적 이득이 많은 금연 · 대체 방안 활용: 캔디, 비타민 등 기호식품 · 흡연의 폐해(각종 질환의 원인, 스트레스 증가 등) 자각!
건강음주(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1가지 술로, 1차만, 9시 전에) 운동 실천 · 주량은 능력이 아님! · 과음의 폐해(두통, 간암, 비만, 안전사고 등) 상기
다이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I 지수 25이상일 경우, 다이어트 실시 · 식사량은 약 2,500kcal/일! 운동은 주 2회(20분/회) 이상 · 하루 세 끼, 저칼로리 음식을 소량으로!
저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절임, 가공식품, 인스턴트, 외식은 피하기 · 조림 보다는 구이, 튀김 보다는 찜, 찌개 보다는 국으로! · 조리된 음식은 추가적으로 더 넣지 않기

BMI 비만 지표로 통용되는 체질량 지수

건강증진운동

포스코는 직원의 건강이 행복한 일터의 원천이자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금연, 건전 음주, 비만저감, 저염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래로 전 직원 금연을 통해 금연 제철소 건설을 선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포스코 패밀리 전체가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원사랑, 가족사랑의 금연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은 100%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통해 직원 건강과 가족 행복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출범한 6대 노경협회의의 첫 캠페인으로 '술잔 안 돌리기, 음주 강요 안 하기, 늦지 않게 귀가하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회식 문화도 단순한 음주 위주에서 벗어나 맛집탐방, 체육/문화 행사 관람 등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생활 8주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걷기 캠페인, 건강식단 개발, 자전거타기 운동 등 다양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운동실천의 생활화와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MI* 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임직원 모두가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특성 상 하루 소금 섭취량이 많아 고혈압,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성인병의 근본 원인인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염식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

산업위생관리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작업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모두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구 사용의 불편사항을 보호구 제조사와 협의하여 편리함과 성능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작업환경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과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등의 보건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기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제도(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노동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와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직원의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산업보건'을 주제로 한 e-러닝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는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관리 개선, 건강장애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 등을 포함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패밀리사 확대

포스코는 포스코 직원들에게만 허용하던 사내 의료실인 건강증진센터 이용을 2011년 9월(포항), 2012년 1월(광양)부터 포스코패밀리로 확대하였습니다. 인력 충원, 시설 증축을 통해 확대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철소에 출입하는 66개 패밀리사 및 외주사 직원이 포스코 전액 비용 부담으로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 상담

직원들의 행복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직원가족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결과에 따라 정신과의사의 정밀상담, 약물투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외 정신과 병원과 연계하여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심리상담사 주관 하에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걷고 싶은 계단 조성

바쁜 일상 중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생활 속 운동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단을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울 포스코센터 비상계단을 꾸며 '걷고 싶은 계단'으로 조성했습니다.

계단에는 운동을 독려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단순한 오르내리기의 지루함을 개선하는 한편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운동량을 측정하고 목표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모되는 칼로리 숫자를 계단에 적어 계단을 통해 운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

- 광양제철소 건강증진센터 증축(2,032m²규모,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일 100여명 이용
- 포항제철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2013년 계획 및 목표

직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이상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간호사제도를 시행하고, 금연, 건전음주, 비만저감, 저염식의 4대 실천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직원 계도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증진활동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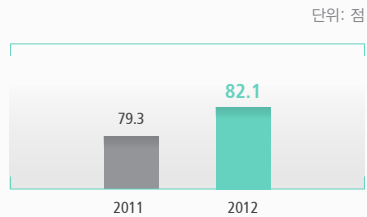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임직원은 포스코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임직원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며 그들의 니즈에 귀 기울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체계, 합당한 보상 체계, 복리후생제도 등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포스코패밀리의 경쟁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는 임직원의 안전 보건과 인권 보장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행복지수

포스코는 2011년부터 '직원의 행복'이라는 최신 HR트렌드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2.8점이 향상된 82.1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정년연장,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내의사소통과 개방성, 리더십 측면에서 큰 폭의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세대 다양성을 고려한 계층별 케어 활동,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문화개선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 사용되던 성과물입도는 폐지되고 2011년부터 행복지수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신뢰/소통

직원 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는 노경협의회가 있으며, 영보드, 주니어보드와 같은 소통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인 포스코&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부터 스마트리더십을 도입하여 리더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

포스코는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임직원에게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듣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11월 17일 출범된 직원대표기구로 근로자위원과 경영자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임금, 근무제도,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 전사적 관심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회의의 참석, 경영총과 근로자위원 간 정기 및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분기마다 기초위원을 대상으로 회사경영 현황 및 정책관련 설명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산하에 제철소협의회 및 그 아래 부문, 부-실, 과-공장 협의회가 있으며, 과-공장협의회는 노경협의회의 최소 조직단위로 374명의 기초위원들이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산하 각급 협의회에서 건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매분기말에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직원과 회사의 공동발전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직원 대의기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복수년 임금협의(2012~2013년), 1%기부 사랑나눔 운동 등을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사와 직원 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경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2013년 현재 6대 위원들의 경우, 2012년 10월에 선출되어 2015년 11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 영보드

영보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 전략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경영층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1999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출자사 직원들까지 확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포스코패밀리로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 영보드는 '[溫故而知新] Review the Young Board's proposals to create other values',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주인의식 활성화 방안', 'SNS 활성화를 위해 직원,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 '수익성 향상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 주니어보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니어보드는 영보드와 달리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견 개진 전달 기구입니다. 부문 차원에서 조직간 벽을 넘어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니어보드의 역할입니다.

2012년 하반기 부터는 과제중심 운영의 탈피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주니어보드들에게 소통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력자, 촉진자)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였으며, 부문 내 소통활동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통활동은 담당 부문장과 젊은 직원들 간의 반기당 1회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2년 하반기에는 총 9개 부문 주니어보드에서 자율적으로 테마를 정해 토론 방식이 아닌 문화행사, 간담회 등의 형태로 부문장과 소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스마트리더십 추진

포스코는 소통하는 리더십을 통해 보다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2012년 8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지수* 조사에서 임직원 약 85%가 리더의 변화가 스마트 워크 정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워크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변화를 위해 스마트 리더십을 시행했습니다. 스마트 리더십이란 리더들의 주요 역할인 지시, 보고, 소통, 업무 수행, 실행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스마트 리더 실천 약속'에 대한 서명을 받고, 스마트 리더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리더 계층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리더십 행동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스마트 리더십 실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지수

회의보고문화에 대한 직원 체감 지수로 회의보고문화의 개선 방향에 대해 21개 문항으로 포스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행복한 일터 만들기

보상과 복리후생

포스코 임금체계의 특징은 직원개인별 근속, 성과 및 회사 경영성과 등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시켜 직원들의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차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금제도를 통해 원가절감 실적,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경영성과를 제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금을 결정하는 사례와 비교하여 노사 간의 갈등요인이 적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존의 고정성 상여금 연 400%를 변동성 경영성과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녀장학금 지급, 선택형 복리후생 운영, 경조금 지급, 장애인 가족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사내외 휴양시설, 직원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등 각종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보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사내휴양시설로써 고흥수련관을 개관하였으며, 월포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선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십억 원

	2010	2011	2012
출연금액	59.3	62.1	59.1
출연누계	695.1	757.2	816.3

선진 임금협상 패러다임 '복수년 임금협'의

다년 임금협약이란 한번의 노사협의로 2년 이상의 임금인상분을 결정하는 협상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방식인 단년 임금협약은 매년 소모적인 노사협의의 반복으로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스코 노사는 2012년과 2013년 기본임금 인상분을 한번에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복수년 임금협의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는 2007년,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복수년 임금협의를 도입하여 2007년, 2010년, 2012년까지 모두 세차례의 복수년 임금협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포스코 이외에도 총 25개 계열사에서도 복수년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복수년 임금협의 방식이 포스코패밀리 고유의 노사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철강업계의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년 임금협의 방식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매년 반복적인 노사협의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사공동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포스코의 이러한 노사문화 선진화 노력은 국내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임금협의 문화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포스코 채용 시스템

포스코의 채용 시스템은 입사 지원 시 학력, 연령 및 국적 제한을 폐지한 '열린 채용'을 지향합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구조적 선발 기법'이라는 선진화된 채용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선발 기법'은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라는 역량 평가 방식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면접 기법을 활용해 지원자의 분석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포스코는 지원자가 갖춘 현재 능력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채용 1년 전 포스코의 가치와 인재상, 채용 시 우대사항 등을 사전공고하여 포스코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채용 활동

2012년 포스코는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성공신화를 이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스코는 먼저 학부 2학년 재학생 가운데 'POSCO Scholarship'을 선발하여 문·리(文·理) 통섭 과목 수강, 인턴 실습, 글로벌 연수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통섭형 인재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점 지역 유학생을 비롯해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도 채용함으로써 어학 능력과 타문화 이해력 등이 뛰어난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포스코는 스펙중심의 채용 방식을 벗어난 특별전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명특허보유자(창의), 벤처창업경험자(도전정신), 다국어 구사자(글로벌), 저소득층(상생)가치에 부합하는 지원자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인재선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력 통계

	2010	2011	2012
포함(명)	8,318	6,638	6,521
광양(명)	6,394	6,254	6,217
본사/기술연구원/사무소/기타(명)	2,186	4,661	4,885
직원수(명)	16,898	17,553	17,623
연봉계약직(명)	84	49	62
채용(명)	913	992	818
이직률(%)	5.58	2.94	5.85
퇴직(명)	923	496	1,029
정년퇴직(명)	566	1	654
여직원(명)	570	624	702
(비율, %)	3.4	3.6	3.98
매니저(G10)* 이상 여직원(명)	101	105	146
장애인(명)	405	445	474
(비율, %)		2.3	2.5
(포스코)	234	253	254
(포스위드)	171	192	220
육아휴직 사용자(명)**	19(5.2월)	22(2.6월)	61(4.9월)
출산휴가 사용자(명)**	24(79일)	15(75.4일)	56(71.3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명)	461	244	532

* 과거 직급 체계에 따르면 G10은 과장을 의미(2011년부터 직급 체계 변경) ** 괄호는 인당 평균 사용 일수

채용정보 더 알아보기

글로벌 인재육성

인재 육성 체계

포스코는 회사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가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구성원들이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여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직무별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년 퇴직 예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들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분야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 사업으로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등 포스코패밀리 직원들의 동반 역량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신입사원 역량개발

포스코 신입사원 교육은 글로벌 포스코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 공유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부터 입사 후 3년까지 '교육-OJT-과제수행' 등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조기 배양하고, 입사 3년 내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e-러닝을 통해 학습하고, 입사 후 신입사원들은 포스코 그룹 입문교육과 포스코 자체 도입교육을 거쳐, 포스코 정신과 조직문화를 배우며 포스코인으로서는 첫 발을 내딛게 하고 있습니다. 현업 배치 전 4개월간 사무, 기술 부문간 문리통섭 교육을 받고, 배치 후 6개월간은 OJT, 현업 개선과제, 연구논문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합니다.

신입사원 역량 개발 지원 체계

입사 전: 4주 E-러닝 학습, 입사 후: 3주 그룹 입문 교육 · 1주 포스코 도입 교육

1단계 (현장 문리 통섭 교육 6개월·26주)

기술: 4주 기초 기술 · 14주 조업기술(선강 7주/압연 7주) · 5주 정비 교육 · 2주 문리 통섭 · 1주 GB 교육
사무: 4주 기초 기술 · 6주 생산 공정 이해 · 8주 제품 이해 · 7주 조업 현장 체험 · 1주 GB 교육

2단계(1년 6개월)

2일 멘토링 교육 · 6개월 현업+OJT · 3일 주니어 리더십 캠프 · 1년 현업+개선 과제 수행

3단계 현업/연구 논문 작성(1년)

1년 현업+연구 논문작성 · 2일 그룹 MT · 2일 주니어 컨퍼런스

●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포스코는 끊임 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직책자 필수교육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거쳐 리더십이 검증된 인재가 직책에 보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통섭적 지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 시각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전략대학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사업 발굴형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해결형 액션러닝으로 과제를 해결하게 하여 경영자 관점에서 제시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현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대 글로벌 Mini-MBA를 통해 전문지식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임직원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을 위해 임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 리더계층 영어 합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 나갈 주재원들의 상위직 역할 수행 및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수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 주재원 파견 전/파견 중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견 직원의 배우자 동반 참석 교육을 도입하여 주재원 가족까지도 파견지에 조기 적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법인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도 비전, 핵심가치, 혁신활동 등 포스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모범사원 교육'은 법인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포스코 정신 및 제철소 견학을 통해 포스코패밀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의 사내강사 및 교육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포스코 문화혁신가(POSCO Culture Innovator)'과정 및 포스코의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체화된 현지인 리더를 부장급 직책에 보임 시키기 위한 부장 양성과정(G-JEDP, Global Junior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포스코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한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책보임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함께 '창조경영', '열린경영'에 부응하는 통섭역량 배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하여 트리즈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즈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는 모순을 체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들과 다릅니다. 트리즈 대학 내 트리즈 레벨 1부터 3까지의 단계별 자격을 두어 직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준별 전문성을 강화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핵심가치 공유 및 현장 관리자 리더십교육

긍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하기 위해 현장 직책보임자를 대상으로 신뢰·소통 리더십과 원가마인드·수익성 제고 교육을 제공하여 경영자적 마인드 함양과 조직 안정화를 추구 하였습니다. 현장의 정년퇴직 예정자 등 고용형태의 변화가 예정된 직원들에게는 변화관리교육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의 비전을 한 방향으로 집결 시키고자 포스코 정신, 핵심가치, 경영철학 등 포스코 가치(Value)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포스코패밀리 가치 핸드북'을 발간하고, 밸류 캠프(Value Camp)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포스코 및 전 계열사의 일반 직원 24,000명을 대상으로 경영철학 전파, 핵심가치 내재화, 그리고 글로벌 경영위기와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경영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체계

● 포스코패밀리 교육의 내실 강화

포스코패밀리의 교육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룹공동교육과 패밀리 교육을 명확히 정의하였고, 경영전략과 HRD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패밀리사에 HRD 인력을 포스코에 파견 받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중소 규모 패밀리사로 확대하였습니다. 패밀리 HRD 부서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 부서장, 실무자 등 계층별 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도형 학습 체제 정착

포스코에서는 2000년부터 e-러닝을 도입하여 직원 자기주도형 학습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 주관 e-러닝 최우수기관에 6년 연속 선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2011년에는 e-러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직원 스스로 자신의 연간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870여 과정을 개설하여 20만명이 넘는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e-러닝은 IT를 기반으로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u러닝을 도입하고 3,700여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진정한 'Anytime, Anywhere' 교육을 구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교육분야에서는 선두적으로 G러닝을 도입하여 스마트폰 액션형 게임을 통한 기업윤리 학습과 롤플레이팅(Role Playing)형 PC게임을 통한 정보보호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직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회사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즐겁게 게임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업무 노하우를 UCC로 제작하여 사내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업무와 학습이 자연스럽게 병행되는 모습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 혁신가속화를 위한 혁신교육 내실화

포스코는 1999년 PI(Process Innovation)를 시작으로 2005년 6시그마 도입을 통한 혁신 인재양성 및 과제 수행, 2006년 포스코형 6시그마* 개발·운영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혁신리더 양성을 목표로 MBB, BB 및 GB 양성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BI(Breakthrough Innovation), CI(Continuous Improvement), PO(Process Optimization) 활동과 더불어 혁신역량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설비를 스스로 보전하는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Operator)' 양성을 위해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QSS 개선리더 및 현장개선 전문컨설팅 인력인 QSS 마스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의식교육의 장점과 포스코 고유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

구분	2010	2011	2012	비 고
교육인원(명)	487,968	530,086	432,859	집합교육(미래창조아카데미, 현업주관, 평생학습, 사외위탁), e-러닝교육 기준
인당교육시간(Hr)	243	252	234	
학습자만족도*(점)	4.42	4.47	4.48	

2012년도 직책별 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부실장	팀리더	파트장	주임	일반
178	198	206	238	222

포스코형 6시그마

전통적인 6시그마와 함께 QSS(Quick Six Sigma) 및 업무표준을 융합시킨 포스코 고유의 경영혁신 모델

학습자만족도

미래창조아카데미 주관 집합과정 및 e-러닝과정을 대상으로 학습내용, 학습방법, 강사스킬 등에 대한 학습자 만족 정도



주재원 양성 과정에 참여한 직원

다양성 존중 여성을 위한 근무환경

근무환경 개선



포스코는 여직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직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의 다양성을 키웁니다. 특히 보육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여직원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보육 문제 해결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 고용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여유(女幼) 공간	수유실 기능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인 여유 공간을 두어 여성 인력, 특히 임신부가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	법률로 정한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성장 지원	여성 멘토링데이 여직원과 롤모델의 교류를 통해 여성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항, 광양, 서울 각 지역별로 멘토링데이를 진행합니다.
사외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여직원의 사외 네트워킹을 독려하고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사외 포럼, 워크숍 등의 참석을 지원합니다.
여직원간의 소통 채널	사내 온라인 학습동아리 "Women Leadership"을 운영하여 여직원 간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용

포스코는 대졸 공채시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없으며, 여성인력의 채용목표를 일 정비율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대졸공채시 여성인력 채용을 20% 수준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3년 연봉제 사원 여성인력 채용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여성 엔지니어의 수가 적은 것과 관련하여 여군장교채용을 비롯해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용설명회 시, 여직원을 활용하여 대졸 여성인력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이공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면접관을 적극적으로 양성(現 여성 평가사 17명)하고 있으며, 면접관 구성 시에도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보직/육성

포스코는 직원 보직판단 및 육성에 있어서도 남녀간 차별이 없는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제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소 여성 제철소장 배출을 목표로 이공계 전공 여직원을 현장 조 업부서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신입사원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인력 CDP(Career Development Plan, 커리어개발계획) 제시를 통해 미래 커리어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육성 하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 작업장 위험 요인 제거

재해 현황 분석 결과, 작업현장에 에너지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포스코패밀리는 안전재해 제로를 위해 작업현장의 위험점(Hazard Point) 제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포스코패밀리는 설비의 에너지원을 사전에 차단 격리, 잠금을 통해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정지중 설비 ILS(Isolation Locking System)', 조업중 설비 출입으로 인한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가동중 설비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 중 설비 ILS(Isolation Locking System)는 현장의 재해원인이 되는 에너지원을 사전 차단 격리(Isolation)하고 잠금(Locking)하는 것입니다. 설비 정비/수리 작업 시 설비가 가동이 되면 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작스런 설비 가동을 막고, 다른 작업자가 인지를 못해 설비를 가동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에 에너지원을 차단합니다. 포스코는 설비 위험 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합니다.

"가동 중 설비 출입관리시스템"은 가동 설비 출입 시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동 중인 설비에 임의로 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설비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위험요소별 Level 1,2,3로 구분하여 위험요인이 매우 높은 개소는 Level 1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열리면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단위: 건

안전시설물
40,000

고위험 수작업 개선
800

또한 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보완 활동으로 협착, 물림, 끼임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회전체를 방호 커버로 막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고위험 수작업 대상을 발굴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Level 1 개소
2,127 (20%)

Level 2 개소
1,215 (14%)

Level 3 개소
3,178 (66%)

01 사회 SOCIETY



CONTENTS

사회공헌체계 ·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글로벌 인재 · 다문화 지원 사업
클린오션봉사단 · 아프리카 사회공헌 활동
희망일자리 창출



||
PAGES

CR본부장 부사장 황은연

포스코는 사회,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며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시너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를 포함한 패밀리 전체의 CSR 수준 제고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체계

새로운 사회공헌비전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FOR A BETTER WORLD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비전 2020 슬로건

포스코패밀리는 창립 초기부터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를 사명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패밀리 경영에 따라 포스코패밀리의 시너지를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포스코패밀리 사회공헌 체계를 재편하였습니다. 이를 담은 포스코패밀리 사회공헌의 새로운 가치인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는 글로벌인재, 다문화, 지역사회, 지구환경, 문화유산의 5가지 중점영역에 집중합니다.

posco Family



전략방향

COLLABORATION 정부 · 전문 NGO · 언론기관과 협동을 강화하는 방향성 공유
BUSINESS ORIENTED 각 사별 핵심역량 및 사업의 특성과 연계성 강화
BIG DIFFERENCE 타 회사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 명품 브랜드 프로그램화

중점영역

- 글로벌인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
청임재단, 포스텍, 교육재단, 주니어공학교실, 학교폭력예방, 글로벌 청년봉사단
- 다문화** 미리 준비하는 다문화사회 및 글로벌화
다문화카페 아시아 지원, 모국어 강사요원 양성, 엄마나라말 교육지원, 다문화가족포럼, 다문화 결혼식, 다누리콜센터
- 지역사회**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자립/상생모델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진출지역 사회공헌, 긴급구호, 글로벌볼런티어워크, 해외 거점별 사회공헌활동
- 지구환경** 지구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한 사회변화 주도
클린오션봉사단, 주택에너지 효율' 지원사업, 그린워크 캠페인
- 문화유산** 선인의 지혜와 사상에서 미래의 전략적 해안을
포스코 음악회, 포스코 미술관, 철강기술 활용한 문화재 복원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 기탁금액 (1998~2012) **859.5** 억 원

2012년 사회공헌 비용

사회복지

체육문화

인재양성

자원봉사

919 억 원

311
34%

47
5%

538
58%

2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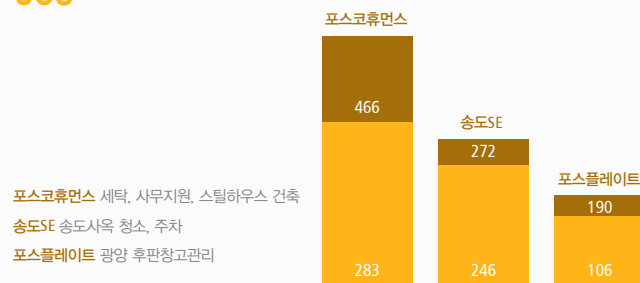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2012 포스코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 취약계층 ● 총인원

단위: 명

635



2012 기타 일자리 창출

125

간병인, 면사랑, 예코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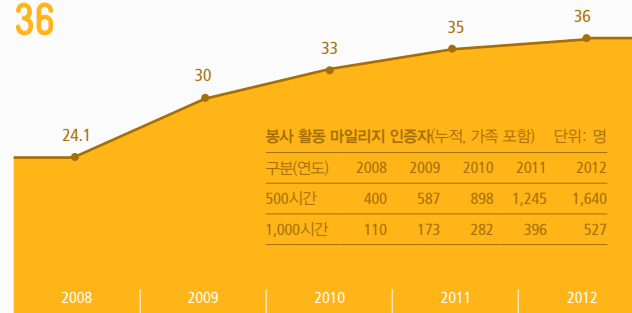


직원 나눔 활동

2012 자원 봉사 활동

36

단위: 시간



Global Volunteer Week Save Our Planet and Neighborhood

37개국 7만 6천여명의 임직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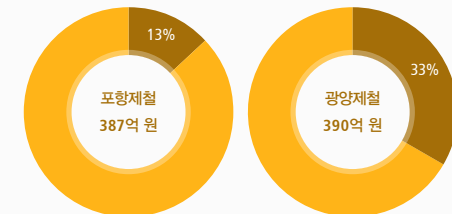


지역 사회 기여

2012 지방세 납부 현황

777

● 전체 지방세액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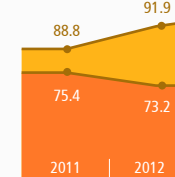


지역사회 기부 포스코 패밀리 37개사 임원, 부장 **947명** 회사 매칭기금을 포함 12년말 기준 **14.5억**

2012 자매결연 현황

240

지역 호감도



구분	결연현황				결연율 (%)		
	마을	학교	단체	계	마을주민	인구대비	행정대비
포항	119	-	6	125	422,489	81.0	30.0
광양	89	14	12	115	36,992	26.4	31.8
계	208	14	18	240	459,481		

* 포항시 인구: 518,908명 / 광양시 인구: 152,227('12.12/E)

- 포항 지역 호감도 포스코에 대한 호감도 및 지역협력 사업 성과 분석 (포항대학, 포항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 설문조사)
- 광양 지역 호감도 지역협력 사업평가 호감도 조사 연구 (순천대, 광양거주 남녀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글로벌 인재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 가장 변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교 폭력과 성적 위주의 교과과정에서 방황하는 한국 청소년과 다양한 스펙썬기에만 열중하여 인성 교육, 가치관 정립과 같은 정서적인 학습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제철보국을 넘어 교육보국을 목표로 포스코는 청암재단을 통한 인재 지원과 포스텍(포항공대), 교육재단 운영을 통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리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감과 나눔의 경험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과학 인재

포스텍, 주니어공학교실

지역 인재

포스코 교육재단,
학교폭력 예방사업

나눔 인재

글로벌 청년 봉사단
(비온드)

글로벌 인재

아시아펠로우십
(청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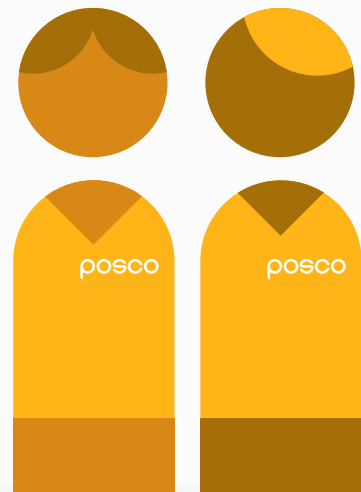
글로벌 청년 봉사단(Beyond)

대학생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으로 많이 경험하고 더불어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07년 '포스코 글로벌 청년 봉사단-Beyond'를 창단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600명의 전국 대학생이 선발되어 국내 집짓기 봉사 및 다양한 봉사 체험 및 플래시몹을 통한 일반 시민 모금활동 등을 펼치고 겨울에는 해외봉사를 위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집짓기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52개 대학에서 선발된 포스코 글로벌 청년 봉사단-Beyond 6기 100명이 다양한 국내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2월에는 인도 델리 북부의 빈민촌인 바와나(Bawana) 마을에서 건축봉사와 문화교류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2013년 7기 모집을 앞두고 있는 비온드는 한국 학생이라는 틀을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글로벌 공동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해외 집짓기 봉사활동 모습



글로벌 인재

학교폭력예방사업,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학교폭력문제입니다. 특히, 중학생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포스코는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한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사업은 친한 친구들(친친)이 누구나 평등하게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와이파이존에서처럼 즐겁게 소통하는 학교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만들기 캠페인입니다. 더 이상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학생과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와 기업, 학부모,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제 예방적 접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2012년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국(서울, 포항, 광양, 수원, 진주) 5개 중학교에서 1,410명의 학생들과 687명의 교사 및 학부모가 대안만들기에 참여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서울, 포항, 광양, 수원, 인천, 안산) 7개 중학교에서 2,065명의 학생과 1,045명의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친친와이파이존 TV광고

주요 프로그램

1. 선생님들을 위한 힐링과 배움의 시간 (교사워크숍)
2. 학부모를 위한 공개강좌와 대안을 나누는 시간 (희망과 상상콘서트)
3. 학생들이 즐기는 공감의 수업 시간 (공감 프로그램)
'나라는 친구', '너라는 배려', '우리라는 공감'의 3가지 축으로 인지와 정서, 표현요소를 중심으로구성 된 8~12회기 프로그램
4.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시간 (공간바꾸기/학교축제)
5. 먼나라 이야기보다는 가까운 내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 만남의 시간 (꿈의 멘토링)

친친와이파이존의 활동 및 성과

포스코는

01. 창의 수업 포스코 트리즈 기법을 활용, 놀이 교육으로 친구 사이 공감
02. 공간 바꾸기 포스코A&C의 디자인 역량 활용으로 딱딱한 분위기 탈피
03. 꿈의 멘토링 포스코 직원의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학생들은

평소에 말 못했던 것 적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터뜨리고 하나가 재미있고... 속 시원하고 후련했어요

폭력에 대한 연극을 하면서 그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친구를 알아가는 그런 느낌... 또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생각이요, 생각 자체가 일단 구체적이지 못 한데, TRIZ 활동에서 수레를 만들면서 이렇게도 수레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학교 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역할극 했던 게 그걸 하면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보면서 활동했던 게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조금 싸움이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싸우는 일도 많이 없어졌고, 티격태격 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지금은 잘 즐겁게 같이 지내며 놀고, 수업도 즐겁게 해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간 바꾸기

다문화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이 30만 가구에 이르는 오늘날, 다문화는 단연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코리안드림 등의 여파로 다문화가족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생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과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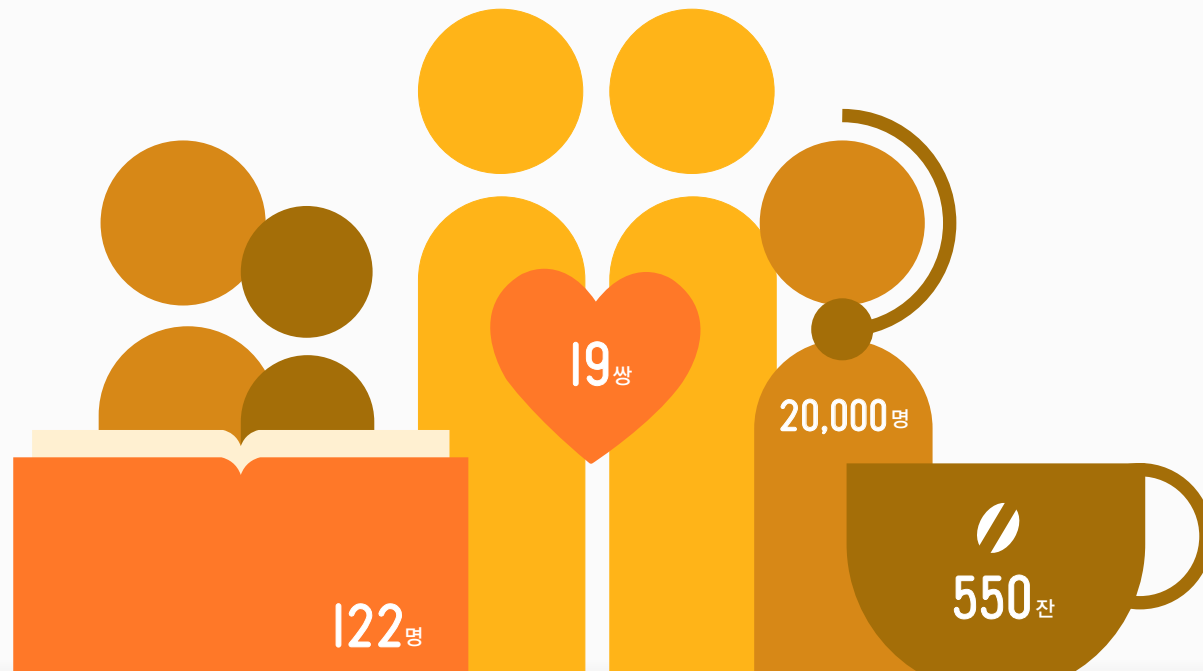
2020년에는 국내 다문화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다문화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다수가 포스코의 주요 진출 지역인 동남아 지역에서 왔다는 점에서 포스코는 활발한 다문화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결혼부터 자녀 교육까지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 총 19쌍 합동결혼식 진행(누적)

국제결혼으로 연을 맺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포스코와 강남구는 2010년부터 무료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서 겪었을 어려움과 혼란을 돌아보고, 애정과 신뢰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포스코는 사내 공간을 활용해 결혼식장으로 꾸미는 등 결혼식 전반의 과정을 운영하고, 멀리 타국에서 자녀의 소식을 궁금해할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 이용자 2만 명 이상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생활 초기 적응 단계에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포스코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내놓은 해답이 바로 '다누리콜센터'입니다. 2011년 개소한 다누리콜센터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전화 및 온라인상담을 지원합니다. 2012년에만 2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은 다누리콜센터는 생활상담에서 통번역, 법률상담서비스까지 일상 속 답답함과 고민을 해결해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또한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주여성을 상담원으로 채용하여 상담원 양성, 보수 교육을 지원하는 등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 사업

다문화카페 카페오아시아

일 평균 550잔 판매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서툰 한국어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생활,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에 그칠 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습니다. 포스코는 질 좋은 일자리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돕는 한편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카페오아시아'는 포스코와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SESNET)의 협업 하에 탄생하였습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적응에 뜻이 있는 카페들이 조합에 참여해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이주여성들을 카페 내 바리스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오아시아에서는 현재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으며 직영·가맹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이주여성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 이웃에게 당당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을 위한 다문화카페 오아시아의 바리스타인 반말리씨(왼쪽)와 안티카씨(오른쪽)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 이주여성 이중언어강사 양성

총 122명 강사 양성(누적)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가정의 경우, 말하기를 배우며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할 시기의 아이들이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해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적 측면에서 뒤처지기도 합니다. 아이와 쉽게 감정과 생각을 나누지 못하는 엄마 또한 아이에 대한 걱정을 비롯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엄마의 모국어를 적절히 잘 교육하고 활용할 경우, 다문화가정은 아이의 글로벌 역량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다문화가정의 이러한 가능성을 깨닫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 함께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영재교실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영재교실이란 다문화가정 아이에게 엄마(아빠) 나라 말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부모 간의 소통, 교감을 장려하는 한편 아이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하여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고 언어영재교실에 채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그 결과 2012년도까지 양성된 이중언어강사의 수는 중국어 강사 78명, 일본어 강사 23명, 베트남어 15명 등 총 122명이며 언어영재교실 수강생은 5,700여 명에 달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양성을 통해 아이들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고, 이주여성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당당한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포스코패밀리가 급여의 1%를 기부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오션봉사단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이에 넓은 바다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는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 각종 쓰레기 등의 폐기물로 망들고 있습니다. 또한, UN과 국제해양기구에서 지정한 유해생물인 아무르불가사리가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불가사리가 어패류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양식장을 파괴하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 등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해 포스코는 제철소를 바다 인접 지역에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입해제철소라는 입지 특성에 따라 바다와 지역어민들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포스코는 해양 보호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스킨스쿠바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직원들의 역량을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킨스쿠바 전문 봉사단인 클린오션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90여명으로 창단한 클린오션봉사단은 신입회원 육성,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현재는 총 702명이 넘는 대형 봉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역별 정기 봉사활동과 클린오션 봉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연합봉사와 함께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의 주요 행사로 해양 정화 활동을 개최하며 지역의 바다정화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1년 클린오션봉사단은 포스코의 패밀리 경영방침에 발맞춰 봉사단을 패밀리사로 확대했습니다.

2012년에는 포항, 광양, 서울 클린오션봉사단에 이어 인천 클린오션봉사단을 창단하여 인천 지역의 포스코패밀리를 중심으로 서해 정화 활동도 본격 가동했습니다. 또한, 창원의 포스코 특수강을 중심으로 창원 클린오션봉사단이 창단됐습니다.

2012년 한 해동안 70회 봉사활동에 총 2,507명이 참여하여 해양 폐기물, 불가사리 등 총 269톤을 해양에서 수거했습니다. 2013년에는 봉사단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 및 스쿠바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포스코 대표 전문봉사단으로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클린오션봉사단의 한강 수중 봉사활동 모습

포스코패밀리 클린오션 봉사단 현황 (2012년 12월 말 현재(누적 실적))

구분	봉사단(명)	활동횟수	참여인원	수거실적(톤)
포항	410	129	6,525	300
광양	포스코 등 104	41	2,521	262
서울	70	12	405	27
경기	23	7	44	1
인천	건설	35	59	7
	에너지	10	24	
	엔지니어링	12	26	
	AST	5	9	
창원	특수강	33	105	2
계	702	194	9,718	599

아프리카 사회공헌 활동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UN 새천년개발계획*의 8대 목표에 아프리카가 모두 당면한 중요과제를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기근해소를 기반으로 건강한 지역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지역의 자생력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육성을 통한 자생력 증진은 포스코가 설립과 함께 추구해온 경영 방침입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설립될 당시 두 도시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역협력과 동반성장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이에 포항과 광양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포스코의 성공사례를 실현시키기 위해 포스코는 먼저 새천년개발계획의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와 보편 초등 교육 실현에 포스코가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의 개발 가능성과 필요성이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농업훈련원을 설립하여 현지에 맞는 영농지도자를 배출하여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및 지역농장, 에이즈 환자 전용 농장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이 수반되어 진행됩니다.

모잠비크 마니샤 지역의 영농지원센터에서는 2012년 50명의 영농지도자와 50명의 지역주민 농업 전문가가 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습한 영농기술을 지역에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현재 2기 입학생 29명이 영농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1년간 학습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니샤 지역 인근의 갈대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급식 및 문맹퇴치 교실을 운영하여 80%가 포르투갈어 시험에 통과하여 지역평균 50%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농업훈련원에서도 2013년 현재 영농지도자 40명을 전국에서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지역 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에이즈 환자 자활 농장을 만들어 100명에게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훈련원 바로 옆에는 포스코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에이즈 아동을 포함 만 3세에서 5세사이 총 80명의 아이들이 매년 교육 및 기초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포스코패밀리 840여명이 인당 1~3만 원씩 기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과 사랑의 메세지를 통한 마음 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아프리카 사업은 포스코의 지역개발 의지와 에코팜 등의 농업기술 연구 경험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개발 전문성과 관심, 기아대책의 국제사업 경험과 아동개발 전문성 등이 합쳐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 초기부터 지역정부에게 농장 무상임대를 받고, 커리큘럼에 현지 농업 전문가를 초빙하고, 졸업생 관리를 위해 현지 청소년국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현지정부의 참여를 통해 그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에디오피아에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5개년 새마을 사업(2011~2015)을 통해 의식개혁과 자립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농지도자 양성은 아프리카 현지에 적합한 슈퍼옥수수 개발 연구와 병행되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UN 새천년개발계획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인 약속.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

아프리카 사회공헌 활동



농업훈련원 졸업생 넬슨



농업훈련원 졸업생 데이지



한국 방문 학생 알베르루(남자), 에스페란사(여자)

모잠비크 농업훈련원 1년 정규과정 졸업생 인터뷰

01. 농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모잠비크에는 배움의 장이 없거나, 있다면 돈을 많이 내야 하기에 모두들 배움에 대한 갈망이 항상 가득해요. 그러던 중에 새마을 농업훈련원의 광고와 소식을 보고 듣게 되었고 농업과 축산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농업훈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02. 농업훈련원을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지

먼저 일을 구해서 자영업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우리가 배운 기술들을 활용하고 적용시키고 싶어요. 나중에는 훈련원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으로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03. 농업훈련원에 입학하기 전과 현재 졸업하고 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들어오기 전 저희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워 나갔고, 자영업업을 할 수 있는 경영노하우도 배웠기에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 새로운 농업훈련원 입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새로운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노동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꿈을 꾸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인내심을 갖고 생활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인생의 첫 날이라 생각하는 마음가짐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방문 학생을 인터뷰

2012년 8월 20일~29일 한국 방문, 에코팜 및 포항제철소 등 견학

01. 한국을 방문해서 했던 일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무척이나 기억납니다. 포스코를 방문하여 에코팜에서 여러 수업을 받고 소와 돼지 농장, 벼 재배지 등 저희가 가서 배운 모든 곳이 다 기억에 납니다.

02. 한국과 포스코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외국으로의 첫 여정 장소가 한국이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고 기회를 주신 포스코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의 농업에 관련된 많은 곳을 방문하고 보고 느끼게 해주고 한국 최대 철강회사에 방문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03. 한국에 방문했던 경험이 모잠비크에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정신 또한 변했습니다.

희망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서 서비스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희망일자리 창출

희망일자리

1,174명

운영

포스코휴먼스, 포스플레이트, 송도에스이
취약계층 고용률 68.4%=635명/928명

68.4%

지원

1사 1사회적기업 구매, 은평구 사회적기업 지원, 정부의 사회적기업펀드 조성 참여, 다문화가족 사회회적 기업설립 지원, 다문화가족 프랜차이즈 지원, 미소금융(창업지원) · 기타 일자리 창출(간병인, 면사랑, 예코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125명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희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지속적 성장에 이르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에 포스코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포스코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포항에 포스에코하우징, 광양에 포스플레이트, 인천에 송도에스이를 각각 설립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이어받은 포스코형 사회적기업은 이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며 자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사회적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2011년 포스코패밀리 17개사를 시작으로 2012년 총 25개사가 1사 1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우선 구매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사회적기업

포스코휴먼스

2013년 1월, 포스코 사내 사무 지원, 세탁, IT 및 통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위드와 친환경 스틸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포스에코하우징이 만나 포스코휴먼스가 출범했습니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두 사회적기업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뜻의 포스코휴먼스는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고용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휴먼스가 가진 스틸하우스 건축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의 집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펼쳐며 행복을 만드는 착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신후판 공장의 시편 가공, 제품 창고 관리 작업을 담당하는 포스플레이트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포스플레이트는 고용지원센터와 광양시 희망일자리 센터가 앞선하는 자격증 미취득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천정크레인 국가 기술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여 철강자식근로자를 육성합니다.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포스플레이트 직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크레인 운전, 밀링머신 작동, 중장비 운전 등 직무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2012년 포스코는 포스플레이트의 경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안정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포스플레이트의 자본 약 36%를 기아대책에 20%를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하여 자립을 가능케 했습니다.

송도에스이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는 2013년 현재 90%에 달하는 취약계층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도에스이는 인천 송도 지역에 설립된 포스코건설 사옥과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의 청소, 주차 관리 업무를 맡아 건물 전문 관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스이는 취약계층 고용뿐만 아니라 사내에 무료 청소실습교육장을 운영하여, 송도에스이 직원뿐 아니라 인천 지역 내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12년 말 포스코는 송도에스이의 지분을 한국YWCA와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에 각각 40%, 30%씩 기부하여 계열 보리를 실현해 자립시켰습니다. 이후 독립적인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송도에스이는 창출 이익을 인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부하는 등 선순환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1사 1사회적기업 지원

포스코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외에도 한국에는 수많은 사회적기업이 존재합니다. 포스코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희망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기업펀드 조성 참여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하지만 경영 인프라 및 내부 경영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사 1사회적기업 지원이란 포스코패밀리 1개사가 적어도 1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착한 구매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총 25개사가 참여하여, 7.5억 원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사회적기업 | 포스코휴먼스 | 포스플레이트 | 송도에스이 |

08 APPENDIX



CONTENTS
재무제표 · ESG Data Sheet · 검증보고서

+

10
PAGES

재무제표

제 45 기 2012.12.31 현재
제 44 기 2011.12.31 현재
제 43 기 2010.12.31 현재

연결 재무상태표

	2012년(제 45기)	2011년(제 44기)	2010년(제 43기)
자산총계	79,265,850,804,061	78,408,837,831,746	69,418,425,614,087
유동자산	31,566,116,094,575	33,556,910,427,302	27,672,376,831,498
현금및현금성자산	4,680,526,392,989	4,598,681,955,647	3,521,045,222,603
매출채권	11,037,973,270,858	11,450,515,069,895	9,219,010,833,817
기타금융자산	3,846,432,943,085	3,656,269,505,630	4,383,301,995,643
재고자산	10,584,645,685,380	12,283,643,559,852	9,559,206,377,711
당기법인세자산	17,167,422,298	18,621,093,635	17,654,434,428
매각예정자산	1,190,000,000	329,036,824,809	
기타유동자산	1,398,180,379,965	1,220,142,417,834	972,157,967,296
비유동자산	47,699,734,709,486	44,851,927,404,444	41,746,048,782,589
장기매출채권	142,204,422,240	183,061,234,383	273,622,104,540
기타금융자산	4,669,868,473,087	5,125,672,234,710	6,417,038,433,176
관계기업투자	3,039,261,200,729	3,831,658,647,591	3,306,424,877,642
투자부동산	521,191,094,091	527,532,692,971	493,364,520,877
유형자산	32,276,379,317,675	28,453,184,150,040	25,437,740,028,249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	5,662,360,480,458	5,244,928,270,686	4,619,169,229,623
이연법인세자산	994,683,876,452	855,603,443,294	538,876,350,060
기타비유동자산	393,785,844,754	630,286,730,769	659,813,238,422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URL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국문) <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영문) <http://goo.gl/kkWa2> 또는 <http://goo.gl/7IRIM>

단위 : 원

	2012년(제 45기)	2011년(제 44기)	2010년(제 43기)
부채총계	36,836,432,389,280	37,678,917,498,041	30,881,258,876,333
유동부채	19,775,000,575,320	19,605,356,852,425	18,276,776,977,623
매입채무	4,389,194,668,581	4,397,278,721,880	3,980,701,314,236
단기차입금	10,509,347,724,084	10,791,509,811,214	10,476,300,423,935
기타금융부채	1,927,645,179,925	1,811,189,999,348	1,520,876,819,917
당기법인세부채	559,328,071,201	509,709,016,812	779,018,238,398
매각예정자산에 직접 관련된 부채		226,607,095,740	
유동충당부채	77,830,590,735	69,431,672,708	63,808,797,372
기타유동부채	2,311,654,340,794	1,799,630,534,723	1,456,071,383,765
비유동부채	17,061,431,813,960	18,073,560,645,616	12,604,481,898,710
장기매입채무	2,592,747,718	382,832,168	378,052,160
장기차입금	14,412,084,583,629	16,020,207,496,328	10,663,940,617,385
기타금융부채	361,635,201,470	350,560,391,568	175,773,749,931
확정급여부채	345,688,340,728	340,467,261,708	503,125,994,735
이연법인세부채	1,461,518,676,249	1,168,096,948,746	1,028,727,818,017
비유동충당부채	100,098,422,807	109,342,997,350	152,149,451,898
기타비유동부채	377,813,841,359	84,502,717,748	80,386,214,584
부채와자본총계	79,265,850,804,061	78,408,837,831,746	69,418,425,614,08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9,454,142,456,236	38,356,349,823,912	36,575,685,242,125
자본금	482,403,125,000	482,403,125,000	482,403,125,000
자본잉여금	1,104,814,139,734	1,150,452,216,471	1,101,561,340,860
적립금	(88,149,568,821)	405,425,831,163	1,507,287,980,232
자기주식	(2,391,406,055,168)	(2,391,406,055,168)	(2,403,262,926,338)
이익잉여금	40,346,480,815,491	38,709,474,706,446	35,887,695,722,371
비지배지분	2,975,275,958,545	2,373,570,509,793	1,961,481,495,629
자본총계	42,429,418,414,781	40,729,920,333,705	38,537,166,737,754

재무제표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제 43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2012년(제 45기)	2011년(제 44기)	2010년(제 43기)
매출액	63,604,150,874,142	68,938,725,064,391	47,887,255,367,816
매출원가	(56,142,892,349,438)	(59,823,850,488,526)	(39,722,460,563,603)
매출총이익	7,461,258,524,704	9,114,874,575,865	8,164,794,804,213
관리비및판매비	(3,808,150,777,662)	(3,647,180,705,287)	(2,612,281,469,203)
일반관리비	(2,129,462,542,672)	(2,035,052,438,188)	(1,491,941,541,060)
판매및물류비	(1,678,688,234,990)	(1,612,128,267,099)	(1,120,339,928,143)
영업이익	3,653,107,747,042	5,467,693,870,578	5,552,513,335,010
지분법손익	(22,701,552,936)	50,569,198,857	182,657,130,528
금융손익	99,424,829,020	(676,275,674,152)	(349,053,810,099)
금융수익	2,897,062,589,985	3,190,419,470,475	1,738,803,797,029
금융비용	(2,797,637,760,965)	(3,866,695,144,627)	(2,087,857,607,128)
기타영업외손익	(361,344,562,571)	(59,592,503,196)	(118,993,264,448)
기타영업외수익	448,120,449,046	306,940,819,588	222,958,868,156
기타영업외비용	(809,465,011,617)	(366,533,322,784)	(341,952,132,604)

단위 : 원

	2012년(제 45기)	2011년(제 44기)	2010년(제 43기)
법인세차감전이익	3,368,486,460,555	4,782,394,892,087	5,267,123,390,991
법인세비용	(982,879,617,508)	(1,068,109,046,693)	(1,081,471,918,043)
당기순이익	2,385,606,843,047	3,714,285,845,394	4,185,651,472,948
기타포괄손익	(637,922,032,155)	(1,271,909,066,754)	579,789,190,269
지분법자본변동	(130,835,401,206)	(11,239,918,887)	(40,876,629,189)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1,471,250,455)	(1,231,757,867,795)	589,600,616,047
해외사업환산손익	(363,088,229,968)	1,665,890,568	183,190,179,139
보험수리적손익	(62,527,150,526)	(30,577,170,640)	(152,124,975,728)
총포괄이익	1,747,684,810,892	2,442,376,778,640	4,765,440,663,217
당기순이익의 귀속	2,385,606,843,047	3,714,285,845,394	4,185,651,472,94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462,080,504,484	3,648,136,025,973	4,105,622,633,447
비지배지분	(76,473,661,437)	66,149,819,421	80,028,839,501
총포괄손익의 귀속	1,747,684,810,892	2,442,376,778,640	4,765,440,663,21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911,506,128,485	2,530,437,109,686	4,639,671,528,875
비지배지분	(163,821,317,593)	(88,060,331,046)	125,769,134,342
주당이익	31,874	47,224	53,297

재무제표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제 43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 : 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자본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적립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2.01.01(기초자본)		482,403,125,000	1,150,452,216,471	405,425,831,163	(2,391,406,055,168)	38,709,474,706,446	38,356,349,823,912	2,373,570,509,793	40,729,920,333,705
당기총포괄 이익	당기순이익					2,462,080,504,484	2,462,080,504,484	(76,473,661,437)	2,385,606,843,047
	자본법자본변동의 변동			(112,973,332,574)			(112,973,332,574)	(17,862,068,632)	(130,835,401,20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변동			(86,660,871,354)			(86,660,871,354)	5,189,620,899	(81,471,250,455)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			(292,014,779,448)			(292,014,779,448)	(71,073,450,520)	(363,088,229,968)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					(58,925,392,623)	(58,925,392,623)	(3,601,757,903)	(62,527,150,526)
자본의 변동	연차배당금					(579,333,330,000)	(579,333,330,000)	(19,750,873,733)	(599,084,203,733)
	중간배당금					(154,488,888,000)	(154,488,888,000)		(154,488,888,000)
	자본에 직 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35,869,835,731	35,869,835,731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		(41,924,322,978)				(41,924,322,978)	715,148,695,532	673,224,372,554
	자기주식의 취득								
거래	자기주식의 처분								
	기타		(3,713,753,759)	(1,926,416,608)		(32,326,784,816)	(37,966,955,183)	34,259,108,815	(3,707,846,368)
2012.12.31(기말자본)		482,403,125,000	1,104,814,139,734	(88,149,568,821)	(2,391,406,055,168)	40,346,480,815,491	39,454,142,456,236	2,975,275,958,545	42,429,418,414,781

재무제표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제 43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연결 현금흐름표

	2012년(제 45기)	2011년(제 44기)	2010년(제 43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19,456,884,559	1,691,565,432,550	3,582,006,250,99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8,488,067,060,460	3,127,904,592,096	4,350,095,862,460
당기순이익	2,385,606,843,047	3,714,285,845,394	4,185,651,472,948
조정	4,169,102,638,722	4,264,365,709,891	4,617,914,618,30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933,357,578,691	(4,850,746,963,189)	(4,453,470,228,789)
이자 수취	238,231,508,387	218,681,750,089	322,658,745,373
이자 지급	(874,710,697,437)	(745,110,881,958)	(480,019,843,316)
배당금의 수취	178,317,126,400	308,691,667,321	141,017,239,461
법인세부담액	(710,448,113,251)	(1,218,601,694,998)	(751,745,752,98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69,003,105,338)	(5,516,866,471,730)	(6,914,820,782,49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616,118,362,834)	(4,556,340,264,057)	(14,546,300,557,01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847,682,245,623	5,794,769,591,140	17,576,747,099,472
대여금의 지급	(434,156,117,470)	(962,098,551,992)	(82,078,655,108)
대여금의 회수	318,744,695,686	896,655,524,600	25,946,447,86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07,711,738,283)	(322,045,953,078)	(561,030,139,91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700,686,109,577	411,060,952,604	258,944,779,959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492,681,338,396)	(740,971,136,417)	(914,491,084,81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8,428,414,005	2,404,099,523	19,394,065,536
유형자산의 취득	(7,054,543,280,612)	(5,330,967,994,255)	(5,791,764,341,381)
유형자산의 처분	272,948,176,493	140,220,788,886	165,794,294,456
무형자산의 취득	(448,214,090,789)	(574,752,905,508)	(246,466,476,251)
무형자산의 처분	10,945,455,201	55,899,133,508	4,963,641,132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268,545,420,196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128,279,986)	(450,126,000)	(310,153,616,162)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19,565,567,551		27,256,955,073
연결실체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취득	(98,879,942,700)	(437,463,566,476)	(3,079,898,955,433)
연결실체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처분	13,040,859,608		6,746,522,266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187,156,898,208)	107,213,935,792	531,569,237,825

단위 : 원

	2012년(제 45기)	2011년(제 44기)	2010년(제 43기)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7,627,135,356)	4,899,885,370,149	4,587,760,733,605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3,007,017,294,752	7,068,322,390,971	4,367,192,674,364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1,884,140,729,454)	(1,746,487,479,712)	(882,476,736,798)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1,412,137,769,989)	51,808,260,987	1,200,954,932,425
배당금의 지급	(751,908,275,301)	(770,857,695,000)	(693,295,902,000)
자기주식의 취득		(61,296,116,240)	
자기주식의 처분		164,383,990,266	6,811,351,340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133,542,344,636	194,012,018,877	588,574,414,274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60,982,206,523)	3,052,402,075	(6,959,751,043)
V. 현금의 증가 (I + II + III + IV)	81,844,437,342	1,077,636,733,044	1,247,986,451,054
VI. 기초의 현금	4,598,681,955,647	3,521,045,222,603	2,273,058,771,549
VII. 기말의 현금	4,680,526,392,989	4,598,681,955,647	3,521,045,222,603

ESG DATA SHEET

	정량성과 명칭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사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 금액	십억 원	59.3	62.1	59.1
	출연 누계	십억 원	695.1	757.2	816.3
	아웃 돌기 성금 기탁현황	십억 원	100	100	100
	100시간 달성	명	11,051	13,478	15,502
	1000시간 달성	명	282	391	527
	인당 자원 봉사 시간	시간	33	35	36
	사회공헌 비용	억 원	760	697	919
	포스워드-취약계층/고용 인원	명	171명/310명	173명/330명	283명/466명*
	포스애포하우징-취약계층/고용 인원	명	28명/43명	83명/110명	
	포스플레이트-취약계층/고용 인원	명	38명/104명	99명/189명	106명/190명
파트너	송도SE-취약계층/고용 인원	명	105명/115명	151명/164명	246명/272명
	자매결연	개	250	249	240
	내국세	십억 원	-138.2	-100.9	-478.8
	지방세	십억 원	94.6	123	88.6
	관세	십억 원	122.7	72.6	67.2
파트너	출자사 자율순주수프그램 도입현황	개	15(13)	20 (18)	25(22)
	구매 협력 Benefit Sharing을 통한 보상 금액	억 원	402	826	1,328
	민·관 공동 R&D 펀드	건	6	6	15
	테크노 파트너십 기술 자문	회	2,072	1,096	1,057
	포스코 인증공급자수	개	64	42	39
	중소기업 발주 현황	억 원	39,496	33,064	37,385
	원료비	십억 원	18,425	25,393	22,176
	재료비	십억 원	1,777	1,944	1,914
	외주용역비	십억 원	1,695	1,944	1,997
	(매출액 비중)	%	67.2	74.8	76.7

* 2012년 포스워드와 포스애포하우징이 포스코휴먼스로 통합됨.

* 재무 Data는 포스코 단독 기준

	정량성과 명칭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자*	매출액	십억 원	32,582	39,172	35,665
	영업이익	십억 원	5,047	4,330	2,790
	당기순이익	십억 원	4,203	3,189	2,500
	영업이익률	%	15.5	11.1	7.8
	ROE	%	12.7	8.78	6.5
	EV/EVITDA	배	6.42	6.92	7.1
	자본총계	십억 원	35,082	37,598	39,165
	부채비율	%	36.3	40.2	33.6
	전체 배당금	십억 원	770	772.4	618
	주당배당금	원	10,000	10,000	8,000
고객	중간배당금	원	2,500	2,500	2,000
	주당순이익	원	48,204	41,279	32,359
	배당 성향	%	20.4	24.2	24.7
	고객만족도 국내고객사	%	80	91	88
	고객만족도 해외고객사	%	72	81	81
	친환경제품 개발 현황	개	24	19	37
	열연	톤	16,012	18,661	18,757
	냉연	톤	13,759	14,041	14,479
	스테인리스	톤	1,694	1,791	1,812
	제품별 판매량				

ESG DATA SHEET

정량성과 명칭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원	행복지수	점		79.3	82.1	
	직원수	명	16,898	17,553	17,623	
	채용	명	913	992	818	
	퇴직	명	923	496	1,029	
	정년퇴직	명	566	1	654	
	퇴직률(Turnover)	%	5.58	2.94	5.85	
	여직원	명	570	625	702	
	총괄직 이상 여직원	명	101	105	146	
	장애인(포스코)	명	234	253	254	
	장애인(포스위드)	명	171	192	220	
	출산휴가	명	24	15	61	
	육아휴직	명	19	22	56	
	교육 인원	명	499,652	539,735	432,793	
	인당 교육 시간	시간	244	252	234	
	학습자 만족도	점	4.41	4.47	4.49	
	직영 재해 건수	건	13	12	3	
	직영 사망자	명	1	0	1	
	외주 재해 건수	건	1	6	4	
	외주 사망자	명	1	0	1	
	직영 휴업도수율	%	0.38	0.33	0.08	
	외주 휴업도수율	%	0.03	0.15	0.10	
	(휴업도수율 계)	%	0.19	0.23	0.09	
	인건비 지급	지불성급여	십억 원	1,247	1,277	1,367
		퇴직총당금	십억 원	262	144	120
		법정복리비	십억 원	76	100	104
연금 지원	국민연금(회사 부담금)	십억 원	32.1	33.3	35.1	
	개인연금 보조금	십억 원	8.7	9.1	9.1	
	개인연금 수혜 인원(명)	십억 원	13,300	13,970	14,317	

정량성과 명칭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산물 자원화율	%	98.4	98.4	98.4	
	부산물 자원화량	만 톤	2,219	2,666	2,358	
	조업용 취수량	m³/t-s	3.85	3.63	3.56	
	방류량	m³/t-s	1.65	1.60	1.69	
	조강 톤당 CO₂ 배출량(직접)	t-CO₂/t-s	2.04	2.00	1.94	
	조강 톤당 CO₂ 배출량(간접)	t-CO₂/t-s	0.09	0.10	0.09	
	환경	대기	억 원	2,981	3,945	4,797
		수질	억 원	1,570	531	1,016
자원화 및 기타		억 원	1,812	352	527	
환경비용	환경설비 투자	억 원	2,683	2,851	3,613	
	환경설비 운영비	억 원	2,208	2,253	2,400	
	자원화비	억 원	1,527	1,168	1,455	
	감가상각비	억 원	407	313	350	
	일반관리비	억 원	170	119	133	
	환경R&D비	억 원	510	314	343	

외부 검증인의 검증 보고서

수신 : 포스코 경영진

본 검증인은 포스코 주식회사로부터 2012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정보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포스코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본 검증인의 책임은 보고서에 대하여 제한적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수행 업무

본 검증인은 ISAE 3000*과 AA1000AS(2008)*에서 정의된 Type2 검증 요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결론 도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 포스코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 포스코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중요 이슈 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 보고기간 중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언급된 미디어 자료 조사
-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 이슈 분석
- 보고기간에 해당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관련 담당자 인터뷰
-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대한 데이터 및 주장에 대한 근거 문서, 인터넷 원천에 대한 검토
- 주요 임원진 인터뷰
- 주요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에 대한 생성, 취합 프로세스의 검토
- 경제 성과 데이터가 포스코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검증 수준

본 검증인은 ISAE 3000에서 기술하고 있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한적 확신의 업무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검증 업무와 비교하여 검증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합리적 확신의 검증업무보다 낮은 확신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제약 사항

본 검증업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토는 제외되었으며, 2011년 이전의 환경 및 사회 성과 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 검증인은 경제 성과 데이터를 포스코의 감사받은 2012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결론

본 검증인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포스코는 사업영역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설정 및 실행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배제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포스코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포괄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균형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서 제외된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포스코가 보고서에 포함될 중요 이슈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포스코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대응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

보고서에 포함된 경제, 사회, 환경 성과정보가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포스코의 경제, 사회, 환경 성과정보로부터 제외된 주요 보고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상기와 관련된 성과정보가 포스코의 보고체계상에서 적절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내 의견 및 주장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제시된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관련된 주요 주장에 대한 정보 및 설명에서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ISAE 300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Accountants 가 발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AA1000AS(2008)

AA1000AS(2008)-Institute of Social and Ethical Accountability가 발행한 두번째 AA1000 Assurance Standard

외부 검증인의 검증 보고서

특기 사항

다음은 본 검증인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검증 과정에서 향후 향상된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경제성과 보고와 같이 환경 및 사회 성과 보고의 경우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최근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의 중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비재무 성과 데이터의 보고 범위를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연결 대상에 있는 주요 회사들의 성과까지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포스코는 포스코의 사회책임경영 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패밀리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활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지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스코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하면 포스코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Communication 활동이 필요합니다.

독립성

본 검증인은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윤리헌장을 준수 하였습니다.

수행업무팀

본 검증 업무팀은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전문역량과 다년간 검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증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RNST & YOUNG
Quality In Everything We Do

2013년 5월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승화

Ernst & Young Han Young

전화 02-3457-0198, 3737

이메일 sustainability@posco.com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 사랑받는기업추진사무국